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지역 특수성 연구

A Study on Regional Uniqueness of Jeju
Manifested in <BaeBiJangJeon>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콘텐츠학과

고 동 실

2015년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지역 특수성 연구

A Study on Regional Uniqueness of Jeju
Manifested in <BaeBiJangJeon>

지도교수 박 태 상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콘텐츠학과

고 동 실

2015년 5월

국 문 초 록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지역 특수성 연구

고 동 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콘텐츠학과

(지도교수 박 태 상)

<배비장전>은 판소리계 소설로서 조선후기의 시대상을 제주라는 서사 공간 속에서 그려내고 있다. 당대 양반사회의 허위의식과 위선을 제주 관아의 관인들에 대한 일탈행위로 나타냈고, 여기에 제주도민들에 의한 집단적 풍자로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양반 권위에 대한 집단적 풍자와 하층민의 냉소는 제주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당대 사회의 보편적인 신분질서에 의한 가치규범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배비장전>의 주요 무대인 제주가 작품 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지역적 특수성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설화에서 판소리로, 판소리에서 고소설로 이어지는 유대를 통해 <배비장전>이 제주지역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유일한 고소설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제주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풍토와 풍속 등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배비장전>

에 대한 기존 연구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거론된 <배비장전>의 근원설화들은 그 영향관계가 모호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발치설화와 미케설화, 그리고 실사를 구분하여 원문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정리해서 그 영향관계가 분명해졌다.

둘째, 제주도는 육지의 지방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조선의 유배지와 변방으로서 제주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환경, 토박이 인물들의 역할과 생활상, 관광지로서 제주의 특징이 소설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제주목사의 부임행차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텍스트와 관련된 제주의 지명이 실제 지명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판소리의 형성기에 이미 구비 전승되던 <배비장타령>이 19세기 전성기를 지나면서 판소리 무대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제주지역의 특수성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판소리는 장시의 형성과 관련이 깊다. 제주의 관아 주변에는 일찍부터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그만큼 판소리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아직까지 제주에는 판소리가 뿌리내리지 못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주에 대한 배경지식이 풍부한 작가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넷째, 제주라는 지리적 특수 공간이 장르의 교섭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문학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해 보았다. 『남사일록』에 소개된 음녀 서사를 애랑 서사와 비교하여 서사적 구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제주기녀의 다양한 면모를 살피는 과정에서 제주기녀 형과 애랑 캐릭터의 욕망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애랑은 제주기녀들의 다양한 면모가 결합되어 탄생한 캐릭터로서 생계유지나 부귀영화를 꿈꾸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선의 신분사회를 비판하려는 작가의 문제의식이 투영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지역 특수성 연구를 통해 판소리계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스토리 전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제주를 주요 배경으로 하는 가장 오래된 국문소설이라는 점에서

<배비장전>은 문헌자료로서 역사적 가치 또한 높다. 더불어 이번 연구를 통해 고소설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일반론으로서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리라 기대한다.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1
2. 기존연구검토 및 연구방법론	5
II. 배비장전의 근원설화	10
1. 발치설화	10
2. 미궤설화	13
3. 실사를 바탕으로 한 야담	17
III. 공간배경 제주의 지역적 특징	23
1. 유배지와 변방으로서의 제주	24
2. 토박이 인물들의 역할과 생활상	31
3. 관광지 제주의 지명 및 특산물	40
IV. 고소설과 판소리의 관계	56
1. 설화·판소리·고소설	56
1) 판소리계 소설의 형성과정	56
2) 판소리 12마당으로 생성된 배경	61
3) 배비장타령이 창을 잃은 요인	69
2. 종합예술로서의 배비장전	76

V. 배비장전의 ‘문학/문화’의 스토리텔링	83
1. 음여도에 얹힌 제주풍속	83
2. 제주도의 특수성과 스토리텔링	97
3. 제주기녀 형과 애랑 캐릭터 창조	108
4. 배비장전의 현대적 문화콘텐츠화	122
VI. 결론	130
참고문헌	133
외국어초록	138



- 표 목차 -

<표 1> 음녀도의 구조분석	87
<표 2> 말치설화의 구조분석	88
<표 3> 미궤설화의 구조분석	89
<표 4> 실사를 바탕으로 한 야담의 구조분석	90
<표 5> 배비장전 관련 설화의 기능요소양상	94



- 그림 목차 -

<그림 1> 이중의 제주 입도 동선	42
<그림 2> 탐라순력도 한라장축 제주성 주변	50
<그림 3>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 지명	51
<그림 4> 생계형	95
<그림 5> 풍자형	96
<그림 6> 음녀의 욕망의 구조	117
<그림 7> 만덕의 욕망구조	117
<그림 8> 곤생의 욕망구조	118
<그림 9> 귀금의 욕망구조	118
<그림 10> 동정춘의 욕망구조	119
<그림 11> 만성춘의 욕망구조	119
<그림 12> 애랑의 욕망구조 A	120
<그림 13> 애랑의 욕망구조 B	120
<그림 14> 애랑의 욕망구조 C	120
<그림 15> 애랑의 욕망구조 D	120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배비장전>은 제주도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최고(最古)의 국문소설이자 실전판소리계 소설이다. 한반도의 최남단인 제주도는 추자도와 마라도 등 50여개의 섬 지역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곳의 행정구역이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조선시대에는 변방이면서 최적의 유배지였다. 따라서 본토와는 다른 지리적 특수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수성은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환경과 문화를 형성하면서 제주의 풍속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문화융성시대를 지향하는 요즘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면서 지역의 특수성이 세계의 보편성으로 인정받고 문화콘텐츠산업으로 활용되는 사례¹⁾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판소리는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민중들과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해온 전통예술이자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대변해 온 우리문화의 정수(精髓)이다. 때문에 그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²⁾받았다. 판소리계 소설인 <배비장전>의 주요무대인 제주도를 조선시대 중 앙양반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변방의 미개 지역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날 제주도에 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따라서 독특한 인문·자연환경이 문화콘텐츠산업과 함께 연계되어 국내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까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배비장전>은 국문학사상 조선후기 양반과 서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민중문학이자 풍자문학으로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큰 작품이다. 판소리 문학에는 봉건체제가 해체되어가던 조선후기의 역동적 사회현실을 반영하면서 현실의 본질과 모순을 파악해내는 민중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배비장전>은 조선후기의

-
- 1) 판소리를 지역문화콘텐츠산업으로 활용한 사례를 연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최혜진, 「판소리 서사를 활용한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현황과 과제」, 『한국민속학』 58, 2013. 유목화, 「서사문학을 활용한 곡성심청축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2008.
 - 2) 판소리는 우리나라 시대적 정서를 나타내는 전통예술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서 2003년 11월 7일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시대상을 제주라는 공간 속에서 당대 양반사회의 허위의식과 위선이 제주 관아의 관인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양반 권위에 대한 집단적 풍자와 하층민의 냉소는 제주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당대 사회의 보편적인 신분질서에 의한 가치규범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이다.

판소리는 민속 연예로서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민속극 형태의 공연 예술이다. 판소리계 소설은 이러한 판소리와 관련 있는 소설로서 한때는 ‘타령’으로 무대에서 전문적 기량을 지닌 창자(唱者)에 의해 불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판소리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7세기인 숙종, 영조 무렵으로 추정되며 전승의 주체는 대개 남도의 무속 음악과 관련 짓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보편적인 전통문화로서 각 지역의 설화와 음악이 결합하면서 다양한 스토리를 지닌 형태로 예술적 세련미와 함께 유파를 형성하였고, 사설의 정리 작업도 이루어지면서 19세기에는 마침내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개화기에는 서양문물의 유입과 함께 창극으로 발전하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새로이 변화를 거듭하였고, 1960년대에는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70년대 이후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오늘날 판소리는 다섯 마당만 전해진다. 판소리의 전성기만 해도 열두 마당으로 불리던 것이 문헌기록에서 차츰 소외되었던 것이다. 판소리의 전승은 전국에 두루 퍼져 있던 창우(倡優)들에 의해서였는데, 판소리의 사설을 구성하는 근원설화 역시 전국적이다. 판소리의 음악적인 측면이 호남의 무악(巫樂)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 대다수의 판소리 명창이 배출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서사적 이야기에 창(唱)을 섞어가며 진행되는 형태가 호남 지역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무가(巫歌) 연창(演唱)이나 배뱅이굿 같은 것에서도 얼마든지 그 존속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지역의 설화와 음악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판소리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판소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적 기반 위에서 나타났는가의 문제³⁾는 작품 자체에서 해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작품에 나타나는 구체적

인 지명이나 연관된 사건과 장소 등의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도 얼마든지 판소리를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배비장전>은 서울 중심의 양반 또는 중인 사회를 전승 기반으로 하면서 서사적 주요 공간 배경을 제주 지역으로 삼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배비장전>이 실전하게 된 요인과 전승 기반으로서의 특징과 서사적 공간 배경으로서 제주지역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척박한 현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스토리텔링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탐라국에서 일개 현으로 강등되었던 역사적 배경과 섬 지방으로서 해양문화와 육지문화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신화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였던 제주는 이러한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육지부와는 다른 문화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고래로부터 대다수의 제주도민은 한반도의 역사적 풍랑 속에 휩박받고 뒤흔들리면서도 참고 견디며 버텨온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하며 삶을 영위해 왔다. 하지만 독특한 신화와 전통문화를 간직한 고장으로서 뿐 아니라 섬 지방 특유의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인문환경은 물론 자연환경⁴⁾까지 오늘날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이러한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관심과 기대에 힘입어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지역 특수성에 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설화-판소리-고소설로 이어지는 유대를 통해 판소리계 소설인 <배비장전>이 제주지역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유일한 고소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제주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풍토와 풍속 등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배비장전>의 근원설화들을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최근의 연구들은 초창기 연구 성과를 거의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새로운 연구가 늘어나긴 했지만 산만하고 그 영향관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발치설화와 미래설화, 그리고 실사를 구분하여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시대별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3) 정병헌, 『판소리와 한국 문화』, 역락, 2002, 38-39쪽.

4) 제주도는 2002년 생물보전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국내 최초로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란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지역은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이다. 그리고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받음으로써 유네스코 3관왕으로 제주의 가치는 전 세계인이 가꾸고 보전해야 할 '환경자산의 보물섬'으로 도약하였다.

둘째, 공간 배경으로서 제주의 지역적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유배지와 변방으로서 육지부와는 다른 변별성을 지닌 제주의 역사적 배경과 환경에 대해 논하고, 문헌 속에 나타난 제주토박이 하층민인 방자와 더불어 사공과 해녀의 생활상이 문학텍스트에서 어떻게 그려졌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관광지로서 제주의 특성이 소설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제주목사의 도입행차 동선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배비장전>과 관련된 제주의 지명 및 특산물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셋째, 고소설과 판소리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판소리계 소설의 형성과정과 판소리 12마당이 생성된 배경에 대해서 고찰한 다음, <배비장타령>이 창을 잃은 요인에 대해서 추적해 보고자 한다. 판소리계 소설은 공연예술 장르로서 판소리의 사설이 소설로 정착된 것이다. 따라서 종합예술로서의 <배비장전>의 성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넷째, 고소설인 <배비장전>의 ‘문학/문화’의 스토리텔링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제주라는 지리적 특수 공간이 장르의 교섭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문학작품 속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남사일록』에 소개된 음여도에 얹힌 제주풍속을 고찰하면서 <배비장전>의 근원설화들도 비교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또한, 문헌 속에 나타난 제주기녀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고, 애랑 캐릭터와 더불어 욕망구조를 비교분석하겠다. 현재 <배비장전>이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전승되는 실례를 찾아보고 현대적 문화 콘텐츠로서 어떻게 변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배비장전>은 20세기 이후에 활자본으로 만들어진 2종의 한글본이 남아 있다. 1916년 신구서림본과 1950년 국제문화관본이 그것이다. 신구서림본은 전체 112쪽의 구활자본 소설로 글자 오른쪽 옆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고 다른 이본에 비해 분량이 길다. 배비장이 망신을 당한 이후 애랑과 재회하고 목사의 배려로 정의현감이 되어 선정을 펼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여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된다. 1956년 세창서관본이 이러한 신구서림본을 바탕으로 다듬은 것이다.

국제문화관본은 김삼불(金三不)이 교주(校註)한 것으로 『민족문학총서』의 시

리즈로 발행되었다. 전체분량은 13쪽부터 86쪽까지 74쪽으로 되어 있으며 괄호 안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고 중간에 ‘註 其一:22-24, 註 其二:38-39’ 등과 같이 네 번의 각주를 달았다. 그리고 배비장이 망신을 당하고 난 후의 이야기는 없다. 예부터 전해오던 원고를 손질하여 간행한 이본으로, 그 원본은 42년 전, 즉 1908년에 박헌옥(朴憲玉)이 전사(轉寫)한 원고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명선(李明善)의 소장본도 참고했다. 따라서 김삼불교주본(이하 김삼불본)의 원본은 1800년대의 판소리 사설(辭說)로서 1916년에 간행된 신구서림본 보다 더 오래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박헌옥의 소장본이 75장인 것을 59장까지만 끊어서 간행했다. 김삼불은 배비장이 뒤주 속에서 헤엄쳐 나오면서 망신당하는 대목까지만 적었던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60장 이후는 대단원의 장면인 문장과 어법으로 보아 후인의 덧붙임이 분명하기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김삼불본은 서울대 정병욱(鄭炳昱) 교수가 현대어로 옮기며, 오자(誤字)를 바로잡고 교주가 미상(未詳)이던 것을 밝혀 1974년 신구문화사에서 다시 발행⁵⁾하였다.

이번 연구는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지역 특수성 연구로서 공간적 배경인 지역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자료를 원전(原典)으로 삼기보다는 두 가지를 모두 텍스트⁶⁾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전체적인 서사는 신구서림본을 저본(底本)으로 삼되, 내용 검토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김삼불본까지 아우르면서 논의의 초점에 충실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검토 및 연구방법론

판소리 사설에 대한 문학적 연구는 반세기가 훌쩍 넘을 정도로 상당히 오래 되었다. 고소설로서 판소리 사설이 갖는 문학적 성격에 주목하여 소설적 구성과 수사기법이나 어휘의 사용문제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5) 김창진, 『배비장전』,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152-154쪽.

6) 이번 연구에서는 『옹고집전·배비장전의 작품세계』(서유석 외, 보고사, 2013)에 수록된 <배비장전> 중 신구서림본과 김삼불본을 텍스트로 삼았다. 본문내용을 직접 인용할 경우 전자는 쪽수만 표시하고, 후자는 ‘김삼불본, ○쪽’으로 명기하였다.

러한 판소리에 대한 문학적 접근을 통해 소설 연구의 다양한 가능성과 방법론에 대한 토대도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배비장전>에 관한 연구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다른 고소설에 비해 그 연구 성과는 미비하다. 그만큼 <배비장전>은 실전판소리계 소설이라는 이유로 작품의 질이 떨어진다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배비장전>은 우리나라 풍자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손꼽을 정도로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조선후기의 사회상을 반영한 평민문학의 성격을 띤 이 작품은 제주라는 섬 지방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가장 오래된 국문소설로 역사·민속자료로서 문헌적 가치가 크다.

<배비장전>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김동욱은 <배비장전>의 연원을 발치(拔齒)설화와 미례(米櫃)설화에서 찾고, 장덕순은 『실사총담』 등의 실담(實譚)에서 설화의 소설화과정을 설명하였다. 권두환은 배비장전의 발단과 결말의 구조를 대비시켜 첫 출사에서 현감으로의 승진, 부인과의 이별에서 애랑과의 결합이라는 두 개의 사건을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배선달의 출사는 곧 관인사회로의 입사로서 배비장의 봉욕(逢辱)을 신참례(新參禮)에 대한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이석래는 소화(笑話)의 전통으로서 <배비장전>의 풍자성을 설명하며, 비속(卑俗)과 부조화(不調和)의 이론이 서로 상반된 가치의 우열 속에서 가치저하원리에 입각해 웃음이 유발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종철은 <배비장전>유형에 관한 연구로 조선후기에 등장한 남성 휘절담을 세태·풍자소설로 묶어서 내기와 공모를 통한 내적구조, 작자와 독자층, 웃음의 성격 등의 차이에 따라 논의했다. 홍진주는 <배비장전>의 형성동인으로 남성휘절설화에 주목하여 휘절 양상을 인물을 통해 고찰하였다.⁷⁾

이와 같이 <배비장전>의 근원설화와 형성과정, 관인사회에서의 신참례, 가치저하원리, 유형연구, 휘절양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작품구조와 관련하여 풍자성과 해학성 내지는 골계성에 관한 논문이 대다수를 차

7)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출판부, 1970, 209-215쪽. 권두환, 「<배비장전>연구」, 『한국학보』 5권 4호, 일지사(한국일보), 1979. 이석래, 「<배비장전>의 풍자구조」, 『한민족어문학』 7권, 한민족어문학회, 1980. 김종철, 「배비장유형의 소설연구」, 『관악어문연구』 제10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홍진주, 「배비장전의 형성과 휘절 양상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지한다. 이들 연구를 논의의 관점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풍자적인 측면에서 박태상은 장편소설인 판소리계 소설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대 단락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앞의 대 단락은 현실 지향적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주인공의 고난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진행되며, 뒤의 대 단락은 이념 지향적 성격을 보이며 고난의 극점에 놓인 주인공을 행복의 극점으로 옮겨놓는 쪽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립적 요소의 통합적 지향이라는 서사구조를 통해 비장과 골계라는 두 이질적 미감을 한 작품 속에 조화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권순궁은 풍자층위를 관아 중심으로 한 길들이기와 양반의 위선에 대한 풍자, 더 나아가 이러한 풍자의 역사적 성격을 밝히고 있고, 김영주는 풍자의 구조를 서사에 나타나는 이질적인 풍자의미와 작품 전체에 작용하는 의미망을 통해서 논하였다. 한효석은 풍자의 문학적·사회적 기능으로 <배비장전>의 성격을 규명하였고, 김은희는 <배비장전>의 풍자성을 통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⁸⁾

둘째, 해학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로 오상태는 해학의 대상으로서 등장인물과 사건 전개에 따른 해학적 표현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부산옥은 작품구조와 문체와 모티브를 통해 해학성을 탐구하였다. 세부구조는 풍자의 구조이지만 전체적으로 화해의 구조에 이르므로 해학소설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배비장전>이 조선조 풍자소설의 백미라고 하는 명성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도 풍자소설과 해학소설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조준호는 골계의 유형을 문예미학과 서사원리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배비장전>을 하나의 완벽한 소극으로서 골계적 소설로 보았다. 하지만 골계의 범주가 너무 크고 모호하여 그 명확성을 위해서 악의 없는 웃음을 독자에게 전하기 위한 해학적 소설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⁹⁾

셋째, <배비장전>과 다른 고소설과의 대비를 통한 연구¹⁰⁾도 있다. 판소리의

-
- 8) 설성경·박태상,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6, 277-324쪽. 권순궁, 『고전소설의 풍자와 미학』, 박이정, 2005, 100-120쪽. 김영주, 「<배비장전>의 풍자구조와 그 의미망」, 『판소리연구』 제25집, 2008. 한효석, 「<배비장전>의 풍자성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김은희, 「<배비장전>의 풍자성과 교육방안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9) 오상태, 「<배비장전>연구-특히 諧謔性을 중심으로」, 『영남어문학』 제7집, 한민족어문학회, 1980. 부산옥, 「배비장전의 해학성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조준호, 「배비장전에 나타난 골계성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인물유형연구로서 권두환·서종문은 방자형 인물이 등장하는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과 <배비장전>과 <화용도>를 중심으로 방자형 인물의 등장과 기능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명현은 중심인물의 성격을 비슷한 구조를 지닌 <오유란전>과 대비하였다. 고연화는 창을 잃은 판소리계 소설인 <장끼전>과 <옹고집전>, 그리고 <배비장전>을 비교하면서 서사와 미적특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윤보윤은 한문야담집인 『천예록』에 실린 설화와 <배비장전>의 유사한 모티프에 관심을 가지고 야담과 고전소설의 형상화 방식과 서사적 의미를 비교하였다.

넷째, 작품의 공간적 배경에 관한 연구¹¹⁾도 있다. 김동윤은 <배비장전>의 공간적 배경에 주목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였다. 소설 텍스트로서 문학적인 접근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조선조 한글 소설 중에서 제주도를 주요무대로 한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옛 문헌의 하나로서 제주도라는 지역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지역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음을 밝혔다. 권순궁은 명을 내린 목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애랑과 방자가 풍자의 주체로서 적극 개입하면서 양반의 권위에 대한 냉소 등의 풍자양상은 19세기 들어 더욱 심해진 수탈체제에 저항하는 제주도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았다. 1862년에 일어난 임술민란을 통해 역사적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배비장전>은 목사를 중심으로 한 내기나 공모가 아닌 방자나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다시 읽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육재용은 배비장을 비장 업무와 제주 관광을 통한 통과례의 주체로 보고 작품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¹²⁾으로 해석하였다.

이상과 같이 <배비장전>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번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지역 특수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으로는 블라디미르 프로프의 ‘구조주의이론’과 르네 지라

10) 권두환·서종문, 「방자형 인물고」,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일조각, 1978. 이명현, 「오유란전과 배비장전 대비 고찰-중심인물의 성격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29집, 2001. 고연화, 「창을 잃은 판소리계 소설 연구: <장끼전>, <옹고집전>, <배비장전>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윤보윤, 「《天倪錄》과 고전소설의 대비적 고찰-〈어사권곡등연상〉, 〈제독라정출래중〉과 <배비장전>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34권 제2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11) 김동윤,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 권순궁, 「배비장전의 풍자와 제주도」, 『반교어문연구』 제14집, 반교어문학회, 2002.

12) 육재용, 「<배비장전>신고찰」, 『한민족어문학』 50권, 한민족어문학회, 2007.

르의 ‘삼각형의 욕망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프로프는 『민담형태론』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가 각기 다른 형식으로 전개되지만 구조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등장인물의 기능은 민담의 기본성분이기 때문에 우선 기능을 추출해 내야 한다. 여기서 등장인물의 기능은 주인공의 행위로서 이해된다. 즉, 기능이 갖는 의미는 행위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기능이 나타나는 민담들을 추적하여 기능을 추출하고 동일한 유형의 색인을 창출함으로써 민담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¹³⁾ 지라르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서 소설 주인공의 모든 욕망은 중개자에 의해 암시된 가짜 욕망으로서 삼각형의 구조를 지닌다고 하였다. 소설에서 작중인물들은 무엇인가를 욕망하면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중개자를 거친다. 즉, 주체와 대상 사이에는 간접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주체의 욕망이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상승하여 중개자를 거쳐 대상에 이르게 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간접화된 욕망을 ‘삼각형의 욕망’이라고 하였다.¹⁴⁾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배비장전>과 관련 설화들의 기능요소를 추출하여 비교분석하고, 더불어 ‘삼각형의 욕망’이론을 적용하여 <배비장전>의 애랑 캐릭터와 제주기녀 형의 욕망구조를 비교분석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사적 공간배경으로서 제주의 지역성이 텍스트 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서술문학에서 공간은 사실성의 관점에서나 추상적·관념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와 ‘섬’이라는 공간적 배경은 작품의 총체성을 파악하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 세태소설이자 풍자소설인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의 지역성을 풍자의 대상이 아닌 풍자의 주체로서 바라볼 경우 작품을 제주인의 시각에서 새롭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지역 특수성 연구를 통해 <배비장전>을 문헌적 자료로 재인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문학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지역 문화콘텐츠로서 새로운 문학담론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 V. Propp, 유영대 옮김, 『민담형태론』, 재편집, 새문사, 2013, 34-37쪽.

14) Girard, Rene, 김치수·송의경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1, 22-23쪽.

II. 배비장전의 근원설화

<배비장전>은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¹⁵⁾에 나오는 발치설화(拔齒說話)와 이원명의 『동야회집』에 나오는 미쾌설화(米櫃說話)가 근간이 되고, 그 위에 비슷한 내용을 지닌 평양기생 이야기, 『실사총담』 중 <풍류진중일어사> 등의 실사와 설화가 덧붙여져서 한 편의 소설로 굳은 것¹⁶⁾으로 보고 있다. 김동욱은 『동야회집』 오금부(烏金釜)·장고(杖鼓)고리 설화도 언급했는데, 그 내용이 <배비장타령>과 비슷하다. 기생에게 가지고 간 재물을 다 빼앗기는 설화이나 끝에 가서 기생이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오금(烏金)이어서 횡재를 하였다는 설화이다.¹⁷⁾ 또한 홍만종의 『명엽지해』에 실린 「妓籠藏伯(기룡장백)」과 부묵자(副墨子)가 쓴 『과수록(罷睡錄)』의 발치설화도 추가¹⁸⁾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언급된 발치설화와 미쾌설화, 그리고 실사를 바탕으로 한 야담들을 문헌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발치설화

가. 『태평한화골계전』에 실린 발치설화

15) 『태평한화골계전』은 조선시대의 가장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문헌설화자료이다. 국문학사상 현전하는 최초의 순수설화집이라 할 수 있다. 저자인 서거정(세종 2년, 1420-성종 19년, 1488)은 1477년(성종 8)에 이 책을 지어서 1482년(성종 13) 경에 간행하였다. 강희맹의 『골계전서』에 의하면 본래 4권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목판본 1종, 필사본 2종, 프린트본 2종의 5종류의 이본이 있다.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 목판본(만송본), 서울대도서관과 영남대 도서관 도남문고 소장 일사 방중현선생 구장본을 등사한 프린트본(일사본), 민속학자료간행회 간행 『고금소총』 속에 들어 있는 프린트본(민자본). 일본 천리대 금서목록 소장, 순암 안정복선생 구장본의 필사본(순암본), 백영 정병욱 선생 소장 필사본(백영본), 이본은 아니지만, 권별의 『해동잡록』에 『태평한화골계전』이 그 출전이라고 밝혀진 이야기 4화가 더 있다. 따라서 『태평한화골계전』에 실린 총 화수는 271화가 된다. 서거정 원저, 박경신 대교·역주, 『태평한화골계전』, 국학자료원, 1998 참조.

16) 설성경·박태상, 앞의 책, 293쪽.

17)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19, 선명문화사, 1975, 336쪽.

18) 위의 책, 345쪽.

계림에 사는 창녀가 자신의 미모에 반한 서울의 한 소년에게 본래 자신은 벌열 집안 태생인데 적몰되어 노비가 되었으나 남자를 꺾어본 적이 없다며 유혹하였다. 결국 두 사람이 이별할 때 소년은 행탁에 있는 것을 다 주었다. 하지만 창녀는 사양하며 신체에서 잘라낸 물건을 얻고 싶다고 하자 소년은 머리카락을 잘라 주었고, 그것마저 사양하며 더욱더 절실한 것을 원했다. 소년은 앞니를 분질러 그 여자에게 주고는 서울로 돌아왔다. 어느 날 그 고장에서 올라온 사람한테 물어보았더니, 창녀는 이별하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갔다고 했다. 화가 나서 종을 보내어 앞니를 되찾아 오도록 했더니, 창녀는 오히려 “어리석은 아이로다. 백정더러 죽이기를 경계하고, 창녀더러 예를 지키라고 하니. 바보가 아니면 망령된 사람이다. 너의 어리석은 아이의 이빨을 찾아 가도 좋다.” 라고 말하고, 이빨이 가득 든 자루 하나를 던져주며 거기에서 찾아가라고 했다. 거기에 든 것은 지금까지 한 개씩 얻은 남자들의 이빨이었다.¹⁹⁾

발치설화는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에만 실려 있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한문야담집에 두루 실려 있다. 소년이 계림에 사는 기생에게 혹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주었는데도 모자라 기생은 신체에서 잘라낸 물건을 얻고 싶다고 하자 머리카락을 잘라주었지만 기생은 더욱 절실한 것을 원했고 급기야 앞니를 분질러 주고는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기생은 이별하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갔고 이에 소년이 종을 보내어 앞니를 찾아오게 한다. 기생은 이빨자루를 던져주며 주인의 이빨을 찾아가라고 했다. 단순한 서사 속에 색을 탐하는 소년의 어리석음과 창가의 예를 언급할 정도로 골계미가 돋보인다. 사실 이러한 해학은 단지 독자를 웃게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 사대부와 기생 간의 보편적인 문화와 행태를 비판하는 날카로운 시각이 들어있다. 사대부에 대한 조롱을 통해 신분계급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풍자한 것이다.

나. 『명엽지해』의 <명노추치(命奴推齒)>

19) 이 이야기는 현존하는 순암본, 만송본, 일사본, 민자본, 해동잡록에 두루 실린 것으로 이가원, 『골계잡록』(민중서관, 1972) 54-55쪽에 번역되어 있는 것을 참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고금소총』에 실린 「동국골계전」에서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는데, 「동국골계전」은 이마니시 문고본으로서 다른 판본에는 책 제목이 『태평한화골계전』으로 되어 있다. 서거정 원저, 박경신 대교·역주, 앞의 책, 284-288쪽 참조.

최생이란 선비가 함흥 통판이 된 부친을 따라 함께 그곳에 갔을 때, 기녀에게 미혹되었던 이야기이다. 부친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최생도 기녀와 작별을 하게 되었다. 일단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정표로 몸에서 잘라낸 물건을 달라고 하자 최생은 즉시 이빨 하나를 뽑아 기녀에게 주었다. 행차도중에 길가에 있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말을 먹이는데, 벌써 기녀가 그리워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한 젊은 놈이 그곳에 이르러 눈물을 흘리며 호느껴 울고, 또 다른 한 젊은 놈도 뒤이어 눈물을 흘렸다. 눈물 흘리는 사연을 듣자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한 놈은 서울 재상 댁의 노비인데 일찍이 함흥 기녀를 사랑하였는데 기녀가 통판의 아들에게 총애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방백의 아들이 그녀를 들여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한 놈은 본래 서울의 장사치인데, 작년에 북관에 갔다가 아름다운 기녀가 있다는 말을 듣고 관아의 도령이 그녀를 독차지하자, 재물로 피어 틈만 나면 정을 통했는데 그 도령이 서울로 돌아가게 되어 자신은 그 기녀와 마음껏 즐길 수 있으리라 여겼더니 뜻하지 않게 이번에는 방백의 아들이 그녀를 사랑하여 감영 안 깊이 감춰두었기 때문에 다시 볼 방법이 없게 되었으니 가슴이 찢어질듯하다는 것이다. 결국 최생은 기녀에게 속은 것을 알고 즉시, 종더러 이빨을 찾아오라 명령하였는데 기생이 박장대소하며 “어리석은 인간, 푸줏간에서 살생하는 것을 경계하고 창가에서 예를 지키라고 책망하는 격이니 어리석은 것이 아니면 망령된 것이지.”하며 포대 하나를 마당에 던지며 주인의 이빨을 찾아서 가져가라고 말하였다. 종이 다가가 보니 포대에 가득 찬 이빨이 서너 말쯤 되었다.²⁰⁾

<명노추치(命奴推齒)>는 ‘노비에게 이빨을 찾아오라고 명하다’는 의미로 『고금소총』에 수록된 발치설화이다. 『명엽지해(冥葉志諧)』²¹⁾뿐 아니라 『파수록(罷睡錄)』에도 비슷한 내용의 발치설화가 있다. 『파수록』은 저자 미상이며 편찬시기가 영조 18년(1742)으로 추정되며 ‘파수(罷睡)’라는 책명에는 ‘잠을 달아나

20) <파수록>에도 같은 내용의 발치설화가 있다. 파수록(罷睡錄)은 저자 미상이며 편찬시기가 영조 18년(1742)으로 추정되며, 잠을 달아나게 하는 이야기라는 의미이다. 유화수·이월영 편역, 『고금소총』, 전통문화연구회, 2014, 260-262쪽, 284-285쪽 참조.

21) 『명엽지해(冥葉志諧)』에서 명엽은 명협(冥莢)의 잎인데, 요임금 때 조정에 난 서초(瑞草)로 초하룻날부터 매일 한 잎씩 나서 자라 열여섯째 날부터 매일 한 잎씩 저서 그믐에 이르기 때문에 달력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고, 지해(志諧)는 우스갯소리를 기록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명엽지해는 날마다 기록한 우스갯소리라는 의미로 홍만중(1643-1725)이 편찬한 책이다. 가람 이병기 선생이 유몽인의 『어우야담』과 더불어 최고의 설화문학집으로 평가할 만큼 뛰어난 문학성을 보여준다.

게 하는 이야기'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태평한화골계전』에 실린 발치설화와 비교해 보면 장소와 신분과 상황전개가 약간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한 줄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생이란 선비가 함흥 통판이 된 부친을 따라 가서 겪은 일이다. 부친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자신도 기녀와 이별을 하면서 이빨 하나를 뽑아 정표로 주었는데 결국 자신뿐 아니라 기녀와 정분을 쌓은 남자가 여러 명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독자에게 웃음을 주는 골계미가 두드러진 작품이다.

이상과 같이 발치설화는 <배비장전>에서 전반부의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녀의 미모에 반한 선비가 자신의 재물들을 모두 주고 그것도 모자라 정표로 몸에서 잘라낸 신물(信物)을 요구하자 이빨까지 뽑아주는 행위는 경직된 유교사회의 신분질서와 남성성에 대한 도전이다. 애랑은 관권을 빌미로 현지 도민들에게 수탈한 물건들을 챙겨서 서울로 돌아가려는 정비장을 포구에서 붙잡고 거짓눈물로 마지막 유혹에 최선을 다한다. 그의 뱃짐물목을 몽땅 털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양반 체면의 상징이던 의관, 상투, 이빨까지 얻어 내려 함으로써 사대부 남성들에 대한 철저한 복수심²²⁾을 드러냈던 것이다.

2. 미륵설화

가. 『명엽지해』에 실린 <기룡장백(妓籠藏伯)>

성종 때 원성(原城)에 이름난 기녀가 있었는데 그곳에 파견된 벼슬아치들이 모두 그녀에게 현혹되었다. 한 대관이 임금 앞에서 그 기녀에게 현혹되어 가까이 하였던 무리들을 탄핵하니, 성종이 색을 좋아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니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후 성종이 대관을 특별히 관동 방백에 임명하였는데, 그 사람은 부임하여 기생의 수청을 모두 물리쳤다. 성종은 몰래 원성목사에게 일러, 여색으로 방백을 시험하라고 명하였고, 결국 원성목사는 기녀와 공모하였다. 하루는 기녀가 일부러 감영에 말을 풀어놓자 뜰에 있는 국화를 모두 먹어치워 버렸다. 이에 화가 난 방백이 말 주인을 찾으니,

22) 정출현, 「관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여성형상과 그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7권,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1995, 163쪽.

과부로 위장한 기녀가 들어가 집안에 남정네가 없기 때문에 말을 놓쳐 국화를 버려놓고 말았다고 하였다. 방백은 그녀의 미모에 반해 차마 벌을 주지 못하고 시중드는 아이에게 물으니, 그는 자신의 누이라며 일찍이 남편을 잃고 감영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며칠 후 사또가 관대하게 용서해 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집에서 탄 배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올리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방백은 잘됐다고 여기고, 그녀에게 스스로 가져오도록 한 뒤 사통하였다. 하루는 방백이 기녀의 집에 가서 옷을 벗고 누웠는데, 조금 있으니 문밖에서 어떤 놈이 큰 소리로 꾸짖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야박하지 않을 만큼 너를 챙겨주었는데도 이제 와서 나를 배반하다니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하자, 기녀는 “강폭한 놈이오니 사또님께서서는 잠시 장롱 안으로 피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방백은 장롱 안에 숨었는데, 그놈이 문을 밀치고 들어와 성난 목소리로 “저 장롱 속에 있는 옷들은 모두 내가 마련해 준 것이니 관아에 송사해서 도로 빼앗아, 너에게 속은 것을 설욕하고 말테다.” 그러고는 노끈으로 장롱을 동여매더니 쥘어지고 나가 곧바로 목사에게 가 말했다. 목사가 장롱을 열라고 명하자, 그 안에는 벌거벗은 한 남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엎드려 있었다.²³⁾

<기룡장백(妓籠藏伯)>은 ‘기녀의 장롱에 갇힌 방백’에 관한 이야기로 미케설화와 맥을 같이 한다. 시간적 배경은 성종 때이고, 장소는 원성 즉, 강원도 원주이다. 결국, 강원도 관찰사가 <배비장전>에서는 제주비장으로 변이된 것은 창작자의 신분상 위치와 시대적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화에서 성종임금이 신하인 대관을 시험하기 위해 관동방백으로 임명을 하는가하면 목사에게 명하여 작성하고 훼손시켰던 것이다. <배비장전>에서는 정비장과 애랑의 불쌍사나운 이별장면을 목격한 후 자신은 절대 여자에게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던 배비장이 결국 훼손되고야마는 망신담이 포함된 후반부 내용의 근원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설화의 서두에서 임금이 했던 역할이 “나으리는 남의 말삼 슈이 마오 색계상에는 영웅렬사(英雄烈士)업습닌다”(신구서림본, 31쪽)²⁴⁾라고 하는 방자의 말로 변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상층인 임금의 명령과 천민인 방자의 역할이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스토

23) 유화수·이월영 편역, 앞의 책, 224-227쪽.

24) 서유석 외, 앞의 책, 352쪽.

리 전개상 어쩔 수 없는 신분상의 위치를 제외하고는 두 인물의 역할은 일맥상통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배비장전>에서 방자는 구대정남임을 자칭하는 배비장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내기를 건다. 결국 방자가 건 내기에 휩쓸리게 된 배비장은 체면을 세우느라 처음에는 색을 멀리했다. <기룡장백>에서도 대관이 임금 앞에서 기녀에게 현혹된 사대부들을 탄핵했으니 스스로 여색에 빠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고 달려드는 데야 어쩔 수 없이 목사와 기녀의 공모에 휘말려들게 된 것이다. 배비장 역시 목사와 애랑의 공모에다가 내기까지 건 방자의 도움으로 철저히 망가졌던 것이다. 김동욱은 이러한 <기룡장백>이 200자 미만의 단형을 이루지만 <배비장전>에서는 광대들의 익살이 덧붙여져서 장형으로 늘어났다²⁵⁾고 결론 내렸다.

나. 『천예록』에 실린 <제독라정출괘중(提督裸程出櫃中)>

제독관이 기녀에게 속아 알몸으로 궤짝 속에 갇힌 후 결국 관아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을 드러냄으로써 망신당한다는 이야기이다. 경주 제독관으로 부임한 문관이 관기들의 머리를 곱방대로 때리며 욕을 하여 기녀들의 원성을 산다. 이에 그를 미워하던 부윤과 기생들의 공모에 휘말려든다. 어린 기녀가 촌 아낙네로 변장해서 제독을 유혹하며 자신의 집에서 몰래 만나자고 약속을 한다. 그 집으로 가서 옷을 벗고 누웠는데, 밖에서 기녀의 남편인 관도 철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녀는 다급하게 방안의 빈 궤짝에 알몸인 제독을 들어가게 하고는 덮개를 닫고 자물쇠를 걸어버린다. 사내가 기녀와 한바탕 싸우다 궤짝이 서로 자기 것이라며 다투게 되고, 날이 밝자 궤짝을 메고 관아로 갔고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는 판결이 내려진다. 나졸들이 궤짝에 톱질을 하자 궤짝에서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벌거벗은 제독이 뛰쳐나와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민망해 했다. 부윤이 옷을 주도록 하니 기녀들이 일부러 장옷을 올리자 제독은 장옷만 걸친 채 향교로 달음질쳐서는 그날로 달아나 버렸다. 지금도 경주에서는 ‘궤짝 제독’이라 하여 우스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²⁶⁾

25) 김동욱, 앞의 책, 348쪽

26) 『천예록』은 수촌(水村) 임방(任墜, 1640-1724)이 편찬한 야담집으로 조선시대의 신선이나 귀신, 이인 및 여성 등의 기이한 행위를 수록해 놓은 책이다. 天倪란 『장자』에서 유래한 말로 ‘하늘의 끝’이나 ‘자연의 분기’라고 풀이되는데, 이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음을 의

<제독라정출케중>은 경주 제독관의 망신담이다. 전체적인 줄거리가 <기룡장백>과 유사하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인공이 먼저 관기들의 머리를 때리며 욕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원성을 사면서 공모에 휘말려든 것이다. <기룡장백>에서 기녀가 과부로 변장한 것이나 <제독라정출케중>에서 촌 아낙네로 변장한 것은 같은 모티프이다. 다만 <기룡장백>에서는 과부와 눈이 맞은 ‘어떤 놈’이던 것이 <제독라정출케중>에서는 ‘남편인 관노 철호의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해서 신분과 이름까지 나온다. 이것은 <배비장전>의 관노 방자와 비슷하다. 기생 애랑이 목사와 공모하여 배비장을 유혹할 때 방자는 애랑을 도와 남편으로 위장해서 배비장을 당혹하게 했던 장면과 일치한다. 망신당한 제독은 그길로 달아나버렸지만, 배비장은 달아나려고 했으면서도 못 달아나고 오히려 애랑에게 사과까지 받았다. 게다가 김정 목사의 후원을 받고 비장에서 현감으로 신분상승은 물론 애랑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렸다.

다. 『동야회집』에 수록된 <차관출케수라단(差官出櫃羞裸袒)>

기생을 멀리하는 노모(盧某)라는 경차관(敬差官)이 경주에 도착했는데, 근처에 기생들을 엄금하도록 했다. 부윤(府尹)은 이 말을 듣고 차관을 골려주는 자는 중상(重賞)을 내리라고 하였다. 한 기생이 자원하여 촌부(村婦)로 가장하여 매일 차관이 머무는 객사(客舍)에 가서 시동(侍童)과 수작을 하며 차관을 유혹하였다. 어느 날, 여인이 왔으나 소동(小童)이 피하고 없자, 차관이 직접 여인을 방으로 불러, 그간 그녀에게 연연해 왔음을 말한다. 이에 여인은 응하는 척하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니 차관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윽고 밤이 되어 여인의 집에 찾아가 막 함께 누우려고 할 즈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여인은 깜짝 놀라며 전남편인 관노 철호(鐵虎: 사실은 소동)라고 밝힌다. 여인은 잠깐 방 밖의 철호와 이야기를 했는데, 철호가 장차 방으로 들어오려 하자 차관은 여인이 이끄는 대로 벌거벗은 채 궤 속에 숨는다. 이내 그들은 다투다가 살림을 양분해 가는 도중에 궤를 가지고 싸운다. 끝내는 궤를 매고 관에 가게 되었고 부윤은 반으로 나누

미한다. 윤보윤, 앞의 논문, 332-333쪽 참조.

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 사람 살리라는 소리가 들려 껀을 열어보니 차관이였다. 차관이 하체를 가리고 기가 죽어 있었다. 부윤은 위로 올라오라고 하고 의관을 가져올 것을 명하고 가져온 옷은 여인장의였다. 그러나 급한 대로 가리고 관소로 달려갔고 그날로 달아나 버렸다.²⁷⁾

김동욱이 『한국가요의 연구』에서 <배비장전>의 근원설화로 서거정의 발치설화와 이원명의 미궤설화를 언급²⁸⁾한 바 있다. 여기서 미궤설화는 <차관출궤수라단>을 가리킨다. 하지만 그 후 미궤설화는 다시 <기룡장백>을 첨가하였다. <기룡장백>을 수록한 『명엽지해』는 홍만중(1643-1725)이 편찬한 책이고, <제독라정출궤중>이 수록된 『천예록』은 임방(1640-1724)이 편찬한 야담집이다. 『동야회집』은 조선 후기에 이원명(1807-1887)이 1869년에 편찬한 야담집이다. 따라서 미궤설화의 원형(原型)은 18세기의 설화인 <제독라정출궤중>과 <기룡장백>에서 찾고, 이것이 19세기에 『동야회집』에 실리면서 <차관출궤수라단>으로 전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차관출궤수라단> 역시 앞의 원형들과 줄거리가 동일하다. 노씨 성을 가진 경차관이 경주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조선후기 관료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암행어사인 경차관은 전국의 손실을 조사하고 민정을 살피기 위한 임시직으로 지방 행정관과 마찰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지방행정관들은 자신의 부패와 비리를 감추기 위해 오히려 경차관을 감시하고 그들의 비행을 폭로함으로써 자신들의 부정을 정당화하였던 것이다.

3. 실사를 바탕으로 한 야담

가. 『어우야담』에 실린 속이기 궤절담

27) 한효석, 앞의 논문, 11-12쪽.

28) 김동욱, 앞의 책, 345쪽.

채세영(蔡世英)은 내한(內翰)으로 포쇄별감(曝曬別監)²⁹⁾이 되어 전주에서 사책(史冊)을 별에 찍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사명을 받은 사대부들이 주부(州府)에 가서 기녀에게 객사에서 잠자리를 모시도록 하며 자못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드러내 말하고는, 먼저 열읍(列邑)에 공문을 보내 기녀를 빈관(賓館)에 들이지 못하도록 했다. 전주에 도착하니 달이 바뀌도록 장맛비가 내려 사고를 열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오래 머물게 되니 무료함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런데 부윤이 관관에게 “젊은 사관이 오랫동안 빈관에 체류하고 있는데, 명령이 엄하여 이곳의 여색을 사랑해 볼 수도 없으니 주인이 어찌 귀한 손님을 이처럼 삭막하게 대접하겠는가.”하고 말했다. 이에 관관은 기녀를 한 명 뽑아 흰옷을 입혀 용모를 꾸미고는 절굿공이를 들고 객사와 가깝고 외진 곳에서 절구질을 하게 했다. 또 시중드는 아이에게는 한림이 물으면 반드시 관기가 아니라 서울 재상집의 여종인데, 친가에 휴가 와 있다가 상을 당해 머문 지 석 달이 되었고, 백일의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고 아뢰도록 하였다. 채세영은 이 소복한 여자에게 반해서 시중드는 아이에게 만약 관기가 아니라면 부의 관리에게 알리지 말고 몰래 데려오도록 했다. 시중드는 아이는 부의 관리에게 고하였고, 기녀는 객사에서 밤을 새고 아침이면 돌아갔다. 하루는 부의 관리가 채세영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녀가 기녀로서 거문고를 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로부터 전혀 거리낌이 없어 밤낮으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자 역마울의 객사인 우정(郵亭)에서 서로 작별하는데, 눈물을 참아보려 했지만 두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쏟아졌다.³⁰⁾

『어우야담』에 실린 이 속이기 휘절담은 앞서 설명했던 발치설화와 미귀설화의 줄거리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배비장전>에서 배비장이 정남인 채하다가 여색에 빠져 관아에 모인 사람들에게 망신당한 스토리와도 일맥상통한다. 『어우야담(於于野譚)』을 쓴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은 조선조 중기의 문장으로 18세기의 문장가인 임방이나 홍만종과는 팔십 년이 넘는 시간적 간극이 생긴다. 따라서 <제독라정출쾌중>이나 <기룡장백>도 어떻게 보면 이 설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유몽인은 말미에 자신이 일찍이 늙은 기녀 노옹향(露凝香)에게서 들은 말³¹⁾을 적음으로써 이 설화를 쓴 목적이 관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29) 포쇄별감이란 조선시대 때 사고에서 서적을 점검하고 거풍하는 임시직으로 주로 예문관 검열이 담당하였다.

30) 유몽인 저, 신익철 외 옮김, 『어우야담(於于野譚)』, 돌베개, 2006, 141-144쪽.

위한 목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색에 빠져 훼손하는 사대부 이야기의 원류는 오히려 『어우야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포쇄별감이란 직책 역시 임시직이다. 앞서 언급했던 경차관처럼 지방관들과의 유대관계에 매우 민감한 벼슬이다. 후대의 설화들과 다른 점은 훼손하는 주인공의 실명, 즉 ‘채세영(蔡世英)’이 거론되었다는 것이다. <배비장전>에서는 성씨(姓氏) 뒤에 바로 ‘비장’이란 중인신분을 전면에서 드러냄으로써 전체적 스토리전개가 신분갈등에 대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느낄 수 있다. 비장신분의 남자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설화에서는 주인공이 훼손은 했지만 크게 망신당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후에는 노골적으로 색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나눈 작별의 정 또한 애틋하다. 충분히 실제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즉, 개연성 있는 서사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이 또한 <배비장전>과의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

나. 『천예록』에 실린 <어사건괘등연상(御史巾幘登筵上)>

시찰 온 어사를 못마땅하게 여긴 감사가 기녀를 이용해 그에게 부녀자의 장옷을 쓰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 내용이다. 오래 전 어느 명관이 어사가 되어 전주를 순시하는데, 매우 오만하여 기녀를 들이지 않고 혼자 묵는다. 감사와 부윤은 그를 곤경에 빠뜨리고자 관기 중에서 재색이 뛰어난 자를 골라 소복을 입혀 촌 아낙네로 분장시키고 어사의 눈에 띄게 한다. 결국 그 기녀에게 빠져 매일 관아에 끌어들여 운우지정을 나눈다. 어느 날 기녀가 관아 밖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어사를 초대하여 어사가 미복차림으로 몰래 찾아간다. 감사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별당에 연회를 마련하고, 기녀가 어사에게 함께 구경 가기를 청한다. 기녀가 이미 어사의 갓과 옷을 숨겨놓아 어사는 기녀의 말대로 여자의 다리와 장옷만 입고 관아로 간다. 갑자기 관아의 문을 반만 열어 한 사람씩 확인하며 관아에서 내보낸 후에 대숲에 엎드려 숨어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한다. 변장하였던 사람이 어사임이 밝혀지고 연회에 왔던 손님, 악공, 기녀, 이방 및 군졸들이 이 광경

31) “객사에 머무는 관리 중 기녀를 보고 농담하며 웃는 자는 범하기가 어렵고, 기녀를 보고 정색하는 자는 다루기가 쉽습니다.”

을 목격하고 매우 놀란다. 감사는 어사가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자리에 앉게 하고 기녀도 불러 함께 연회를 즐긴다. 다음날 어사는 떠나고 벼슬길이 막힌다.³²⁾

<어사건꺾등연상>은 어사가 쓰개를 쓰고 연회에 참석한다는 의미로 역시 임시적인 어사가 감사와 기녀의 공모에 의해 망신당한다는 이야기이다. 속이기를 통한 극적 구조 양상으로 속이기 전과 후가 배치되어 액자구조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속이기 전 단계에서는 속임을 당하는 인물의 위선적인 행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시간적 배경이 ‘오래 전(昔)에 있었던 일이고, 공간적 배경은 전주임을 밝히고 있어 일이 일어났던 시기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야담은 사실(事實)을 바탕으로 한 사건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기록한다. 때문에 특정 시기까지 언급하면 당시 어느 어사의 일인지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불명확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격적인 속이기 단계에서 어사가 기녀에게 미혹당하면서 옷을 벗는다. 그리고는 기녀는 어사의 갓과 옷을 숨기고 그에게 여자가 머리술이 많아 보이도록 사용했던 쓰개인 다리와 장옷을 입혀 연회를 핑계 삼아 관아로 데려간다. 어사의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대숲에 엮드려 숨어 있던 두 사람을 발견하면서 절정에 이른다. 그렇게 정체가 드러난 어사는 여장을 하고 있다는 수치심을 넘어서 감사에게 속았다는 분노까지 느꼈을 것이다. 다음날 어사는 떠났고 그로부터 벼슬길이 막혔다는 것으로 속인 후의 결과가 드러났다. 이것은 액자구조처럼 속이기 전후가 삼단구조를 이루면서 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위선적인 인물의 실상을 연극의 단막극처럼 꾸며 극적으로 풍자의 효과³³⁾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기생이 거짓으로 소복을 입고 유혹하는 것은 앞서 제시한 『어우야담』의 훼손담과 비슷하면서도 끝마무리는 서로 엇갈린다. 따라서 『천예록』의 편찬자가 널리 퍼져있던 이전의 야담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재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어우야담』의 훼손담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32) 윤보윤, 앞의 논문, 329-330쪽.

33) 위의 논문, 330-332쪽.

다. 『실사총담』에 실린 <풍류진중일어사(風流陣中一御史)>

옛날에 한 명재(名宰)가 순안어사(巡按御史)로 전주에 이르렀는데 감사부윤(監司府尹)이 기녀와 공모하여 유혹하기로 계획한다. 소복을 입은 촌 아낙네로 분장하여 어사의 거처에 수차례 왕래하면서 거느리는 아이더러 자신의 누이인데 소복을 입은 것은 부(夫)가 상을 당하여 그렇다고 거짓으로 꾸며 말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기녀에게 매혹된 어사가 밤에 기녀의 거처에서 옷을 벗고 함께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다. 한편 감사와 도사부윤이 별당에서 잡희(雜戲)를 베풀자 기녀는 어사에게 잡희에 가자고 권하고 자기 어머니의 두롱달이(頭弄達伊)와 흑색장의(黑色長衣)가 있으니 사또가 만일 이곳에 도착하면 변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어사는 노부(老婦)로 변복하여 기녀와 정원 안의 대숲에 몸을 숨기지만 결국 발각되었다. 부윤은 그 복색으로 어사를 상석에 앉히고 술을 권하고 완롱한다. 다음날 어사는 길을 떠난다.³⁴⁾

장덕순은 『한국설화문학연구』에서 김동욱이 제시한 미케설화의 전신으로 『실사총담』³⁵⁾의 <풍류진중일어사>와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의 <모안염위기광욕(某按廉爲妓狂辱)>을 제시했다. 발치사건은 없지만 어사가 흑장의(黑長衣)에 두롱달이(頭弄達伊)를 쓰고 촌부로 변장해서 야밤에 잡희구경을 간다는 설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이다. <모안염위기광욕>에서도 기녀가 간엄(簡嚴)한 안염사(按廉使)를 봉육하는 내용으로 기녀 혼자서 비밀스런 시간과 장소에서 전개된 이 사건은 다른 기녀들이 옆방에서 엿보기는 했으나 대낮에 대중 앞에서 당하는 봉육과는 다르다. 근엄하고 허장성세를 일삼는 호남형의 남자라면 곧잘 당할만한 실담(實譚)이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점차 설화로 정착되고 거기에 흥미로운 내용을 덧붙여서 소설로까지 승화되었던 것이다. 비현실적인 설화 이전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사(實事)가 설화적으로 문헌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³⁶⁾

34) 장덕순, 앞의 책, 210-211쪽.

35) 『실사총담』은 1918년 최영년(崔永年)이 편찬한 저서로 근대설화집으로 시화나 풍속, 제도에 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고, 역사상 실제 인물들의 일화집이라고도 할 수 있다.

36) 장덕순, 앞의 책, 211-215쪽.

위에 제시된 야담들은 모두 전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풍자의 대상이 포쇄별감 및 어사 등의 임시직 벼슬로서 중앙에서 파견되어 지방에 내려온 관리들이다. 훼손시키는 주체는 부윤, 감사 등의 지방행정관이며 이들은 기녀와 공모하여 사건을 전개시킨다. 훼손방법도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재색을 검비한 기녀는 하나같이 소복을 입고 거짓으로 꾸며 유혹한다. 이것은 부윤과 감사 등이 기녀와의 공모를 통해 중앙에서 전주로 내려온 관리를 잔치마당에 모인 많은 대중 앞에서 망신을 줌으로써 임시직 관리를 견제하고 자신들의 비행을 감추려는 의도로서 당대 현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Ⅲ. 공간배경 제주의 지역적 특징

전통적으로 소설은 서사양식으로서 이야기가 핵심적 요소이다. 이야기란 인물과 사건, 그리고 배경을 갖춘 덩어리이다. 이야기, 즉 스토리에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인물이 있고 그 인물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고 사건과 인물을 둘러싼 시공간인 환경이 있다. 따라서 인물, 사건, 배경의 세 요소를 갖춰야 스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서사양식은 문학의 전유물로 생각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서사텍스트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물, 사건, 배경이 갖추어져 있는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서술자(창자)가 있는 판소리는 매우 독특한 서사양식이다.

서사문학으로서 판소리계 소설인 <배비장전>에 관한 기존연구는 소설구성에 있어 인물과 사건에 대한 연구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문학에 있어 배경(背景)은 작품의 시대적·역사적인 환경을 말하며 이외에도 뒤에서 돌보아 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건이나 환경을 둘러싼 주위의 정경을 이룬다. 서사문학에서 인물과 사건에 형상을 부여하는 구실을 간과해버리면 주제를 잘못 파악하거나 편협된 해석에 치우쳐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흔히 고소설에서 배경은 사건을 위한 보조적 요소로 생각하여 그다지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스토리에 설정된 배경을 그려내는 문장들은 이야기의 흥취(興趣)를 배가시키며 분위기를 살려낸다. 이는 배경이 이야기의 단순한 보조적 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맥락을 지탱시켜 주는 필수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확실한 근거이다. 소설에서 시간의 흐름은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공간은 삶의 조건을 구성한다. 시간과 공간은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씨줄과 날줄처럼 상호 보완하면서 결합하여 하나의 환경을 이룬다. 이러한 환경은 인물의 행동을 결정하고 인물들의 관계를 결정한다. 영웅소설, 장편소설 등 대부분의 고소설이 중국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반하여 판소리계 소설들은 조선의 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삶의 장을 전제하지 않고서 공간은 무의미한 진공상태에 불과하다. 들뢰즈식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에서 문화공간의 경계와 이행의 자질을 통해 명확히 증명된다. 문화 공간에 대한 이해는 그 자체로서 다양한 문화적 국면에 작용하는 텍스트를 통해 표현될 수밖에 없다. 삶의 체험을 곡진하게 재현하고 기술하는 서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해와 표현의 변주 양태의 구심에서 ‘서사 공간’이 구성된다. 현존재가 기획하는 탈주의 공간은 경계와 이행의 공간에 관여하는 의미망의 구성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서사를 통해 창출된 공간³⁷⁾이다. 공간은 자명하게 주어진 선험적 실체가 아니라, 지각과 해석, 대상의 위상 구도에 따라 구성되는 역동적 구성체이다. 상호주관적 성원들의 소통을 통해 구성되는 문화공간이다. 따라서 인간과 문화의 연관성을 따질 때 인문학적 수행의 구심적 위상에 공간의 문화적 의미망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³⁸⁾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판소리계 소설인 <배비장전>이 실제 공간인 제주를 어떻게 활용해서 서사공간으로 그려내는지 인문학적 시선을 통해 해석해 보고자 한다.

1. 유배지와 변방으로서의 제주

유배란 보통 귀양이라고도 한다. 이는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귀향(歸鄉)에서 생겨난 말로 중죄인을 벌하는 즉결 추방에 해당하는 형벌이다. 탐라국이 고려에 복속되면서 고려는 원의 범을 따랐고, 고려 말에 이르러 명나라의 정치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명의 형률을 따르게 되면서 조선조에 와서 본격적으로 유배제도가 실시되었다. 원나라는 삼별초가 정벌된 이후 제주도를 원제국의 직할지로 삼아 도적과 죄인뿐만 아니라 왕족과 관리, 승려까지도 유배를 보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는 제주도가 유배지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유배제도는 지방보다는 중앙에서 왕명에 의해 주로 정치범에게 적용되었던 형벌이므로 정치적 상황이나 죄인의 신분 차 혹은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지가 결정되곤 하였다. 조선 중기에는 당쟁이 치열해지면서 변경이나 내륙지방보다는 섬으로의 유배

37) 장일구, 『경계와 이행의 서사공간』,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40-41쪽.

38) 위의 책, 21-22쪽.

가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를 비롯한 전라도 연해의 여러 섬들이 그 대상으로 이용되었다. 국토의 중앙에 서울이 위치해 있으니 사실 가장 멀어봐야 천 5백리에 불과했지만 곡행(曲行)이란 편법으로 구불구불 길을 돌아 삼천리를 채워 유배지로 가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야말로 유배의 상징적인 곳으로 활용되었고, 제주도에서도 가장 먼 남쪽 대정현이 주로 선택되었다. 추사 김정희가 머물던 대정은 제주도에서도 가장 바람이 드세고 척박한 지역이기 때문에 포구인 모슬포의 지명유래가 ‘못살(사람이 살지 못할)포’라고 해서 비하하는 의미가 담겼을 정도로 조선 정치권력 유지를 위해 배척해야 할 중죄인을 추방하고 격리시키기 위한 최적지였던 것이다.³⁹⁾

탐라국 멸망 이래 제주도의 정신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탐라의 독립을 갈망하는 현지 주민들의 분리주의적 성향은 유배 지식인의 비판적 의식과 묘한 조화를 보이면서 제주도 유배 문화의 독특한 특징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반골 기질이다. 반골기질은 제주도 내외에서 가해졌던 여러 수탈과 탄압 그리고 박해와 혼란이 연유된 저항 정신인 것이다. 유배지식인들의 반체제적인 정신을 이어받은 반골 정신은 수차례의 제주 민란이 모두 대정을 중심으로 봉기되었다. 이재수의 난을 다룬 현기영의 『변방에 우짖는 섬』에서 뿐만 아니라 제주4.3항쟁의 거물이었던 김달삼 역시 유배인의 후손이다. 이렇듯 원 제국에서 보낸 타민족의 왕족을 시작으로 1911년 마지막 유배객 남강 이승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배객들이 머물던 최대의 유배지였다.⁴⁰⁾

(사) 일기가 청명(淸明)하고 서풍(西風)이 솔솔 부오면 순류(順流)로 돛(帆)을 달아 일일(一日) 니(內)에도 가갇습고 중류(中流)에서 불형(不幸)하야 초풍(風)을 만나오면 안남면

39) 조선은 대명률(大明律)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형(死刑), 유형(流刑), 도형(徒刑), 장형(杖刑), 태형(苔刑) 등 다섯 가지 형벌을 실시하였다. 유배는 중죄를 범한 자에게 원격지로 보내어 종신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로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국사범들에 대한 사형완화법으로 주로 이용되었다. 유배지의 원근 거리는 죄의 경중에 따라 책정되었는데 2천리, 2천 5백리, 3천리 등 3등급으로 구분하여 죄인을 황폐한 불모의 벽지나 해변으로 보냈다.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 지성사, 1999, 17-21쪽 참조.

40) 조선시대에 제주도에 유배되었던 사람의 수는 200여명으로 추정되며, 80대 노인에서 어린 아이까지, 신분에서도 왕족과 외척 등의 양반 사대부, 왕실의 비호를 받던 승려나 환관, 도적과 변방의 국경을 넘다 잡힌 범인 등 다양한 계층이었다. 위의 책, 24-38쪽 참조.

턴(安南緬甸) 표박(漂泊)하야 구미(歐美)에 가기도 쉽스오며 만일 다시 불행(不幸)하면
쪽박 엮는 물도 먹고 고기 빈(魚腹)에 이사(移徙)도 하느이다 (4쪽)

위의 대목에서 보면 제주 뱃길은 일기가 좋으면 하루에도 갈 수 있지만 중간에
바람을 만나면 외국으로 표류할 수도 있고 더 불행하면 고기밥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양에서 온 사람들은 대개 육로를 이용하여 전라도까지 온 후 며칠 지체
하면서 날씨가 좋은 날을 잡아 배를 타고 제주도로 향하였던 것이다. 유배인 추
사 김정희는 1840년 9월 27일 완도를 출발하여 단 하루 만에 바다를 건너기도 하
였지만 보통은 2, 3일 정도 소요되었고 날씨에 따라서 1주일 이상 걸리기도 했다.
이증(李增, 1628-1686)은 1679년(숙종 5) 8월에 제주안핵검순무어사로 임명되어
10월 27일 한양을 떠나 12월 7일 제주의 화북포에 도착하였다고 『남사일록(南槎
日錄)』에 기록하였다. 따라서 보통 한양에서 제주까지는 빠르면 한 달 안에 늦
으면 두 달 가까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사) 누구셔 제주入비 타기가 어렵다 하든고 지금 니가 실디(實地) 시험(試驗)을 하여 보
니 유쾌(愉快)하기 혼량(限量)업다 그러나 내가 서울셔 듯즈 하니 꼬리 큰 고기가 잇서
바다에서 작희(作戲)가 무쌍(無雙)하다 하니 그 말이 정말이나 사공 이 말 듯고 황겁(慌
劫)하야 엇즈오디

(사) 소령기울 방축못(防築池)도 직힌 령신(靈神)이 잇습거든 이러흔 대희(大海)를 건너
시며 취중과담(醉中誇談) 마옵소서

그 말이 맞치지 못하야 머역섬(藁子島)를 겨우 지나 추즈도(楸子島)를 다다르니 동정서
망초강분(洞庭西望楚江分)에 슈진남턴불견운(水盡南天不見雲)을 창파만경(滄波萬頃)에 히
턴(海天)이 일식(一色)이오 노도경각(怒濤頃刻)에 풍우(風雨)가 더작(大作)하야 동서남북
(東西南北)이 묘망무제(渺茫無際)헌데 집치 갓흔 큰 물결이 돌바위를 광광 부쉬내며 바람
을 싸라 여귀셔도 우러렁 켤켤 저귀셔도 왈랑왈랑 키다리 썩거져 용출줄 마루찌 동강 고
물이 번듯 이물로 숙어지고 이물이 번듯 모물로 기우러져 덩병뒤쑹 조리질하니 무인절도
(無人絶島)에 난과선(難破船)이 가레 업다 (6-7쪽)

바다는 인간의 삶의 터전이자 생업의 현장이며 다른 지역으로 오가는 통로이

다. 제주로 향하면서 폭풍우를 만나 예기치 못한 표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배를 탈 수 있을지는 그날그날의 일기에 좌우된다. 이증도 뱃사람이 일찍 와서 바람이 순풍이니 배를 띄우겠다고 알리자 배 정박처로 향한다. 찰방이 먼저 도착하고 수령이하 여러 사람과 함께 도착하니 거문고와 노래로 작별을 하고 뱃사공이 썰물을 알리자 배위에 올랐다. 그는 군관(軍官), 별파진(別破陳), 화공(畵工), 서리(書吏), 반당(伴僞), 노자(奴子), 호남영리(湖南營吏), 강진공방(康津工房), 감상(監上), 통인(通引), 취수(吹手), 포수(砲手), 도척(刀尺), 문서직(文書直), 작직(作直) 등 동행하는 사람들의 직책과 숫자까지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 배는 포구를 떠나 완도의 섬들을 지나 백도에 정박하여 하룻밤 지낸다. 12월 7일 청산도, 진도가 보이고, 낮에 추자도를 지났는데 큰 바다인 물마루(水宗)인 듯 뱃사람 전부가 기도하는데도 검은 구름이 서쪽바다에서 일어나더니 눈을 날리는 바람이 어지러워지자 배속에 있는 사람 모두가 멀미하여 정신없이 쓰러졌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공은 오늘은 건너기가 쉬워 실로 이것은 드물게 만나는 것일 뿐이라고 하니 제주 큰 바다를 건너기가 어렵다는 것이 헛말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⁴¹⁾고 하였다. 따라서 위의 기록을 통해 <배비장전>에서 김정 목사일행이 한양에서부터 제주에 입도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유추할 수 있다.

이증은 ‘새벽에 백도(白島)를 떠나 큰 바다로 나오며 청조루(聽潮樓) 운으로 거듭하여’라는 시를 읊었다.

새벽 해 뜰 때 처음 떠나는 큰 바다 끝
구름 실은 돛배 망경루(望京樓)를 가리켜
서쪽으로 가면 장자(張子)가 배를 타고 갔던 길
동쪽으로 서생(徐生)이 약을 캐러 닿았던 물가(이하 생략)

여기서 장자(張子)는 장보고(張保臯, ?-846)를 지칭한다. 장보고는 신라 흥덕왕 때의 장군으로 한반도 서·남해의 해상권을 장악하여 신라와 당의 교역을 활발하게 하였다. 서생(徐生)은 서복(徐福)으로 진시황의 명을 받들고 바다 가운데 삼신

41) 이증 저, 김익수 역, 『남사일록』, 제주문화원, 2001, 36-39쪽.

산이 있다고 자칭하여 선인(仙人) 선약(仙藥)을 찾았으나 소득이 없어 동남녀(童男女) 3천을 데리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전설의 주인공이다. <배비장전>에서 배비장이 애랑의 꼬임에 빠져 알몸으로 궤 속에 갇히고 동헌마당까지 와서는 목사의 명에 의해 하인들의 배 지나가는 소리와 닷 감는 소리, 출렁이는 소리, 노 젓는 소리들이 들리자 “이 비가 무슨 빙고.....(중략).....불사약(不死藥) 구(求)하라고 삼신산(三神山) 차저들든 서방스(徐方士)의 목선(木船)인가”(87쪽)라고 하며 이런저런 생각들 속에 자연스럽게 제주와 관련된 서불전설까지 떠올렸다. 이증의 시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서불전설은 제주를 찾는 양반사대부들의 제주에 대한 특별한 이미지가 깃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증은 처음 탐라(耽羅) 화북성(禾北成)에 정박하여 본 것을 기록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구름 실은 돛대 어들 무렵 한라성(漢拏成)에 정박하니
천 리 푸른 바다 하루에 달려와
시커먼 돌 입을 짝 벌여 화난 짐승이 엮드려 앉은 듯
지방사투리 매우 어려워 원숭이들 떠드는 듯
색달리 머리채 땅아 문에서 맞는 여인
풀 옷 가죽 감치로 부역을 하는 백성들
왔던 길 고개 돌리니 하늘과 바다가 접하여
여기에 이른 남아의 장한 마음 놀라움기만.....⁴²⁾

그는 화북성에서 도착하여 제주의 풍토에 대해 깊은 인상 받았다. 돌길을 지나면서 검은 돌들이 사나운 짐승모양 같이 느껴진다거나 마을의 풍경과 호남(湖南) 말씨와 비슷한 제주사람들의 언어와 복장뿐만 아니라 다른 문헌을 인용하여 제주의 역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고 있다.

1577년 제주 목사로 있는 부친에게 대과에 급제하였다고 인사드리기 위해 제주를 찾은 임제(林悌, 1549-1587)은 『남명소승(南溟小乘)』의 기록에서 제주를 중

42) 위의 책, 40쪽.

원(中原)과 왜도(倭島) 사이에 있어 왜구가 중원을 왕래하는 데는 반드시 제주와 추자사이를 경유하므로 섬의 동서는 요충이다. 바닷가에 물이 얇은 곳은 칼과 창 같아 섬 주위가 모두 그러하다. 만약 익숙하게 잘 왕래하다가도 배를 잘 부리지 않으면 반드시 항해하는 배가 부서지게 된다고 하였다.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남사록(南槎錄)』에도 추자에서 제주에 이르는 화탈(火脫, 속칭 관탈섬)은 반쯤에 있는데, 서쪽으로 화탈의 동으로 동여서(東餘鼠; 전남 완도군 여서도) 일대에 이르기까지 물마루(水宗)라 하고 그 사이의 바다 빛은 깊고 푸르며, 깊고 멀리 이르는 파문은 매우 드넓으며 높은 물결은 보통이 아니어서 이국(異國)배가 표류하다가 이곳에 이르러 충분히 순풍을 만나지 못하면 이삼일을 물결의 소용돌이 속에서 빙빙 돌며 떠나지 못한다며, 때문에 왜구가 중원으로 가려고 하면 오직 바람을 잘 못 타면 길을 헤매게 되어 경유하지 못 한다⁴³⁾고 하였다.

<배비장전>의 김경 목사일행 역시 추자도에서 큰 물결이 일자 목사는 정신을 잃고 사공을 고공이라 부르고 사공도 겁을 낸다. 비장들은 탄식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목사는 사공더러 용왕께 제사를 지내도록 명하고 드디어 고사를 지낸다. 무사히 제주성에 도착하길 빌며 바다 용신에게 고사를 지내고 드디어 순풍 따라 제주성에 도착했다. 신구서림본에는 어느 포구로 해서 제주성에 도착했는지 정확한 명칭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삼불본에서는 “환풍정 배를 내려 화북진 좌기 하고”라고 해서 포구이름까지 명시하고 있다. 물론 신구서림본에서 신관(新官) 사또를 구경하기 위해 어부(漁夫)나 농부(農夫)들이 격양가를 부르는 등 축하하면서 모여 선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어사(御史) 이증 일행이 오후 7시에 겨우 화북 포구에 정박한 모습과 상통하다. 화북은 제주의 동쪽 10리에 있고 옛날부터 배가 머무는 곳이다. 숙종 4년(1678)에 윤창형이 목사였을 때 이곳에 진(鎭)을 설치하여 성첩(城堞) 둘레가 겨우 2리이고

43) 『남명소승(南溟小乘)』은 임제가 대과에 급제한 후, 당시 제주목사인 아버지 임진(林晉)을 만나고 4개월 동안 제주에 머무르면서 기록한 기행문이다. 이 책에는 1577년 11월 3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자신이 직접 본 제주의 경승(景勝)과 전해들은 유래(由來)는 물론 1500년대 제주 지역의 지리·기후·역사·풍속·언어·물산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남사록(南槎錄)』은 김상헌이 안무어사로 제주에 와서 임무를 수행하던 1601년 8월부터 6개월간을 기록한 글이다. 이 책에는 제주도의 인문·자연환경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위의 책, 44-45쪽 참조.

동서로 두개의 문이 있고 문 위에 모두 초루(譙樓)를 설치하고, 포구는 돌방축을 맞쌓아 선창(船倉) 및 배를 감추는 곳으로 삼았다. 어사는 12월 8일 밤에 눈보라가 크게 쳤지만 5리 거리의 광양에 도착하여 연무정에 앉아 옷을 고쳐 입고 향축을 모시고 제주객사로 들어갔다. 교생 50여명과 기생 30여명이 관덕정 앞길에 도착하여 맞아주었고 판관(判官) 및 정의현감 등이 도착하여 군례(軍禮)⁴⁴⁾를 했다고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중앙에서 보면 제주도는 먼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실제 거리가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더욱 멀게 느껴지는 곳이었다. 현대에 와서 비행기로 약 한 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지만 과거에는 배로 장시간 가야 했으므로 인지상의 거리 역시 멀었던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에는 일찍부터 제주가 나타난다. 그것은 일찍부터 사람이 거주하였고, 오랜 옛날부터 탐라국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름대로 문화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고려 숙종 10년(1105)에 고려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한반도에 부속된 하나의 지역이 되었다. 조선조에는 9대 간선도로 중의 제7도로가 해남을 거쳐 제주도로 연결되는 등 중요 지역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중국에서 발행된 세계 지도는 초기의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변방에 속하는 나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세계의 중심에 중국이 있어 중국 중심의 세계 지도가 보편적이었다. 육로로 중국과의 연계가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중국을 찾아 온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이 선교사들이었고, 이들로부터 다른 세계에 대한 지식들이 중국으로 전해졌다. 중국에 선교사로 왔던 마테오리치가 중국에서 1602년에 제작한 <坤與萬國全圖(곤여만국전도)>라는 지도에 제주라는 지명도 적어놓았으며 과거 탐라국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반도가 그려져 조선(朝鮮)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간단한 우리나라의 역사가 기술되어 있으며 제주도는 옛 탐라국이었음을 알려주기 위해 ‘고탐라(古耽羅)’라 하였고 ‘제주(濟州)’라고 다시 기록하였다.⁴⁵⁾

『삼국유사』 「탐상 제4」⁴⁶⁾에는 선덕여왕이 황룡사 9층탑을 세우게 된 목적에

44) 이증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41쪽.

45) 이혜은, 「세계 지도에 나타난 조선과 제주」, 국립제주박물관 편, 『항해와 표류의 역사』, 솔, 2003, 231쪽, 342-344쪽 참조.

46) 김원중 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316-317쪽.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 여자가 임금이 되니 비록 도는 있으나 위엄이 없어 구한 이 침략하자 대궐 남쪽 황룡사에 9층탑을 세워 불력으로 이웃한 적들의 침략에 대응했던 것이다. 1층은 일본, 2층은 중화(中華), 3층은 오월(吳越), 4층은 탁라(婁羅)라고 하여 지금의 제주가 당시 신라를 위협하였던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 백제 문주왕(文周王) 2년(476) 탐라국(耽羅國)에서 토산물을 바치자 왕이 기뻐하여 사자(使者)에게 은술(恩率)의 벼슬을 내려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사』 지리지에, 1105년(숙종 10) 탁라를 탐라군(耽羅郡)으로 고쳤다가 1295년(충렬왕 21)에 다시 제주(濟州)로 고쳐 목사(牧使)와 판관(判官)을 두었다고 했다. 탐모라(耽牟羅), 탐몰라(耽沒羅), 섭모라(涉牟羅), 섭라(涉羅), 담라(澹羅), 둔라(屯羅), 모라(毛羅), 영주(瀛洲) 등의 명칭도 함께 쓰였다. 중국의 『사기(史記)』 하본기(夏本紀)에는 도이훼복(島夷卉服)이라고 해서 ‘옷을 입은 섬 오랑캐’라고 했다. 여기서 탁(婁)자를 ‘풀 앞’으로 보고, 라(羅)자를 ‘나라’로 해서 보면, 탁라는 ‘풀로 짠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된다. 고려 대장경 법주기(法住記)에는 탐몰라주(耽沒羅洲)가 범어(梵語)에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주(瀛洲)라는 명칭은 중국의 신선설(神仙說)에서 나온 이름으로 봉래산(蓬萊山)·방장산(方丈山)·영주산(瀛洲山)을 삼신산(三神山)이라 부르면서 금강산을 봉래산, 지리산을 방장산, 한라산을 영주산이라 하였다.⁴⁷⁾

2. 토박이 인물들의 역할과 생활상

소설에서 인물은 작가의식과 당대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판소리계 소설에서 인물형상화의 문제는 독자들과의 가치관과 교류하면서 시대를 초월하여 역동적인 존재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작품의 예술성과 인간관, 시대인식, 세계관까지도 연관되어 있다. 텍스트를 통해 당대의 민중들의 삶과 의식을 어떻게 인물들에 반영시켰는가를 분석해 보는 일은 인물형상화와 더불어 작품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47) 김봉옥, 『제주통사』, 재관, 제주발전연구원, 2013, 27-28쪽.

이번 논문에서는 <배비장전>의 인물 중 제주 토박이들의 삶을 통해 인물 형상화의 문제를 역사적 현실성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배비장전>에는 여러 계층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선 김경 목사인 양반계층, 정비장과 배비장은 지방하급 관리인 중인계층, 그리고 기생 애랑과 관노인 방자 등의 천민계층, 이외에도 사공과 해녀와 같은 서민 등 다양한 계층이 등장한다. 이는 조선후기 신분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게오르그 루카치는 『소설의 이론』을 통해 서사문학에서 개인은 즉 소설의 주인공은 외부 세계에 대한 낯센에서 생겨난다고 하였다. 서사시는 자체적으로 완결된 삶의 총체성을 형상화하고, 소설은 숨겨진 삶의 총체성을 형상화를 통해 드러내고 구축하려고 한다. 역사적 상황이 안고 있는 모든 균열과 심연은 형상화에 포함되어 있으며, 구성 수단들을 통해 은폐될 수 없다. 형식을 규정하는 소설의 근본 의향은 소설 주인공들의 심리로서 객관화된다. 서사시의 주인공은 엄격히 말해 한 개인이 아니다. 서사시의 대상은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운명이다. 공동체는 유기적이고 자체 내에 의미가 충만한 구체적인 총체성이다. 그래서 서사시에서 모험들은 항상 결합되어 있지 않고 결코 엄격하게 완결되어 있지 않다. 각각의 모험은 내적으로 무한히 충만한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생명체로서 자신과 같거나 유사한 생명체를 이웃으로 가지고 있다.⁴⁸⁾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특별히 주목을 끄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조적 역할뿐만 아니라 주인공만큼의 탁월함을 보여준다. 주인공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에 반해 이들에 대한 평가는 의외인 경우가 많다. 배비장의 허위성을 조롱하고 폭로하는 주체로서 방자와 애랑은 그런 면에서 하나의 문제적 개인상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평범한 민중의 삶에서 기대되는 가치와 욕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세가 해체되어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들에 대해 자신들의 풍부한 경험은 오히려 새로운 전망을 추구하게 된다. 이들은 모순된 사회의 현실에 대해 절망하

48) Georg Lukacs, 김경식 역,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7, 68-77쪽.

지 않고 현실 경험의 세계에서 각각 적극적이며 개성적인 태도로 대응해 나간다. 또한 비장들처럼 선·악이라는 이원론적 양분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관념적인 유교적 명분에 구애받지도 않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솔직함과 대담성을 발휘한다.

여기서 특히 방자의 역할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방자(房子)의 명칭과 유래는 고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도경』에 의하면 방자는 원래 사신이 머무는 사관(使館)에서 심부름하는 공노비를 말한다. 이들 공노비 중에 빠릿빠릿한 자를 골라서 방자로 삼았다. 이들은 절도가 있고 붓글씨도 잘 쓴다. 하지만 보수가 적고 생쌀과 채소를 탈 뿐이다. 중국사신이 올 때에는 무더위 철이라 음식이 썩어서 냄새가 지독한데 먹다 남은 것을 주면 아무렇지 않게 먹고, 남으면 집에 가져간다.⁴⁹⁾

(방) 다른 스정(侍童)이 아니오라 소인이 세 살에 아비를 여이고 늙은 어미에게 길거나 적빈무의(赤貧無依)하야 늙은 어미를 버려 먹일 길이 업스옵므로 열 살부터 방주 구실을 다니 오나 그 구실에서 무엇이 넉넉히 나옴닛가 한 달에 관가에서 주시는 것이라고는 돈 두(二)량(兩) 뿐이오니 자진 신부름에 신발잡이는 되옵닛가 먹기는 각방 나으리님네를 이 러케 모시고 잇스면 진지 더궁이나 으더셔 늙은 어미와 갓치 연명을 호고 살아가는 터이 오니 지금 나으리 분부가 어려워셔 그러흔 위험흔 편지를 가지고 갓다가 스불여의하야 난장박살에 모진 밍나 마져 병신이 되오면 첫지는 나으리 모시고 잇슬 슈 업습고 들지는 늙은 어미의 밥줄이 아조 끈어지겟스니 그 아니 억울호오릿가 사정이 이러호와 거헝치 못헝겟습니다 (61쪽)

노비는 양반들의 품위를 지키는 도구였다. 양반들이 아침에 일어나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세면은 물론 식사, 행차, 왕래, 귀가, 소일거리, 잠자리 깔기 등 노비들의 보살핌이 없으면 양반들은 꼼짝할 수가 없었다. 상전을 수행하여 가마

49) 房, 使館之給役者也, 每房, 自使副而下, 以官品高下, 而爲之多寡, 其服, 文羅頭巾, 紫衣, 角帶, 阜屨, 蓋擇善供應者爲之, 觀其守法謹甚, 又善筆札, 高麗俸祿, 至薄, 唯給生米, 蔬茹而已, 常時, 亦罕食肉, 每人使至, 正當大暑, 飲食臭惡, 必推其餘與之, 飲啗自如, 而又以其餘, 歸遺于家, 至禮畢出館, 泣數行下, 大抵麗人之於中國, 其情加厚, 故雖房子, 亦懷惓惓焉, 『宣和奉使高麗圖經』卷第二十一. 안길정, 『관아이야기』 둘째 권, 사계절, 2000, 186쪽.

를 메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편지를 전하거나 여러 가지 잔심부름을 도맡아했다. 관리들의 위엄과 품위를 지켜주던 노비는 ‘걸어 다니는 재산’으로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양인이 노비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 국가의 세수(稅收)를 안정시킬 방편으로 각각의 신분을 고정시키려고 하였다. 노비에게는 국가의 부담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양인이 노비로 바뀐다는 것은 세원(稅源)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토지와 노비를 차지한 귀족을 억누름으로써 왕권을 강화⁵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문제적 인간으로서 방자는 시골 관청에 예속되어 있던 종의 한 명칭으로 특수하면서도 일반적인 성격을 띤다. 하층빈민 또는 천민의 한 생활양식을 드러내는 방자형 인물은 가면극에서 등장하는 말뚝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판소리계 소설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거의 일치하는 말뚝이가 가면극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문화적 기반을 같이하는 판소리와 가면극의 상관관계와도 연관이 있다. 구경꾼 앞에서 구연되고 공연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변모되는 재창조된 인물유형으로 볼 수 있다. 판소리계 소설에서 주인공의 상대역으로 등장하지만 작품 구조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동적 인물이다. 형식적으로는 주인공에게 예속되어 있으나 기능상으로는 주인공을 회화하고 풍자하며 주인공의 성격을 변용시키고 결정해 주는 인물이다. 또한 희극미를 창출하는 주체적 인물⁵¹⁾이다.

배비장과 봉건적 예속관계에 있으면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규범적 당위를 벗어나 상전인 배비장과 내기를 하고 결국 조롱하고 욕보인다. 방자가 처음부터 배비장의 꾀를 계획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인간은 욕망에 의해서 세속화되는 존재로 파악하는 판소리형 인간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구대정남을 자처하는 배비장에게 명분과 관념에 사로잡힌 세속적 인간의 보편성에 입각해서 반봉건적인 사고(思考)와 행동을 주도적으로 실천하였던 것이다. ‘인간다운

50) 17세기에 이르러 각지에서 장시가 서면서 왕래가 활발해지고 교통의 거점이 발달하고 물산의 중심이 도회로 모이면서 수공업과 장사가 큰 돈줄이 되었다. 이에 부의 확산은 노비제도에 대한 시비가 생겨나고 신분제 사회를 흔들었다. 유형원(1622-1674)은 『반계수록』을 통해 노비 세습을 폐하고 자유로운 계약에 토대를 둔 고용제를 주장하였지만 양반들의 반발을 샀고 실현되지는 않았다. 각 관아에서는 신공이 제대로 견히지 않았고 도망한 노비를 찾아내 자신의 소유라고 노비의 팔이나 이마에 바늘과 먹물로 아무개 소유라는 경(黥)을 새기기도 하였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노비의 도망은 극에 달하고 급기야 왕실과 중앙관서에서 부리던 공노비들의 명부를 19세기 벽두에 불태우면서 자유를 얻은 공노비의 숫자만도 6만 6천명이었다, 위의 책, 141-143쪽, 182-183쪽 참조.

51) 권두환·서종문, 「방자형인물고」, 『한국소설 문학의 탐구』, 일조각, 1977, 7-8쪽.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의 정당한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라는 면에서 문제적 개인 상으로서의 모습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춘향전>의 방자는 이몽룡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이었다면 <배비장전>에서는 풍자의 주체자로서 사건발달의 주 모자 내지는 연출가가 된 셈이다. 먼저 내기를 걸면서 배비장의 위선을 유도했던 것이다. 배비장은 그러한 유도에 딱 걸려든 셈이다. 결국 공식적으로는 혜절의 주체로서 목사의 명이 내려졌지만 그 이면에는 방자의 계획이 이미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애랑이라는 공모자가 주연 역할을 하면서 배비장의 위선이 철저하게 발가벗겨졌던 것이다. 하지만 사건의 주도자임에도 뒷부분에 와서는 어디에서도 방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⁵²⁾ 내기의 결과로서 방자한테 돌아온 포상은 오리무중인 셈이다. 애초에 방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내기가 목사의 혜절지시로 확대되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면서 관기 애랑의 유혹과 방자를 포함한 관인들의 공모로 성공하게 되었다. 즉, 방자의 내기와 목사의 혜절의도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배비장은 철저히 패배감을 느꼈던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망신당하고 나서 관아를 떠나는 배비장이 제주도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관인들과 제주도민들의 입장이 얼마나 판이한가를 확인하게 된다.

소인이 십오 세(十五歲)부터 선중(船中)에 화장이 되어 흑산도(黑山島), 대마도(對馬島), 두부도(大阜島), 어청도(於靑島), 칠산(七山), 연평(延平), 팔미도(八尾島)를 슈상(水上)으로 무른 며주 밟듯 한 달(一月) 삼십 일(三十日)에 스물 아홉 번(二十九番)식은 단여스오 더 이러흔 광경(光景)은 처음 당흔는 일이오며 지식(知識)은 업스오나 문견(聞見)은 잇스오니 풍낭(風浪)이 이러흐고야 디부왕(地府王)이 친삼촌(親三寸) 스희룡왕(四海龍王)이 성부모(生父母)이라도 구(救)히기는 짝 무가내하(無可奈何)이오니 이 일을 장차 웃지호오 (7-8쪽)

이 대목으로 보면 사공이 15세부터 배를 타기 시작해서 흑산도, 대마도 등 물 위에서 한 달 삼십일에 스물아홉번씩은 다녔지만 풍랑이 이렇게 센 것은 처음이고 목숨 구하기는 쉽지 않으니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자 비

52) 권순공, 「배비장전의 풍자와 제주도」, 『반교어문연구』 제14집, 반교어문학회, 2002, 54-56쪽.

장들이 울면서 탄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주에 가는 목적을 드러내면서 수중고혼이 될까 두려워하자 목사는 사공더러 용왕에게 제를 지내라고 명하였다. 용왕에 대한 고사도 사공이 지낸다. 그렇게 평생을 위험천만한 바다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바다를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는 바다의 용신을 불러내 순풍으로 무사히 제주성에 도착하길 빌었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18년(1794) 3월 2일조⁵³⁾에 한평생 배 부리는 일에 익숙한 섬 안의 사공이나 격군(格軍)이라도 미역을 옮겨갈 때 배가 침몰되는 경우가 많으며 바닷가 각 고을에서 겨우 연해안의 가까운 바다 정도나 왕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바다의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배가 침몰되지 않는 경우는 다행히 임금의 복에 힘입은 것이라고 하였다. 전에는 매번 침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만큼 바다 위에서 하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배비장이 애랑과 방자의 꺾에 말려들어 알몸으로 궤 속에 갇힌 신세가 되었을 때 사령들이 사공인척 하고 배비장을 농락하였다. 마치 궤 속에 갇힌 채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다니는 것으로 착각한 배비장은 바다의 잔 물이 눈을 멀게 한다는 사공의 거짓말에 속아 눈을 감고 알몸으로 궤를 빠져나오면서 크게 망신을 당했던 것이다.

망신당한 배비장이 도망치듯 제주를 빠져나가기 위해 사공을 찾았지만 막상 반말로 묻자 그도 반말로 대거리를 했다. 양반체면에 배비장은 한숨이 나왔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여 먼저 공대를 한다. 그런 배비장이 어렵게 해남 가는 여자가 전세 낸 배에 올라탔다가 기침소리로 또 한 번 망신을 당하고 만다. 공짜로 남의 배를 얻어 탔으니 선가(船價)의 반을 내라는 요구에 돈이 없다고 하자 사공은 배비장을 어느 집에다가 가둬버렸다.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사공이 크게 눈에 떠지는 않는다. 하지만 곳곳에서 배비장의 신세를 초라하게 만드는 보조자로서 사공은 제몫을 톡톡히 해냈던 것이다.

별안간 물속으로 거무슈름썸 물건 하나히 털병털병 나오는지라

비비장 꺾작 놀느 에그머니 저것이 무엇이야 증싱도 아니요 고기도 아니요 아마 물귀신

53) 故島中篙手沙格之一生慣手者，移藿之時，猶多致敗。況沿邊各邑之僅能沿海岸內洋而往來者，忽入於大洋盪瀾之中 其能不敗者，幸賴王靈，而從前每多致敗。

이 날 잡으러 나오나보다 하고 도망을 하라다가 다시 생각하니 니가 이 모양이 되어 도망하여 살면 무엇하고 차라리 저 귀신에게 잡혀 죽는 것이 옳다 하고 니를 밧삭 갈며 정신을 차려 자세 보니 귀신은 아니요 물속에 드러가 전복 따가지고 나오는 계집이라 머리는 다방나룻 비슷 몸은 물새가 올라 솟검정 한가지 모양인데 발거버슨 몸에 계집 혼 폭만 말 직갈 먹이듯 잔뜩 차고 나오는 체격은 처음 보는 스름은 뉘라 할 것 업시 괴급질식을 하겠더라 (93-94쪽)

배비장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조부진에 다다라서 사공을 찾아보니 사공은 없고 배만 있는데 한번 실수로 부끄러움을 못 이기고 홀로 떠나고 보니 작별은 고사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물속에서 거무스름한 물건 하나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짐승인지 고기인지 물귀신인지 당황한다. 물속에 들어가 전복을 따가지고 오는 계집인데 머리는 다방나룻 비슷하고 몸은 물새가 올라 솟검정인데 발거벗은 몸으로 말 재갈 먹이듯 잔뜩 차고 나오는 모습을 처음 보고 질겁했던 것이다.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없어 다시 물었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다.

(비) 이 스름 량반이 말을 무르면 엇지하야 대답이 업노

(계집) 무슨 말이람나 량반 량반 무슨 량반이야 형금이 조와야 량반이지 량반이면 남녀 유별(男女有別) 례의염치(禮義廉恥)도 모르고 남의 녀인(女人)네 발가벗고 일하는 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며 싸락이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자 왓습나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 춤 듯기 실쿤 어서 가소 오리지 아니하야 우리 집 남정네가 물속에서 전복 따가지고 나오게 되면 큰 탈이 날 거시니 어서 밧비 가시라구 요식이 세력이 빨니줄 갓흔 빅비장도 계속 귀신이 될 변흔 일 못드릿습나(95쪽)

사공을 만났을 때와 같은 상황에 배비장은 실소한다. 양반이란 권위를 내세워 반말로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양반에 대한 비난과 남녀유별한테 예의염치 없이 여인네 발가벗고 일하는데 와서 묻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꼬집고 있다. 그리고 양반이든 상민이든 초면에 반말하는 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일침을 놓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정네가 물속에서 전복을 따가지고 나오게 되면 큰

탈이 나니 어서 가라며 하는 말끝에 자신의 치욕인 궤 속 귀신이 될 뻔했던 일까지 걸고 넘어졌던 것이다.

우리나라 문헌상 가장 오래된 해녀(海女)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문자왕 13년(503) 4월조⁵⁴⁾에 의하면 “사신을 위(魏)에 보내어 조공하니.....다만 황금은 부여에서 나고 옥은 섭라(涉羅)의 소산인데, 부여는 물길에게 쫓기고, 섭라는 백제에게 병합 되었으니.....”라고 쓰여 있다. 여기에서 “가옥은 섭라의 소산인데(珂則涉羅所產)”라는 기록에서 가(珂)는 보석을 말하며, 이는 제주의 진주 혹은 패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주에서 이런 보석을 채취한다는 것은 곧 해녀들의 활동을 말한다. ‘해녀’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이름이고, 원래는 ‘잠녀(潛女)’ 또는 ‘잠수(潛嫂)’라고 부르며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잠수한다’, ‘물질한다’, ‘물에 든다’ 등으로 말한다. 잠녀들의 실상이나 작업 현황에 대한 문헌으로 이건(李健, 1614-1662)이 쓴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⁵⁵⁾가 있다. 미역을 캐는 여자를 ‘잠녀(潛女)’라고 하며 이들은 2월에서 5월까지 바다에서 미역을 캐 때 벌거벗은 몸[裸體操業]으로 낚을 들고 바다 밑에 있는 미역을 캐거나 전복을 잡아서 의식주를 해결했는데 남녀가 뒤섞여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제주는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육지로 도망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군역에 동원할 인구가 부족해지자 1629년(인조 7) 제주 사람들에게 출륙금지령이 내려졌지만 1823년 해제되었다. 이형상(李衡祥, 1653-1733) 목사는 『남환박물(南宦博物)』에서 1704년(숙종 30)에는 “여자의 부역이 무겁다. 관에는 잠녀안(潛女安)이 있으며, 진상하는 미역과 전복은 모두 여기서 책임진다. 몸뚱이와 불기짝이 드러난 것이어서 참담하여 차마 볼 수 없다.”고 하였다.⁵⁶⁾ 1702년 기록인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물질하는 그림에는 물소중이로 보

54) 十三年, 夏四月, 遣使入魏朝貢.... 小國係誠天極, 累葉純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扶餘, 珂則涉羅所產. 扶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二品所以不登王府, 實兩賊是爲.

55) 이건은 선조의 손자로 아버지 인성군이 1628년(인조 6) 대역처분을 받아 형제들과 함께 15세 나이로 제주도에 유배되어 10년간 귀양살이를 하면서 제주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7, 창비, 2012, 141-142쪽 참조.

56) 『남환박물』은 이형상 목사가 1702년 3월에 부임했다가 이듬해 6월에 물러나고 나서 제주도의 자연·풍속·인물·토산·고적·관방 등을 기록한 인문지리서이다. 이 책은 1704년에 경상북도 영천 호연정(浩然亭)에서 완성하였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여성사 I』,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009, 662쪽 참조.

이는 옷을 입고 있어 당시에든 몸통을 가린 옷을 입고 물질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소중이는 제주여성용 속옷으로 무명이나 삼베로 만들었으며 활동하기에 편리했다. 해녀가 물질할 때 입는 옷을 물옷이라고 하는데 물옷에는 물소중이, 물적삼, 물수건 등이 있다. 물소중이는 부지런하고 검소한 제주인의 지혜가 담긴 물옷이다. 처음에는 흰색을 사용했지만 해초를 채취하거나 생리 중일 때 얼룩이 젖어서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검정물감을 들여서 입는 걸 선호했다. 1950년대부터 직물공장이 생겨 울이 성글고 짠물에 약한 무명 대신 광목으로 물수건과 물적삼까지 만들어 입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이후부터는 고무옷을 입게 되어 추위를 덜 타고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었다.⁵⁷⁾

위에서 “우리 집 남정네가 전복을 따가지고 나오면”이라고 하여 남성도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남사록』에 보면 포작[包作; 鰕作]의 무리는 홀아비로 살다가 늙어죽는 사람이 많은데 그 까닭은 진상하는 전복[鰕魚]의 수량이 매우 많고 관리들이 공적인 것을 빙자하여 사적인 이득을 꾀하는 것이 몇 곱이나 되기 때문에 포작의 무리가 그 일을 건디지 못하고 제 고장을 버리고 달아나거나 바다에 익사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물의 과다 징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포작은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여 생활하는 사람으로 어호(漁戶) 또는 어인(漁人)의 의미로 바다에 들어가 자맥질하며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남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대체로 ‘죤녀’와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형상의 『병와집(瓶窩集)』 「제주민막장(濟州民瘼狀)」에 지아비는 포작으로 선원[船格] 노릇을 겸하고, 지어미는 ‘죤녀’로서 1년 안에 미역과 전복을 마련하여 바쳐야 하니 그 힘든 일이 목자에 10배⁵⁸⁾는 된다고 하였다. 그만큼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해녀로서는 처음 보는 양반이 예의염치도 없이 별거벗은 여자에게 말거는 것 자체가 짜라기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이나 자는 한심스런 모습으로 비쳐졌던 것이다.

사실 조선 전기에는 벼슬을 하지 않으면 양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따라서

57) 『제주여성문화』, 제주도, 2001, 185-186쪽.

58) 「제주민막장(濟州民瘼狀)」은 제주도민의 부세나 공물부담의 애환을 소개하고 이정책(釐整策)을 올린 글로서, 제주도의 인구 또는 종류별 공물액·전지(田地)와 농업사정·목장관리·해산물 공급 등의 실상을 상세하게 적고 해결방안까지 제시했다. 『제주여성사 I』, 앞의 책, 49-53쪽 참조.

양반은 조상의 혈통에 따르는 세습적 신분이기보다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 지위를 얻은 후천적 계급이었다. 하지만 후기에 이르러 과거가 아닌 문벌에 힘입어 벼슬에 나아가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공정성이 무너지고, 부정부패와 매관매직에 의해 특권을 누리는 경우가 많았다. 양반은 세습 문벌을 형성하고 중인이나 상놈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않았으며, 군역을 면제받는 특권계급이 되었다. 이들은 수시로 열리는 사회나 향음례를 통해 풍류와 지위를 누리면서 여느 계급과는 다른 생활양식을 보였던 것이다.⁵⁹⁾

이상과 같이 방자와 사공, 해녀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민의 집단적 풍자는 평소 특권을 누리는 양반에 대한 비웃음이다. 이러한 비웃음은 해학을 넘어 냉소가 깃든 표현으로 계급적인 대립으로까지 이어진다. 양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정이나 위선을 풍자하는 단계를 넘어선 양반사회 혹은 제주 관아의 관인들에 대한 집단적 풍자로서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심리가 집단적 공분(公憤)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방자나 사공, 해녀야말로 19세기 조선의 중앙집권체제에서 중앙관리의 탐학과 수탈로 힘든 생활을 하는 제주민중의 저항의지가 담긴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3. 관광지 제주의 지명 및 특산물

<배비장전> 서두에서 소개되는 제주의 위치와 역사적 명칭은 제주의 관광지로서의 요건을 드러낸다. 거기에 애랑과 김경 목사, 배비장 등 인물에 대한 설명 역시 제주의 관광특성을 강조한 인상을 준다. 애랑이 한라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나 색태가 월서시 같고 용광은 양태진이요 재질은 최앵앵 등 풍류남자가 한번 보면 반하지 않을 자가 없을 정도로 미모가 뛰어나다. 김경 목사 역시 훌륭한 능력을 지닌 양반이다. 배선달은 그러한 양반의 친분으로 예방소임을 얻어 가게 되었는데, 사실은 팔도강산 명승지를 다 다녔지만 섬인 제주는 구경할 기회가 없던 차에 마침 가게 되었으니 그로서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이처럼 배비장은 단순히 예

59) 안길정, 『관아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생활사』, 상, 사계절, 2000, 184-186쪽.

방으로서만 도입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실인(室人)인 그의 부인은 제주가 물색이 변화해 자고로 색향(色鄕)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기에 주색에 빠져 돌아오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배비장은 대장부 뜻을 한번 세운 바 여자 때문에 신세를 망치지는 않겠다며 굳게 맹세까지 하였던 것이다.

전령뢰(傳令牌) 빗기 차고 영주(瀛州)로 향히 오니 썩는 맛춤 방춘(芳春)이라 리화도화(梨花桃花) hing화방초(杏花芳草) 양류청청(楊柳青青) 록슈잔잔(綠水潺潺) 만산화기(滿山花開) 경 조흔디 사면(四面)을 둘러보며 산호금편권만성(珊瑚金鞭勸馬聲)에 가는 길을 지축 흥야 연로각읍(連路各邑) 중화(中火) 숙소 강진(康津) 히남(海南) 언듯 지나 히남(海南) 관두(關頭) 다다르니 신연하인(新延下人) 등디(等待)로다 (3-4쪽)

배비장이 영주(瀛州)로 향할 때는 마침 꽃피는 봄철이라 관광하기 딱 좋은 계절이다. 한양에서부터 해남으로 내려오는 길목마다 숙소를 마련해서 꽃구경하며 떠나는 여정은 관광객으로서 최상의 조건임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제주로 가는 경래관(京來官)의 동선을 짐작할 수 있는 『남사일록』을 보면 배비장 일행 역시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행차를 따라 고을마다 융숭한 대접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증은 숙종 5년(1679) 9월 16일 제주안핵검순무어사로 임명되어 10월 27일 한양을 떠나 12월 7일 제주의 화북포에 도착하기까지 친한 벗들과 헤어지며 이별시를 주고받고 가는 길목에 잠자리를 하는 객사마다 구구절절 사연들을 시와 문장으로 남겼다. 남대문에서 평택을 지나 아산 아주성, 백마진, 풍패관, 태인현, 정읍현, 광주목 금성관 등에 머물렀다가 11월 25일에 강진에 도착해서 금릉 객사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해남에 있는 제주 배를 점검하여 12월 5일 백련사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배를 탔다.



<그림 1> 이증의 제주 입도 동선

따라서 이증의 제주 입도 동선을 지도를 통해 따라가 보면 <배비장전>의 김경 목사일행의 입도 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 김경은 제주목사로 제수되면서 서강에 사는 배선달에게 예방소임을 맡기고 한양에서 출발했다. 영주(瀛州) 곧, 제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해남포구까지 가는 육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다만 “연로각읍(連路各邑) 중화(中火) 숙소 강진(康津) 희남(海南) 언 듯 지나 희남(海南) 관두(關頭) 다다르니”라고 하여 해남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는 당시 교통 사정을 감안하면 대체로 이증의 경로와 일치할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이중이 제주 배를 타는 날은 12월 6일이었다. <배비장전>의 김정 목사 도입(到任)행차의 동선도 거의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사 도입행차의 배 치장이 또한 불거리로 등장한다. 배의 난간 위에 화려한 병풍을 겹겹이 둘러치고 통인 이하 여러 비장들이 이편저편에 갈라서서 엄숙하게 고사지내고 도사공과 역군의 움직임에 따라 망망대해를 향해 뜻을 달아 올리니 두둥실 떠가면서 “먹고 놀자 비장들도 술을 주며 곡강춘주인인취(曲江春酒人人醉)라”고 하며 취흥이 돌아 풍월 한수 지으며 노는 모습은 뱃놀이하는 유람객의 그것과 흡사하다.

하지만 중간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던 목사 일행이 고사를 지내고 나서 순풍 따라 제주성에 도착해서 보니 이번에는 신관사또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모여 섰던 것이다.

어언간 순풍 따라 제주성하(濟州城下) 다다르니 지세(地勢)도 조커니와 풍경도 아름답고 초강(楚江)에 어부(漁夫)들은 고기 낚거 회를 치고 던간(田間)에 농부(農夫)들은 술 부어 권(勸)하면서 격양가(擊壤歌) 한소리로 성은(聖恩)을 축(祝)위하야 연호만세(連呼萬歲)한 연후(然後)에 신관(新官) 스도(使道) 구경코져 전후(前後)로 모혀 섰다

목스 비에 내려 사면(四面)을 살펴보니 관산잔록(亂山殘綠)은 화병(畫屏)을 둘러는 듯 주륜취각(朱輪翠閣)은 반공(半空)에 소삿는 듯 제일명승(第一名勝) 망월루(望月樓)에 지즈가인 상더하야 연연 이별락루(離別落淚)한다 (11-12쪽)

어언간 제주성을 다달으니 지세도 좋거니와 풍경이야 더욱 좋다. 환풍정(喚風亭) 배를 내려 화북진(禾北鎭) 좌기(坐起)하고 사면을 둘러보니 제주(濟州)가 십팔경(十八景)이라. 제일경은 망월루(望月樓)였다. (김삼불본, 21-24쪽)

제주성에 관한 기록은 백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588년(백제 위덕왕 35) 탐라국에 중국 수나라 전함 1천이 표도하여 백제를 경유한 일이 있었는데 수서(隋書)에는 탐라국에 15개의 성(城)이 있었다고 하였다. 1270년(원종 11)에는 삼별초의 별장(別將) 이문경(李文京)이 제주에 상륙하여, 읍 성문을 통과하려고 하였지만 성주 고인단(高仁坦)이 성을 굳게 지키고 있어서 성을 우회하여 동제원(東濟院)에서 관군과 대적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조선 태종 11년(1411)에 성을 보수

하였고, 그 후에도 성 밖에 있는 가락천(嘉樂川)을 성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수구(水口)에 무지개다리를 만드는 등 왜란을 겪으면서 더욱더 크게 고쳐 쌓았다.⁶⁰⁾ 이렇게 오랜 역사를 지닌 제주성에 부임하는 목사의 행차는 곧 제주도민의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으므로 여기에서도 관광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목사는 배에서 내려 사면을 둘러보니 역시 그림 같은 병풍이 둘러쳐져 있는 자연경관에 심취하면서 하늘 높이 솟은 제일명승 망월루의 볼거리에 주목한다. 망월루는 화북에 있는 누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화북포구의 환풍정에서 배를 내려 화북진에서 첫 공무를 이행하면서 사방을 둘러보고 역시 제주의 경치가 뛰어나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망월루에서 구관사또가 신임하던 정무장이라는 비장이 수청 기생과 이별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여기서 망월루(望月樓)는 기록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 화북진에 대한 설명에서 망양정(望洋亭)이 북성 위에 있다고 했고, 김정 목사가 축조한 화북포구의 방파제 위에는 영송정(迎送亭)을 건립하여 공사선(公私船)의 점검소(點檢所)로 삼았다는 기록도 있다. 따라서 망월루는 망양정이거나 영송정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⁶¹⁾

환풍정(喚風亭)은 객사로서 숙종 때에 목사 남지훈이 세웠다는 기록이 『탐라지초본』에 나온다. 화북진(禾北鎭)에 있는 화북포(禾北浦)는 북쪽에서 벼를 실어 오는 포구라는 의미로 ‘베린넛개’ 또는 ‘별도포’라고 불렸다. 제주에서 10리 거리에 있는 이 포구에는 옛날에는 후풍관(候風館)이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졌다. 1678년(숙종 4)에 목사 윤창형(尹昌亨)이 처음으로 방호소를 설치했고 문 위에는 초루(譙樓)가 있다.⁶²⁾ 화북포는 조천포와 더불어 조선시대 육지와 연결시켜주는 제주의 2대 포구 중 하나로 유배객과 벼슬아치들이 이 포구로 드나들었다. 화북포구는 고려 삼별초 항쟁 때부터 주목을 받던 포구이다. 고려 정부가 영암 부사 김수와 장수 고여림을 제주에 파견하여 삼별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을 쳤던 곳이

60) 제주 목사는 제주도 전체의 병력을 거느리는데, 제주성의 병력은 규장각에 있는 『제주병제(濟州兵制)』 「봉대총록(烽臺摠錄)」에 의하면, 별장(別將) 2인, 천총(千總) 3인, 파총(把總) 6인, 초관(哨官) 44인, 군(軍) 4,564명, 마병(馬兵) 1,420명으로 모두 6,039명이다. 김봉옥, 앞의 책, 123-125쪽 참조.

61) 김동윤,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 247쪽.

62) 이증 저·김익수 역, 앞의 책, 121쪽.

화북이다. 영조 13년(1737) 김정 목사가 화북 포구 확장 공사를 하였다.⁶³⁾

동문(東門) 안 도로상(大路上)에 쌍쌍이 느러세고 청도(淸道) 한 쌍 순시(巡視) 두 쌍 오식기치(五色旗幟) 찬란(燦爛)하고 전비(前陪) 비장(裨將) 대단철낙(大緞天) 순은장식(純銀粧飾) 쇄금(灑金)하야 가진 궁전(弓箭) 빗기 차고 저모전립(豬毛戰笠) 밀화 피영(佩纓) 은입스 멩호슈(猛虎鬚) 보기 조케 꼬즈 쓰고 공주(公州) 면쥬(綿紬) 사마치를 가든하게 찢쳐 입고 은안백마(銀鞍白馬) 호피(虎皮) 도듬 덩그러케 놓히 안저 운종룡(雲從龍) 풍종호(風從虎)로 서실 잇게 나아가니 승피백운선인(乘彼白雲仙人)들이 이에서 더홀소나 영무정 바라보고 산지내 얼푼 건너 북수각 지내노코 칠성골 너른 길로 관덕정(觀德亭) 도라드러 전알전에 사비하고 만경루에 도입홀 제 일읍(一邑)의 남녀로소(男女老少) 구름 갖치 구경혼다 (33쪽)

위의 대목은 신구관이 교체하면서 행하는 화려한 목사부임행차를 묘사한 부분이다. 동선을 따라가 보면 제주목관아 주변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제주성의 동문 안 도로상에 들어서며 영무정(演武亭)을 바라보고 산지내(산지천)을 건너고 북수각을 지나서 칠성골의 넓은 길로 관덕정을 돌아들어가서 전알전에 들러 사배하고 드디어 만경루에 도착했던 것이다. 여기서 화북포, 화북진, 산지천, 칠성골 등은 실제 제주에 있는 지명이고, 환풍정, 영무정, 북수각, 동문, 만경루(망경루), 관덕정도 모두 제주목 관아와 연관된 건축물의 이름이다. 따라서 소설 속의 공간이 실제 공간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무정은 무사의 습사장(習射場)이었던 연무정(演武亭)으로 추정되며, 연무정은 남문 밖 광양에 있었던 것을 건입동 동쪽으로 옮겼다. 영조 22년(1746)에 한억증 목사가 동문 밖에 점지하여 개건하였는데, 그 후 몇 차례 중수⁶⁴⁾하였다.

산지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이 건입동이고, 속칭으로 ‘산지’라고 한다. 산지내(산지천)는 산지천으로 명종 때 을묘왜변(1555년)으로 제주성 방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1565년 곽홀 목사가 동성을 동쪽 능선까지 쌓고 가락천과 산지천을 성안으로 끌어들이었는데, 비가 내리면 산지천이 범람하여 민가가 침수되는 일이 많았

63) 이영권,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135쪽.

64) 김동윤, 앞의 책. 252쪽.

다. 임진왜란을 겪은 후 선조 32년(1599) 성윤문 목사가 제주성을 크게 고치면서 남쪽 수구에는 겹 무지개다리를 놓고 그 위에 제이각(制夷閣)을 세워 남수각(南水閣)이라 하고, 북쪽 수구에는 홀 무지개다리를 놓고 그 위에 죽서루(竹西樓)를 건립하여 북수각(北水閣)⁶⁵⁾이라 하였다.

칠성골은 칠성(七星)을 배치하는 데 있어 첫 별을 배치하는 땅이며 칠성단이 있어서 칠성골이라 하였다. 동쪽에는 산지로 가는 목이 있고 서쪽으로 관덕정까지를 칠성골이라 했다. 칠성골에는 칠성도(七星圖)가 있었는데, 『탐라지』에 의하면 ‘본주의 읍성 안에 있는 석축의 윗머리로 고량부 삼신인이 처음으로 나와 일도·이도·삼도로 나누어 분점 할 때 북두칠성의 모양을 본떠 대를 세우고 근거지를 나눈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의 뱀(蛇神) 신화인 ‘칠성본풀이’에 보면 함덕리에서 칠성신인 뱀 일곱 마리가 ‘ㄱ으니ㄴ를’을 지나고, 제주 성 안에 들어와 칠성동에 사는 송재정 집안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칠성골이라 했다는 설도 있다. 여기서 ‘ㄱ으니ㄴ를’은 읍성 동문을 지나 건입동과 일도2동의 경계선을 따라 화북으로 가는 ‘동문한길’의 제일 높은 고개 마루를 말한다. 동문(東門)은 제주읍성 동문이 있던 곳으로 동문파출소 자리이다. 동문로터리 부근에서 동문으로 올라가는 한길을 ‘동문한길’이라고 하며 지금도 ‘동문로’라고 한다.⁶⁶⁾

관덕정은 홍화각(弘化閣)의 남쪽에 있는데 세종 때 신숙청(辛淑晴, 1447-1449) 목사가 세우고 성종 11년(1480)에 양찬(梁贊, 1478-1481) 목사가 중수했다. 서거정(徐居正)의 중수기를 보면 “고려 말에 기황후가 임시 목장을 설치한 이래 명대에 다시 우리나라로 예속되었는데 주가 바다 한가운데 있어 땅의 넓이가 5백리이며 거주민이 8, 9천호에 목마가 수만 필이다. 제주는 물산이 풍부함이 다른 군보다 갑절이며 주 또한 일본인과 서로 이웃하여 방어에 준비할 대책이 실로 크고도 어렵다. 관덕정은 주인(州人)이 활쏘기를 익히는 곳인데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져 예속들이 공부할 곳이 없으므로 다시 재료를 모으고 장인을 구하여 새로 지어가기를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완공되었다. 정(亭)이 유람이나 하려는 것이 아니고 본디 무(武)를 검열하려고 건설한 것이니 과녁만 쏠 것이 아니라 말에서 쏘고 익히고

65) 김봉옥, 앞의 책, 123-124쪽.

66) 문무병 조사, 「고유지명(2)」, 『제주문화』 제8호, 180-189쪽 참조.

전쟁하는 법을 익혀 무비(武備)하기 위함이다.”⁶⁷⁾고 하였다. ‘觀德’은 평소 마음을 바르게 하고 훌륭한 덕을 닦는다는 의미로 사자소이관성덕야(射者所以觀盛德也;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보는 것이다)에서 따온 이름이다. ‘觀德亭, 湖南第一亭, 耽羅形勝’ 등 현판과 편액이 걸려있는데 안평대군이 처음 썼던 현판은 불에 타 사라지고 지금은 선조 때 영의정을 지냈으며 이덕형의 장인이기도 한 아계 이산해(李山海) 또는 정조 때의 방어사 김영수(金永綏)의 글씨라고 전한다.⁶⁸⁾ 사실 제주목 관아는 제주지방 통치의 중심지로서 탐라국시대부터 주요 관아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며 1434년(세종 16) 관부(官府)의 화재로 건물이 모두 불 타 없어진 뒤 그 다음해인 1435년에 골격(骨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에 의해서 중축과 개축이 이루어지다가 일제강점기 때 관덕정만 빼고 훼손(毀撤)되었던 것을 2002년에 복원이 되었다.

<배비장전>에서 김경 목사가 전알전(展謁殿)에 사배하고 만경루에 도임했다는 것은 영주관에서 임지에 무사히 부임했음을 임금께 고했다는 것이다. 만경루⁷⁰⁾는 망경루(望京樓)로 추정되며 명종 11년(1556)에 김수문 목사가 세웠고 그 후 몇 차례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바다 건너 먼 변방에서 임금이 계신 한양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고 바다를 침범하는 왜구를 감시하는 망루 역할을 하였던 2층 누각이다.

이씨 비비장이 글을 읊고 무료(無聊)히 안절다가 우연이 슈포동(水布洞) 녹림간(綠林間)을 바라보니 량안도화 어린 곳에 주순세요(朱脣細腰) 일미인(一美人)이 어리락 비치락 만반교티(萬盤嬌態) 다 부리며(38쪽)

목사 허락 하에 모두들 한라산으로 꽃구경을 가게 된다. 이때 애랑은 배비장을 유혹하기 위해서 슈포동 녹림간에서 옷을 벗어 반석 위에 놓고 목욕을 한다. 그 모습에 반한 배비장은 구대정남(九代貞男) 간데없고 음남(淫男)이 되었던 것이다.

67) 이증 저·김익수 역, 앞의 책, 110-111쪽.

68) 신정일,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다음생각, 2012, 208-209쪽.

69) 홍순만, 「제주도내 문화유적의 소멸과 복원」, 『제주문화』 제7호, 앞의 책, 292쪽 참조.

70) 김삼불본에서는 ‘萬景樓’로 한자표기가 되어 있다.

산유거행을 통해 제주에 온 관리들이 봄날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기생을 끼고 노는 모습을 통해 퇴폐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배비장은 바라던 대로 명승지로서의 제주의 자연경관을 즐기면서도 자신은 가장 청고한 척하고 바위 위에서 홀로 앉아 동료들의 노는 모습을 비아냥거리며 글귀까지 지어 읊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연히 수포동 녹림간을 바라보고 상황은 급작스럽게 반전을 이룬다. 이때부터 배비장은 여색에 몰입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언급한 ‘수포동 녹림간’은 어디일까. ‘수포동 녹림간’이 어디를 지칭하는지 특별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정황상 방선문(訪仙門) 계곡이라는 실제 공간에서 허구적 공간을 상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선문은 제주시 오라 2동에 있는 큰바위로 ‘신선을 찾아가는 문’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이익태(李益泰, 1633-1704)는 1694년 목사로 부임해서 3년의 재임기간의 행적을 『지영록(知瀛錄)』에 남겼는데, 숙종 12년(1695) 8월 19일 일기에서 “새벽에 혼자 말을 타고 한라산으로 올라가다가 중대[中臺; 아흔아홉골]에 이르러 흐리고 구름이 끼어 거암곡[擧巖谷; 들렁귀]으로 내려왔다. 두 개의 계곡이 모여 합쳐져 북쪽으로 흐르고 샘의 돌이 청결하였다. 한 개의 커다란 돌이 언덕에 연결되어 골짜기 입구를 가로질렀는데, 그 가운데는 큰 구멍이 뚫려 마치 문과 같다. 철쭉과 단풍나무 등의 꽃들이 좌우에 번갈아 줄을 지었는데 푸른 벽으로 된 언덕은 봄가을에 놀러 와 구경하기에 적당하다. 돌로 된 시내는 항상 물이 흐르지 않을 때가 많은데 졸졸 흐르며 소리를 내는 것을 못 보아 이것이 흙이었다.”⁷¹⁾ 고 했다.⁷¹⁾ 이한진(李漢鎭, 1818-1881)은 영주십경을 품제(品題)하였는데, 제주도에서 가장 긴 하천인 한천(漢川) 상류에 위치한 방선문 일대를 영주십경 중 영구춘화(瀛邱春花)라 하였다. 불로불사의 약초가 있어 신선이 산다고 하는 삼신산(三神山) 중 하나인 영주산(瀛洲山)이 바로 한라산이다. 더욱이 탐라의 옛 이름도 동영주(東瀛洲)이다. 돌로 된 문인 석문(石門) 외에 돌로 된 초가집이란 의미인 석려(石廬)라고도 한다. 喚仙臺(환선대), 遇仙臺(우선대) 등의 글자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이는 너럭바위 위로 펼쳐진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동한 나머지 신선을 부르거나 신선을 우연히 만날 것만 같은

71) 『제주문화』 16, 제주문화원, 2010, 130쪽.

감동을 표현한 것이다.⁷²⁾ 전설에 따르면 옛날 백록담에서는 복날이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했는데, 이때마다 한라산 산신은 방선문 밖 인간세계로 쫓겨나 있어야 했다. 그런데 하루는 방선문으로 미처 내려가지 못한 한라산 산신을 보고 격노한 옥황상제가 그를 하얀 사슴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뒤 한라산 산신은 매년 복날이면 백록담에 올라 슬피 울었다⁷³⁾고 한다. 마치 <배비장전>에서 목욕하는 애랑을 훑쳐보며 황홀경에 빠져 정신을 잃은 배비장을 연상케 한다.

그렇게 배비장은 애랑에게 폭 빠졌다가 동헌(東軒) 마당에서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한 후 육지로 돌아가려고 할 때 조부진에 다다랐다. 조부진은 제주성 인근의 지명인 조부포(藻腐浦)와 연관 지어 추정해 볼 수 있다. 조부포는 ‘듬북개’의 차자표기로, 조부연대(藻腐煙臺)가 있던 외도 2동과 애월읍 동귀리 사이의 포구이다.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에서 조부포의 위치는 도근천포(도그냔개)와 군랑포(군랑잇개) 사이에 명기되어 있다. 한편 1700년대에 제작된 『호남전도』와 『전라남북여지도』에는 ‘藻腐浦’의 동쪽에 인접하여 동음의 ‘潮負浦’가 있다.⁷⁴⁾ 『탐라순력도』는 1702년(숙종 28)에 제작된 것으로 제주목사인 이형상(李衡祥)의 순력 및 행사장면을 화공 김남길(金南吉)이 그린 제주 유일의 풍속화첩으로, 제주도의 풍광과 풍속 등을 총 43면에 담고 있다. 그 중에 「한라장축(漢拏壯囑)」의 일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배비장전>과 관련된 지명들이 나온다. 왼쪽부터 ‘和北, 別刀浦, 濟州牧, 藻腐浦’ 등이 그것이다.

72) 영구(瀛邱), 등영구, 들렁귀 등 여러 별칭이 있는데 특히 들렁귀는 제주 고유어로 ‘들렁’은 ‘속이 비어 툭 트이다’는 의미로 ‘귀’는 ‘입구’를 나타낸다. 한편, ‘뚫어진 엉덕’ 혹은 ‘들러진 엉덕’이란 의미로 한자어표기로 천롱곶(穿弄串; 뚫다+렁+곶), 혹은 거암곡(擧巖谷; 들다+엄+괴) 등의 이두식 표기가 쓰였던 기록도 전한다. 등영구(登瀛邱)라 하여 ‘신선의 영산으로 오르는 언덕’이란 의미도 있다. 돌로 만든 밑받침은 신선과 만난다고 하여 ‘우선(遇仙)’이라 이름 하였다. 영조 15년(1739) 초여름 홍중징(洪重徵, 1682-1761)은 방선문을 찾아 역대 목사로서 처음으로 마애각 제영을 남겼다. 방선문 바위에 ‘登瀛邱’란 제액(題額)과 함께 오언절구의 시가 새겨져 있다. 석두아연처(石竇呀然處; 뚫어진 바위구멍 입을 크게 벌린 듯)/ 엄화무수개(嚴花無數開; 암벽사이 봄꽃들 여기저기 피어났네)/ 화문관현발(花門管絃發; 꽃 사이로 퍼지는 풍악소리 선율에)/ 난학약비래(鸞鶴若飛來; 신선테운 난새 학새 너울너울 날아오는 듯), 현행복, 『방선문』, 각, 2004, 21-31쪽 참조.

73) 이영권, 『제주역사기행』, 앞의 책, 150쪽.

74) 김동윤, 앞의 책, 248쪽.



<그림 2> 탐라순력도 한라장축 제주성 주변

제주목은 현재 제주시 삼도2동 43-2번지에 위치하였다. 김경 목사일행은 화북진으로 입도하면서 환풍정 앞에서 배를 내려 제주의 경치를 둘러보다가 마침 망월루에서 정무장과 애랑의 이별을 구경하게 된다. 이어 신임목사일행은 화북진을 출발하여 제주성 동문 안으로 들어서며 순차적으로 영무정 바라보고, 산지내 건너, 북수각 지나고, 칠성골로 들어섰다. 관덕정으로 돌아들어가서 전알전에 사배하고 만경루에 도입한다. 다음날 목사와 공모한 기생의 꾀로 한라산 화류를 하게 된다. 영주의 뛰어난 봄 경치를 즐기는데 배비장은 수포동 녹림간에서 목욕하는 애랑을 훑쳐보게 되면서 음남이 되기 시작한다. 결국 애랑의 꾀에 넘어가면서 크게 망신을 당하고 제주성을 떠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다가 조부진에 다다르게 된다. 제주를 떠나는 배를 얻어 탄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자신을 속인 애랑과 재회하면서 제주성 밖에 있는 애랑의 집에 머무른다. 결국 정의현감이 되었고 차차 승등(陞等)하여 애랑과 더불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것을 제주의 실제지명과 연관시켜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지명을 지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 지명

다음은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의 특산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정) 네 스정 내 모르며 내 스정 네 모르랴 나 올나간 후이라도 네 보호(保護)는 내 흐리
니
의지홀 곳 업다 흐고 스러흐지 부더 마라
일변 고직에게 분부흐야 비짐 푸러 이랑 준다
중량(中兩) 흐 통 세량(細兩) 흐 통 당건(宕巾) 흐 죽 우황(牛黃) 열 근 인삼(人蔘) 열
근 월즈(月子) 빅 기 마미(馬尾) 빅 근(白斤) 장피(獐皮) 십 장(十張) 록피(鹿皮) 오 장(五
張) 홍합(紅蛤) 전복(全鰓) 희삼(海蔘) 문어(文魚) 젓드려서 일빅 기식 습치 서 못 석어

(石魚) 혼 동 장곽(長藿) 소곽(小藿) 다시마(多心魚) 묵근 차로 각 두 동식 대하(大鰕) 혼
케 유즈(柚子) 열 케 빅즈(柏子) 두 말 진피(陳皮) 빅 근 삼층란간(三層欄干) 룡봉장(龍鳳
藏) 이층문갑(二層文匣) 각계슈리 빅목세포(白木細布) 물면जू 직인 더로 내여 노코 거름
조흔 제마(濟馬) 이 필(二匹) 은안금편(銀鞍金鞭) 가촌 더로 곱피 푸러 내여 주고 간지
(簡紙) 빅 축(百軸) 붓치 빅 병 심지어 싱강(生薑) 마눌 겨자(芥子) 호초(胡椒) 쑥갓(春
菜) 부초(韭草) 간장(淸醬) 된장(味噌) 김치(沈菜) 짝독이 먹다 남은 과(菓)(15쪽)

제주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이웃한 고을이
없으므로, 중앙에서 온 관원들의 횡포와 가림주구로 백성들의 고생이 막심하여도
쉽사리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가 없었다. 조정에서도 이런 사정을 깊이 생각하여
민폐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였다. 임징하(任徵夏, 1687-1730)는 영조 때 탕평책에
반대하여 소론의 제거를 주장하다가 평안도 순안(巡按)으로 유배되었고, 1727년
소론이 집권하면서 제주도 대정현으로 위리안치되었다. 이때 제주도 유배길에 쓴
일기가 『서재집(西齋集)』에 「수안록(隨雁錄)」으로 실려 있다. 그는 한밤중인
삼경(三更)에 별도포(別島浦)에 도착하여 환풍정으로 들어가 잠시 머물렀다가 다
음날 제주성에 들어가면서 목사로 왔던 조부인 임홍망(任弘望, 1635-1715)의 말을
떠올렸던 것이다.

마음을 다해 힘껏 강(講)을 하고 자세히 법으로 정할 것을 조정에 아뢰어 행하였다. 무릇
제주는 바다 밖 수천 리 먼 곳에 있어서 왕화(王化)가 적서지지 못하는 곳이어서 관리
(官吏)된 자들이 거리낄 것 없이 마음대로 착취를 하여, 제도에 없는 명분으로 백성에게
취함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수많은 백성들은 이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 간혹 스스
로 바다에 가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때 이르러 제도에 항식(恒式)을 만들어 그 역
(役)을 공평히 하였다. 이때부터 그 후 비록 탐욕한 관리라 할지라도 역시 조금이라도 더
정구할 수가 없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섬백성들은 그 아들에게 일러주고 형은 그 아우
에게 가르치며 모두 말하기를 “너의 피부와 살과 머리털은 모두 임(任) 사또의 은혜이
다.”라고 하였다.⁷⁵⁾

75) 임징하 저·김익수 역, 『서재집』,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2004, 185쪽.

제주도민을 괴롭히는 폐단들은 대개는 공납(貢納)으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망월루의 이별 장면 중에 ‘소녀는 하방천기(遐方賤妓) 나리는 경화귀빈(京華貴賓)’이라며 애랑은 정비장에게 자신은 변방의 천한 기생에 불과하고 나리는 서울의 귀한 호남자(豪男子)라 경성에 가면 곳곳마다 미녀들이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통곡한다. 정비장은 원래 뜻이 소활하기 때문에 애랑의 이 같은 사정을 생각하니 창자가 녹는 듯 앞이 짙 막혀 무엇으로든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서 소활(疏闊)하다는 것은 ‘사귀던 정분이 버성기고 서먹하다거나 성품이 영성하고 어설피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물건들을 내주게 된다. 위의 뱃짐 품목들은 제주특산물로서 진상품이다. 김삼불본에서 제주로 향하던 배가 중도에 풍랑을 만났을 때 한 비장이 울면서 “나는 형세가 가난하여 제주가 양태소산이라 양태동이나 얻어다가 가용에 쓸 것이요(김삼불본, 20쪽)”라고 했던 것처럼 양태는 제주의 주요 특산물이다. 제주에서 생산되었던 모자 종류는 립[黑笠], 관(冠), 탕건(宕巾), 망건(網巾) 등이며 주재료는 말총[馬尾]이다. 관모 생산 중 말총으로 만드는 것은 제주여성의 전업거리였다. 남성들은 농사나 뱃일 등 밖에서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여성들은 집안에서 관모생산 같은 작은 일거리를 하였는데 솜씨 좋은 여성은 일등 신부감이었다. 1704년 문헌 『남환박물』에는 제주물산(濟州物産)에 말갈기[鬚]와 함께 공물 중 양태[涼臺]와 모자가 나온다. 털병거지는 쇠털[牛毛]이 재료인데 역시 제주물산이다. 김춘택(金春澤, 1670-1717)⁷⁶⁾의 『북헌집(北軒集)』에는 숙종 대에 유배되었을 때 유생은 바람이 많아 털병거지를 쓰고 들에 나갔다고 적고 있다. 털병거지는 차양이 있는 모자로 1901년 신축민란 때까지도 군모(軍帽)로 사용되었으며 성읍지역 여성들이 만들었다.⁷⁷⁾ 배비장이 애랑을 만나러 갈 때 방자는 제주 복색으로 개가죽 두루마기에 노병거지를 권유한다. 복식은 기후나 풍토 등의 자연환경은 물론 사회풍속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제주도의 갓옷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한라산의 화전민이나 사냥꾼들이 동물의 모피를 소재로 한 갓옷을 입고 추위를 견뎠다. 목축업을 하던

76) 김춘택은 임징하의 매부로 1706년에서 1711년에 제주에 유배되었다. 따라서 1689년 기사사화(己巳士禍)로 유배되었던 부친인 김진구(金鎭龜, 1651-1704)와 유배 중에 죽은 아들 김덕재(金德材, 1694-1724)까지 3대가 모두 제주에 유배되었던 것이다.

77) 『제주여성사 I』, 앞의 책, 665-667쪽.

목자들은 쇠가죽, 개가죽, 노루가죽 등으로 갓옷과 갓신, 가죽감태 등을 만들어 입었다. 노병거지는 실이나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끈 줄로 엮어서 만든 병거지인데 여기서는 노루가죽으로 만든 병거지로 추정할 수 있다. 털병거지는 봄이 되면 털갈이하는 소나 말의 털을 모아서 콩풀에 섞어 갓모양의 모자틀에 눌러서 형태를 만든다.⁷⁸⁾ 이와 같이 가죽[皮革] 제품은 겨울에는 목자(牧者)는 물론 일반사람들의 필수품이었다. 『남사일록』에서도 한겨울에 화북포구로 입도하면서 본 남정(男丁)들은 모두 가죽옷에 가죽모자를 썼다고 적고 있다. 또한 과원(果園)에서 난 산물(酸物)은 영(營)에서 따로 봉하여 진상한다거나 공물(貢物)은 본현(本縣)에서 직접 받아 서울 각 사(司)에 공헌한다거나 감자(柑子), 유감(乳柑), 동정굴(洞庭橘), 비자(榲桲), 전복(全鰓), 상괭(常藿), 청피(靑皮), 진피(陳皮), 향부자(香附子), 해동피(海桐皮) 등 진상품의 종류와 수량은 물론 어느 관청을 통해 바쳐⁷⁹⁾야 하는지 꼼꼼하게 적고 있다.

배비장은 수포동 녹림간에서 목욕하는 애랑한테 반한 후 애랑에게 음식을 요구한다. 이때 차려준 음식은 “제주소산(濟州所產) 감유죽(甘柚子) 설당(雪糖) 뿌려 지여노코(53쪽)”에서 ‘감유죽(甘柚子)’는 다음에 나오는 ‘감(柑)의 이(齒) 즈옥(痕)’인 감의 이빨자국, ‘감죽(柑子) 꼭지를 니(齒)로 무러 썬다’인 감자 꼭지를 이로 베어 물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감유자나 감, 또는 감자로 표현한 것은 모두 제주 특산물인 감귤을 말한다. 망신당한 배비장이 포구에서 전복을 따가지고 나오는 계집을 만났을 때 역시 제주물산인 전복과 해녀의 복장은 관광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드러냈던 것이다. “탐색망신(耽色亡身) 죽게 되니 내 아니 잡놈인가 (김삼불본, 82쪽)”, “제주라 하는 곳이 물색지지(物色之地)라 분명 유부녀 통간 갔다가 저 지경이 되얏지.(김삼불본, 84쪽)”라고 해서 <배비장전>의 서두에서 제주의 탐라(耽羅)라는 옛 지명에 대한 언급을 통해 관광지로서의 명성에 대한 호기심과 “물식(物色)이 변화(繁華)하야 자리(自來)로 식향(色鄉)이라 (3쪽)”이라는 언급을 통해 ‘탐색망신(耽色亡身)’과 ‘탐라(耽羅)’의 ‘耽’자가 묘한 대비를 이룬다.⁸⁰⁾

78) 이귀영 외, 「제주의 생활문화」, 『제주문화』 10, 제주문화원, 2004, 141-144쪽.

79) 이증 저·김익수 역, 앞의 책, 135쪽.

80) 육재용, 「<배비장전>신고찰」, 『한민족어문학』 50권, 한민족어문학회, 2007, 268쪽.

제주도에 대한 관광적인 특성과 여색에 빠져 망신을 당한다는 것은 <배비장전>의 서사 전체에 걸쳐 곳곳에서 산견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주의 지역적 특징이 <배비장전>에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IV. 고소설과 판소리의 관계

1. 설화·판소리·고소설

소설은 인물, 배경, 플롯을 지닌 서사이다. 이러한 서사양식은 전통적으로 구비설화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소설은 설화적 서사 이상의 것을 표현하려는 문학적 창조양식이다. 귀족문학과 서민문학간의 대립이 약화되면서 만들어진 소설은 한문학인 한시를 문학의 본 영역으로 인식하던 시기에 설화를 개조해서 이루어진 설화 이상의 소설장르로 일부 양반에 의해서 정착되었다. 초기에는 한문소설인 양반소설이 중심을 이루다가 임병양란(任丙兩亂) 이후 서민적 국문소설로 소설의 중심이 변함에 따라 본격적인 소설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중세적 의식에서 근대적 의식으로 변하는 이 시기에 고소설의 세계관은 공동 사회적 인간상을 바탕으로 한 신성소설에서 후기의 이익 사회적 인간상을 바탕으로 한 세속소설로 변모 발전되었다.⁸¹⁾

다음은 <배비장전>이 설화에서 판소리를 거쳐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배비장타령>이 판소리 12마당으로 생성된 배경과 창을 잃은 요인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판소리계 소설의 형성과정

판소리계 소설은 이야기가 판소리로 불리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둔 명칭이다. 따라서 용어가 지닌 의미상의 문제와 한계를 지닌다. 판소리와 소설과의 관계에 있어 형성과 전승과 변이의 관계에 따른 구분을 통해 판소리계 소설을 이해할 수 있다.

판소리계 소설의 형성과 그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야기 문화의 전통과 계

81) 설성경·박태상, 앞의 책, 8-9쪽.

승인 설화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판소리선행설이나 소설선행설 모두 판소리 발생의 첫 단계로 설화를 놓고 있다. 설화가 본격적으로 채집되고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이후이다. 문인들은 여가를 이용하여 심심파적으로 설화를 수집하고 기록했다. 하지만 문인이 되기에는 제약이 많았던 서민들은 그것을 기록할 능력과 여유를 갖지 못했다. 임병양란 이후 설화집은 더욱 늘어나지만 그것들도 대부분 한문으로 전해진다. 이야기의 소재를 다양하게 취사선택하고 그 영역을 새롭게 확대해 나가면서 설화는 청중을 확장하였고 이야기문화가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전문 이야기꾼이 생겨나면서 청중의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소재를 찾아내고 그것을 청중들의 기호에 맞게 각색하여 효과적으로 구연하면서 소설과 판소리의 토양이 마련⁸²⁾되었다.

판소리의 근원이 되는 설화는 문자로 기록되어 전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구전되는 이야기로서 전해 왔다. 판소리가 생성되던 조선후기는 이야기문화가 크게 성행하면서 전문적 이야기꾼이 등장하기 시작하던 때이다. 설화는 본래 자생적인 것이어서 시간·장소·사람에게 구애받지 않을 때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설화가 소설이나 판소리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설화를 좀 더 정성들여 가다듬고 손질하는 전문적 작업이 가해져야 한다. 따라서 설화의 수용자인 청중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하고 설화구연의 방식이나 기법도 다양하게 향상되어야 한다. 판소리의 생성시기가 대체로 이야기꾼의 등장과 때를 같이 한다는 사실은 판소리의 발생 및 판소리와 소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판소리의 소재인 설화는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을 구연하는 설화자는 이야기꾼이라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이들의 모습에서 판소리 광대(廣大)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⁸³⁾

82) 임동철,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 연구』, 민속원, 1997, 27-31쪽.

83) 이야기꾼의 부류로 강창사(講唱師), 강담사(講談師), 강독사(講讀師) 등이 있다. 이에 관한 자료로 『과수록』에 수록된 이업복은 언문소설책을 맵시 있게 읽었는데 감정을 섞어가며 소설의 내용에 따라 백태를 연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작중인물의 성격과 표정, 행위 등 배우의 역할을 겸한 것이다.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의 『추재집(秋齋集)』 「기이(奇異)」 편에 나오는 이야기하는 늙은이 전기수(傳奇叟)는 동대문 밖에 살고 있는데, 언문소설을 잘 읽었다. 그는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귀전> 같은 전기소설들을 잘 읽었다. 그런데 읽어가다가 가장 간절하여 아슬아슬한 대목에 이르면 문득 입을 다물었다. 사람들은 다음 대목이 궁금하여 돈을 던져 주면 그제야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이것을 ‘돈 거두어들이는 법’이라 한다. 위의 책, 31-37쪽 참조.

한 작품이 다양한 이본을 생성하며 수백 년에 걸쳐 수용되었을 때, 시대에 따라 독자층의 성격에 따라 독자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것이 이본 형성에 어떻게 간여하고 있는지 밝히는 일은 소설 향유의 지평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판소리계 소설처럼 작자를 구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창자의 더늠의 확대에 따라 변모를 보여 온 작품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⁸⁴⁾ 전기수(傳奇叟)에 의해 낭독과정에서 개작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소설은 필사 과정에서 개작되었다. 작자 미상의 소설을 필사하면서 독자가 임의로 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독자소설’⁸⁵⁾로서의 특징이다. 세책가(貰冊家)에서 빌린 소설을 배끼면서 자기 나름대로 개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독자가 개작에 참여할 수 있었고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서울, 전주, 안성 등지에서 방각본(坊刻本)이라는 목판본 출판에 뒤이어 활자본 출판이 성행하면서 소설의 대량보급이 가능케 되었고, 따라서 수많은 이본이 생겨났다.

조선은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를 맞는다.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으로 일본과 중국은 왕조교체가 이루어지고 조선은 정권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기강이 크게 흔들렸다. 이러한 권력의 재편과 균형이라는 첨예한 상황 하에 사회적 신분제도의 변동 및 경제적인 새로운 양상들이 생겨났다. 무력해진 집권층은 사회통제능력을 상실하고 모순은 격화되었다. 당시 상업의 발달로 신분제 사회가 흔들리면서 형식적인 격식을 버리고 내용을 중시하게 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상하층의 간격이 좁혀지면서 탈속심미적인 문인 취미 등 예술과 문화부문에서의 사대부의 활약과 중인과 여향문인들이 새로운 문화 계층으로 부상하게 되어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이 시작되었다.

84) 인권환 외, 『고전문학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 월인, 2003, 10쪽.

85) 조동일은 동시대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일제히 생겨나고 성장한 소설을 비교 고찰하였다. 중국은 소설을 출판하면서 작가가 본명을 숨기고 필명을 내세우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작가소설’이라고 하고, 일본은 출판인이 작가에게 요청해서 받아낸 원고를 출판하면서 작가 이름을 명시했기에 ‘출판인소설’이라 하였고, 한국은 독자에 의해 필사하는 과정에서 개작되는 ‘독자소설’이라고 하였다. 또한 중국소설은 구어체인 백화(白話)를 사용한 것이라도 식자층 남성이라야 즐길 수 있었고, 일본소설은 가나로 표기되었지만 내용상 남성소설이었다. 반면 한국의 국문소설은 대부분 여성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여성 창작자도 상당수 있었고 독자 또한 대부분 여성이었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제4판, 지식산업사, 2005, 93쪽 참조.

소설이 서사장르로서 뚜렷한 모습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은 17세기 이후이다. 전설과 민담은 구비문학이다가 이따금 기록에 올랐으나 소설은 기록문학으로 정착되었다. 글을 쓰는 격식은 설화에서 가져올 수 없어 별도의 모형이 필요했는데 바로 전(傳)이다. 명칭이나 형식에서 전으로 행세하면서 교술을 서사로, 사실을 허구로, 교훈을 흥미로, 지배이념에 대한 옹호를 비판으로 바꾸어 놓았다.⁸⁶⁾

한 인물의 일생을 다룬 소설은 전(傳)이라고 한다. 여기에 특정사건을 다룬 것은 기(記), 여러 인물들의 상호관계를 다룬 것은 녹(錄)이다. 이미 신문학 초기에 김태준은 『삼국사기』에 있는 열전은 대개 설화문학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여겼고, 서거정의 골계전 등은 전기문학(傳奇文學)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서사문학의 연원을 설화에서 찾고 이것이 가전체소설로 발전하여 고전소설을 이루었고 결국 가장 완성된 서사문학인 현대소설을 형성하였다. 한국소설의 연원은 설화에서 소설이 탄생했다고 보면 가전 역시 소설을 형성하는데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자의 작의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가전의 의인화 수법은 소설의 허구적 작법과 상통한다. 한문전과 함께 한글로 된 傳 즉, 고전소설 중에는 ‘傳’을 표제로 하는 작품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글 고전소설의 대종을 이루는 영웅소설유형의 작자층은 몰락양반이거나 상품경제 활동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는 평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문전의 기본 틀에 맞추어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傳을 표제로 한 소설이 소재의 측면에서 혹은 양식적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설화나 판소리, 중국소설의 영향을 받아왔을 것이다. 영웅소설의 작자가 영웅의 일생담을 서술할 때 記나 錄 따위보다는 유독 傳을 취했던 까닭이다.⁸⁷⁾

18세기에 한시나 시조의 향유에 중인층 출신의 위향 시인과 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신분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모임을 만들어 열정적으로 창작과 향유를 한다. 하지만 19세기에 세도정치가 막을 올리면서 봉건적 억압이 강화되고 보수화의 길을 걷게 된다. 중인들이 향유하던 문학예술에 있어서도 기생

86) 조동일, 앞의 책. 90쪽.

87) 주명희, 「〈傳〉의 연구 방향」,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2009, 331-332쪽 참조.

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유흥적인 방향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 이면에는 이질적인 계층 간의 문화적 소통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피지배계층이 자신의 문화적 발언권을 높여가는데 있어 지배층이 관심을 보이고 때로는 영향력까지 행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19세기 문학예술이 계층에 따른 배타적 향유의 단계를 넘어서서 전 계층적 향유의 폭을 지니게 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다.⁸⁸⁾

한국문학사에서 18, 19세기 당시 유행하던 국문소설에 대한 지식층의 발언은 대개 그 가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소설의 양적인 비약이 상당하였으나 당시 널리 읽힌 국문소설이란 대부분 독자의 기호에 영합한 저질 상업주의적 통속물로 간주하였다. 판소리계 소설의 민중적 발랄성은 그 자체로 값진 것이지만 아직 본격문학으로 승화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당대 최고의 세계관에 의한 미적 형상은 한문학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에 비해 국문학은 당대의 세계관을 대변하고 시대의 현실과 사회의 모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그 자체 내에 반영하고 위상을 확보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 후기에 판소리계 소설을 포함해서 실학과문학과 한문단편, 서사한시 등 현실주의문학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서사한시는 체제모순과 민생갈등의 내용과 형식이 주류를 이루면서 한편으로 민족의 대외모순과 자주의식을 투영하거나 애정갈등과 여성문제를 다루는가 하면, 예인(藝人) 및 시정의 인물형상을 그리면서 매우 다채로워졌다. 한문단편은 의도적인 창작의 소산이라기보다는 거의 구연(口演)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기록한 형태로서 작가의 이름이 붙여지지 않고 단지 기록자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중세적 사고에서 벗어나 변혁을 지향하는 근대적 진보 시각이 구연과정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현실을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감각으로 시대의 진실을 이야기 속에 담아냈던 것이다. 국문소설인 판소리계 소설 역시 구연과정을 통해서 현실주의적 성과를 취득하게 되었다. 한문단편이 시민적 지향을 보인데 반해 성장 배경이 다른 판소리계 소설은 민중적 지향을 보이면서 대조를 이루었다. 판소리가 민중예술의 형태로서 지방을 배경으로 성장한

88) 국제어문학회편, 『고전문학 담당층과 문학의식의 제문제』, 보고사, 2004, 129-131쪽.

까닭에 판소리계 소설은 민중의 애환과 갈등이 민중의 생기발랄한 언어로 표현⁸⁹⁾된 것이다. 19세기는 시민적 발전 방향보다는 민중에 의해 역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민중성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현실주의문학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이 소설로 변화된 것이다. 이러한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와는 무관하게 설화적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이본도 있고 판소리의 어느 한 계파를 계승한 이본도 있다. 이와 같이 판소리 사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변모되었던 것이다. 창로서의 전승이 지속되면서 소설과의 상호연관성을 맺는 작품은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 <적벽가>, <별주부전>이다. 판소리와 소설이 병행하지 않고 별개의 것으로서 판소리만으로 존재하는 작품은 <변강쇠타령>이고, 소설로만 존재하는 작품은 <배비장전>, <숙영낭자전> 등이다. 다음은 판소리 역사의 흐름을 통해 판소리 12마당이 생성된 배경과 <배비장전>이 판소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다.

2) 판소리 12마당으로 생성된 배경

판소리가 성립된 시기는 대체로 18세기로 잡는다. 원래 서민 사회의 자생적 예술로서 출발하여 당대 지식인들이나 지배계층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전승되어 오다가 이 시기에 와서야 기존의 연희와 음악을 바탕으로 재창조되어 내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문학·음악·공연예술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면서 당대 서민층의 현실적 문제들을 다루고 그 이해의 폭도 확대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되었다.

판소리의 시원지가 어디인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원래 판소리는 이야기문화의 발전적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서울지역의 이야기문화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로 경기도에서 원초적 형태를 갖추고, 충청도를 거쳐 전라도에서 자리 잡고 발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 근거로 초창기 판소리 창자는 충청도 지역에서 나왔다는 사실과 황해도 지방에서 불려진 ‘배뱅이굿’을 판소리의 원형으로 보려는 견해⁹⁰⁾도

89)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46-48쪽.

90) 임동철, 앞의 책, 38쪽.

있다. 하지만 판소리가 생겨날 수 있었던 모태는 역시 호남지방의 서사무가에서 찾을 수 있다. 무가가 이야기를 노래로 한다는 점과 판소리의 음악이 호남지방의 무악(巫樂)과 닮은 점이 그 근거로 제시⁹¹⁾된다. 서사무가는 자연발생적인 전승물이지만 판소리는 의도적인 창조물로 기교와 이론이 뒷받침이 되는 전승물이다. 광대가 고수의 반주에 따라 부르는 연희창(演戲唱)으로 연극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사건 전개 방식은 서사시이다. 전라도의 세습무는 어머니에서 며느리로 계승되고 남자는 대체적으로 악공으로 활동한다. 장형서사시인 판소리는 말과 창을 섞어 부르는 방식이 서사무가와 닮았고 장단도 무가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곳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흥행물로 자리 잡으면서 신이 아닌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새롭게 변모하였다. 조동일은 제주도 서사무가 중 하층민의 고난을 묘사한 <이공본풀이>나 애정 성취를 예찬한 <세경본풀이> 등을 전라도의 판소리와 연결시키거나, <훗사나타령>은 경상도 북부지방의 명창이 불러 인기를 모았고, 평안도의 <배뱅이굿>은 남도판소리와 경쟁할 만한 서도판소리였다고 하였다.⁹²⁾ 또한 <가루지기타령> 즉, <변강쇠가>는 황해도 쪽에서 처음 생겨난 것으로 보고 판소리 발생지역이 다원화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암시했다.⁹³⁾

판소리의 연구사를 보면 구비문학인 판소리는 현장예술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록문학인 판소리계 소설과 존재 양식 및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판소리의 기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다.

우선 판소리 사설의 근원이 되는 설화가 존재했고 이 근원설화로부터 판소리가 생겨났다고 보는 설화기원설은 김삼불에 의해서 ‘설화→타령→서민소설’로 제기되었다. 김동욱도 근원설화에서 판소리 한마당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본으로서 정착되었고, 그 후 소설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하지만 1930년대에 『조선소설사』에서 김태준은 판소리를 가극(歌劇)이라고 부르면서 ‘<춘향전>의 고본은 옛날 이야기책 모양으로 전해 오던 것을 광대들의 입으로 읊기기 시작하여’라고 해서 ‘설화→소설→판소리’의 이행론으로서 서민성과 반봉건적 성격을 주

91) 정병헌, 앞의 책, 38쪽.

92) 조동일, 앞의 책, 580-581쪽.

93) 위의 책, 587쪽.

장하였다. 조운제도 <춘향전>은 극히 간단한 스토리에서 출발하여 점점 소설로 구성되고 다시 희곡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성현경은 <심청가>의 예를 들어 다시 근원설화에서 소설로, 다음에 판소리의 과정을 뒷받침해 주는 주장을 상세하게 펼쳤다.⁹⁴⁾

서사무가기원설은 전라도 단골무의 광대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정노식은 1940년에 간행된 『조선창극사』에서 판소리의 현장 예술적 전체성에 착안하여 풍부한 사례를 보고 역대 명창들의 계보를 작성하면서 판소리 발생론에 있어서 최초로 무악기원설을 제시하고 춘향전 성립에 관해 ‘무녀의 굿→광대의 창극조→소설화’라는 구도를 설정⁹⁵⁾하였다. 조동일은 서사무가가 판소리와 함께 장편구비서사시이기 때문에 판소리로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졌고 전라도의 무가는 판소리와 같은 장단 변화가 있으며 <배뱅이굿>이 생겨난 배경을 예로 들며 설명하였다. 서사무가가 이미 지나간 시대의 낡은 예술로 지속될 때, 판소리는 민중 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조선후기에 상업이 발달하고 부유한 서민층이 성립되고 민중의식이 각성되면서 무당 신분을 스스로 비판함으로서 흥미롭고 현실주의적인 대중예술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굿의 테두리를 벗어나 해학과 풍자를 풍부하게 지닌 판소리가 새로운 청중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⁹⁶⁾이다. 이와 같이 판소리에 관한 기원은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겪는다.

조선시대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에는 재인청이라는 관청이 있었다. 이는 신청, 악사청, 광대청, 화랑청이라고도 하여 세습무당 집안의 남자인 무부에 한하여 전적으로 무악을 연주하는 화랑, 줄타기나 물구나무서기 등의 곡예도 하고 무악도 연주하는 재인(才人) 등을 포함했는데, 염계달, 송홍록, 고수관 등 판소리 명창인 광대들도 속해 있었다. 재인청에 속한 재인들은 나라나 국가의 중요 행사가 있을 때 서울로 올라가서 공연에 참가했다. 과거 철을 맞아 상경하여 문희연을 공연하는데 우희나 판소리도 이때 연행되었던 것이다. 판소리의 각각의 대목들은

94) 전경옥, 『한국의 전통연희』, 학고재, 2004, 460-464쪽.

95) 김홍규, 「판소리연구사」, 『한국일보』 3권 2호, 일지사(한국일보), 1977, 153쪽.

96)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93, 244-245쪽.

하나의 독립적인 골계담을 이루고 있어 그 대목들을 독립적으로 연행하면 바로 우희가 될 수 있다. 1626년(인조 4)에 거행된 나례에 동원되었던 박남(朴男)은 전라도 김제 출신 재인으로 우희 연희자이자 판소리 창자로 알려져 있다. 판소리에 대한 기록은 18세기 중반에 나타난다. 석북 신광수(申光洙, 1712-1775)가 진사에 급제하여 유가(遊街)를 할 때 거느렸던 원창에게 ‘우조영산’이라는 판소리 단가에 대한 시를 써준 기록이 최초이다. 가난하여 유가에 대한 보수를 지불할 수 없었던 그가 붉은 부채에 이 시를 써주었던 것인데, 뒤에 그 창부가 내원(內苑)에 들어가 타령을 하는데 임금께서 그 부채를 보고 즉시 석북에게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1761년 50세에 처음 벼슬에 나선 신광수에 의해 결국 18세기 중엽 영조 말년에 판소리가 연행되었고 더구나 임금 앞에서 연행되었을 정도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⁹⁷⁾

만화(晩華) 유진한(柳振漢, 1712-1791)은 42세인 봄에 호남을 유람하고 이듬해인 1754년(영조 30) 집에 돌아와 가사(歌詞) <춘향가> 200구를 지었다. 당시에는 선비들의 놀림을 받았다.⁹⁸⁾ 그는 숙종 대에 태어나 영·정조 시대를 거치면서 활동한 선비로 충남 천안에서 은석시사(銀石詩社)를 결성했고 신광수 등 많은 선비들과 문예를 겨뤘다. 『만화집(晩華集)』(1988)은 유진한의 후손들이 유고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간행한 문집으로 서문은 이가원(李家源, 1917-2000)⁹⁹⁾이 썼다.

그런데, 이 만화본 <춘향가>에 이미 “배비장”에 관한 기록이 있어 당시 <배비장타령>이 존재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長成忍忘葛姬眼(장성인망갈희안)	장성에선 차마 어찌 갈희 눈을 잊었으랴
濟州將留裴將齒(제주장유배장치)	제주에선 배비장이 앞니를 남길 테지.
郎言別恨割肝腸(낭언별한할간장)	서방님 왈 이별 한에 간장이 찢어진다
女道深恩銘骨髓(여도심은명골수)	춘향 답은 깊은 은혜 골수에 새기겠소. ¹⁰⁰⁾

97) 전경옥, 앞의 책, 479-481쪽.

98) 유진한 저·송하준 역, 『국역만화집』, 학자원, 2013. 23쪽 서문 참조.

99) 이가원은 퇴계 이황의 후손으로 국문학자이자 한문학자로서 성균관대와 연세대 교수를 지냈다.

100) 유진한 저·송하준 역, 앞의 책, 201쪽.

위의 구절은 춘향이와 이도령이 정을 나누다가 북쪽의 한양에 가실 때가 되어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는 대목이다. 장성에서는 갈희라는 여인의 슬픈 눈을 잊을 리가 없었고, 제주에서는 배비장이 앞니를 남길 것이라며 춘향과의 이별을 갈희의 슬픈 눈과 이별의 정표로 빼서 준 배비장의 앞니에 비유하고 있다. <배비장전>에서는 발치 모티프가 정비장과 연관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배비장과 연관시키고 있다. 이는 타령이 소설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배비장이 정비장으로 바뀌었거나 혹은 배비장과 정비장을 동일시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발치설화가 『태평한화글계전』에서는 계림에 사는 소년이던 것이, 『명엽지해』에서는 함흥 통관이 된 부친을 따라갔던 최생이란 선비로 바뀌었고, 18세기 중반에 와서는 배비장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발치설화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어느 특정지역의 소산물이라 아니라 선비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야담이었고 이미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발치설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제주는 한양과 멀리 떨어진 거리상의 제약으로 인해 중앙 지배세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리상의 제약은 남녀 간의 이별의 정한을 부각시키기에 육지의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절실하고도 적합했을 것이다. 따라서 소설의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극적 효과를 높인다는 면에서 서사의 공간적 배경을 제주지역으로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유진한은 마지막 구절에서 이 가사를 지은 의도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奇談祇可詠於歌(기담지가영어가)	기이한 이야기는 노래로 읊음직하고
異蹟堪將繡之梓(이적감장수지재)	색다른 자취는 책에 실을 만하다네.
騷翁爲作打鈴辭(소옹위작타령사)	시인이 이렇게 타령 사설 지었으니
好事相傳後千祀(호사상전후천사)	호사가들 서로 전해 천년토록 이어지리. ¹⁰¹⁾

위와 같이 <춘향가>는 타령으로서 기이한 이야기가 있고 이런 색다른 자취는 책에 실을 만하여 사설을 지었고 오래도록 전해지길 바랐다. 따라서 적어도 배비장 서사는 <춘향가>보다는 일찍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것은 단 한 줄

101) 위의 책, 223쪽.

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유진한이 <춘향가>를 짓는데 제주와 관련된 배비장 서사가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유진한의 생각대로 이 노래는 오늘날에도 불리고 있고 현재로서는 학계에서 <춘향가>의 효시(嚆矢)이자 판소리의 가장 오래된 문헌자료라 할 정도로 국문학적 의의가 크다.

그 후의 기록으로 판소리 12마당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송만재(宋晩載, 1788-1851)의 「관우회(觀優戯)」가 있다. 「관우회」는 판소리를 비롯한 줄타기, 땅재주 등의 연희(演戯)에 관한 문헌자료이다. 지금까지는 학계에 알려진 연세대 소장본으로만 판소리의 실체를 파악했었는데, 다행히 『판교초집(板橋初集)』이 발굴되면서 학계에 크게 주목받아 최근에 『송만재의 관우회연구』가 발간되었다. 구사회 소장본은 「옥전잉묵(玉田잉墨)」과 「관우회오십절(觀優戯五十絶)」로 나뉘는데 「옥전잉묵」은 한시 작품이고, 「관우회오십절」은 50수의 연희시가 <序(서)>와 <跋(발)>¹⁰²⁾과 함께 기록되어 있어 연세대 소장본의 「관우회」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용지면에서도 연세대본은 20세기 초엽에 의정부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구사회본은 18~19세기에 중국에서 수입되어 유통된 종이로서 작자인 송만재가 직접 적었을 가능성까지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제목 아래 자하비평(紫霞批評)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자하 신위(申緯, 1769-1845)의 비평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위는 송만재보다 20여 년 연장자로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와 함께 당대를 대표할만한 문사이다. 그는 당색이 소론으로 예술 양식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송만재의 「관우회」뿐만 아니라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관극팔령(觀劇八令)」¹⁰³⁾ 등도 그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¹⁰⁴⁾

102) <발(跋)>에서는 “나라 풍속에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광대놀음을 베푸는데 소리와 재주를 논다. 집안 아이가 올봄 기쁜 소식을 들었으나 매우 가난하여 한바탕 놀이를 갖출 수 없었다. 그러다가 도성 거리에서 고적(鼓笛)을 즐기는 풍속에 대해 들었는데 이에 흥이 또한 알지 않았다. 그 소리 모양을 본떠 몇 개 운(韻)을 불러 마을의 벗들에게 화답하게 하니 어느 정도 분량이 되었다. (중략) 그 운(韻)을 서술하여 『악원(樂苑)』이 남긴 운(韻)에 보태려 한다.”고 하여 <관우회>를 지은 목적이 드러나 있다.

103) 『관극팔령』에는 각 수의 소재목이 들어 있다. <광한춘(廣寒春)>은 <춘향가>를, <연자포(燕子匏)>는 <흥부가(興甫歌)>를, <애여장(艾如帳)>은 <장끼타령>을, <중산군(中山君)>은 <수궁가(水宮歌)>를, <삼절일(三絶一)>은 <적벽가(赤壁歌)>를, <아영낭(阿英娘)>은 <배비장타령(裴裨將打令)>을, <화중아(花中兒)>는 <심청가(沈淸歌)>를, <장정후(長亭侯)>는 <변강쇠가>를 각각 읊은 것이다.

『관교초집』은 송만재가 판교에 거주했던 시기인 56세인 1843년(헌종 9)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진사에 급제한 아들을 위해 삼일유가(三日遊街)의 대응으로 「관우회」를 지었다. 「옥전잉묵」에 실린 한시¹⁰⁵⁾와 관련하여 송만재와 교유했던 인물로 추정되는 영교(穎橋) 유본정(柳本正, 1807-1865)은 실학자인 유득공(柳得恭, 1749-1807)과 『세시풍요』의 저자인 유만공(柳晩恭, 1793-1869)의 조카이면서 이들은 모두 서얼이다. 송만재가 「관우회」를 지었던 1843년 유본정의 숙부인 유만공은 『세시풍요』를 제작했고, 여기에 <춘향전>을 한시로 바꾼 윤달선(尹達善)의 「광한루악부」도 함께 수록했다. 따라서 19세기 중엽 송만재의 「관우회」를 비롯하여 윤달선(尹達善)의 「광한루악부」, 이유원의 「관극팔경」, 조재삼(趙在相)의 『송남잡지(松南雜識)』(1855) 등이 모두 자하 신위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것¹⁰⁶⁾이다.

慾浪沉淪不顧身(욕랑침륜불고신) 욕망에 빠져 버려 체면도 상관 않고
肯辭剃髻復捶齷(금사체계복추은) 기꺼이 상투 자르고 또 이빨을 뽑아서
中筵負妓裴裨將(중연부기배비장) 술자리에서 기생 업은 배비장은
自是倥傯可笑人(자시공동가소인) 스스로 가소롭게 명칭이 되었네¹⁰⁷⁾

위의 구절은 <배비장타령> 대목이다. 「관우회」는 1수를 칠언절구로 해서 총 50수를 적고 있다. 영산(靈山)(제1-8수)—타령(打令)(제9-20수)—요령(要令)(제21-28수)—궁희(絃戲)(제29-35수)—장기(場技)(제36-42수)—총평(總評)(제43-50수)으로 되어 있다.¹⁰⁸⁾ 판소리 열두 마당의 내용은 타령 항목이고, 요령은 판소리나 줄타기의 주체인 광대들의 너름새나 동작을 나타낸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배비장타령>이 현전하는 소설의 서사와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타령에서는 상투를 자르고 이빨을 뽑고 술자리에서 기생을 업었던 배비장이 소설에서는 상투를

104) 구사회 외, 『송만재의 관우회 연구』, 보고사, 2013, 13-18쪽.

105) ‘영교의 시를 차운하다(次穎橋)’에서 영교(穎橋)는 유본정의 호이다.

106) 구사회 외, 앞의 책, 35-37쪽.

107) 위의 책, 70쪽.

108) 위의 책, 14쪽.

자르거나 이빨을 뽑거나 기생을 업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애랑이 정비장을 상대로 상투를 잘라달라고 했지만 정비장은 ‘身體髮膚는 受之父母’라며 효도는 못 할망정 일시적 애정을 못 이겨 훼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 앞니 하나를 빼 달라고 하자 공방고자까지 불러놓고 이 빼는 시늉은 했지만 결국 빼지는 못했다. 김삼불본에서도 양각산중주장군(兩脚山中朱將軍; 성기)까지 달라고 했지만 결국 신체적인 것은 하나도 준 것이 없다. 그리고 배비장이 술자리에서 기생을 업는 장면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유진한의 기록과 송만재의 기록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발치 모티프를 배비장과 관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18세기까지 구비 전승되던 <배비장타령>이 19세기에든 여전히 비슷한 서사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하지만 소설화과정을 겪으면서 정비장이 등장하고 새롭게 재창작되어 <배비장전>으로 문헌에 기록되었던 것이다.

관소리 12마당에 대한 대표적 자료로는 송만재의 「관우회」 이후에도 정노식의 『조선 창극사』(1940)가 있다. 하지만 두 자료가 제시한 12마당은 차이가 있다. 19세기의 자료인 「관우회」에는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수궁가>, <적벽가>, <변강쇠타령>, <배비장타령>, <강릉매화타령>, <옹고집>, <장끼타령>, <왈자타령>, <가짜신선타령>을 제시한 반면, 『조선 창극사』에는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수궁가>, <적벽가>, <변강쇠타령>, <배비장타령>, <강릉매화타령>, <옹고집>, <장끼타령>, <무숙이타령>, <숙영낭자전>을 들고 있다. 송만재가 제시한 <왈자타령>과 <가짜신선타령>대신 정노식은 <무숙이타령>과 <숙영낭자전>을 제시했다. 그런데 1990년대 초에 김헌선과 김종철에 의해 <게우사>라는 필사본은 왈자 김무숙이 기생 의양에게 혹해서 재산을 탕진하는 내용이어서 <무숙이타령>이 곧 <왈자타령>임¹⁰⁹⁾이 판명되었다. 결국 <가짜신선타령>이 <숙영낭자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따라서 송만재의 「관우회」를 근

109) 왈자는 19세기 시정의 유흥공간에서 배태된 무리로 무반창, 중서창, 액예, 평민들로 구성되었으며 왈자의 모임은 권력과 부와 유흥의 복합체였다. 이들은 신흥부자로서 일부서리들은 부정하게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기녀들과 향락생활을 영위했다. 왈자의 이러한 향락생활은 조선후기 사회현상의 하나로 그들의 몰락상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다수 출현하였다. <게우사>는 <무숙이타령>사설 정작본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이들 가사는 부모덕에 호의호식하다가 노름질, 투전질, 기생 작첩, 외입장자와의 교제 등을 일삼다가 걸객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을 다루고 있다. 조광국, 『한국 문화와 기녀』, 월인, 2004, 308-309쪽 참조.

거자료로 18세기를 판소리의 전성기로 보면 이미 12마당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고 백여 년이 지나면서 ‘12마당’이라는 존재가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동욱에 의하면 <숙영낭자전>은 일명 <백상서가(白尙書歌)>로 고종 이후에 새로운 판소리로 등장했고 근원적인 면에서는 <가짜신선타령>이 정통이다.¹¹⁰⁾

이상과 같이 판소리 12마당은 「관우회」(1843)를 토대로 생겨난 명칭임을 알 수 있다. 이선유(李善宥, 1873-1949)의 『오가전집(五歌全集)』(1933)에 실린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수궁가>, <화용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전(失傳) 판소리로 확정되었다. 실전판소리들 중에는 창만 잃고 사설은 소설로 남아 정착된 작품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배비장전>이다.

3) 배비장타령이 창을 잃은 요인

판소리 12마당 중 전승 5가는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홍부가>, <적벽가>뿐이다. 신재효본은 5가 외에 <가루지기타령>(일명 변강쇠타령)이 포함되어 6가집(六歌集)이다. 실전 판소리는 <변강쇠타령>을 포함한 7마당이다. 이들은 사설이 기록으로 전하지만 창(唱)이 전승되지 않거나 사설조차 전해지지 않는 판소리들이다. <배비장타령>은 창이 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실전한 이유로 골계미에 치우쳐 있다거나 성격적 결함을 가져 사회적으로 교정의 대상인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 그것과 대결하는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향유층의 소망을 담을 수 없었다거나 흥행 예술의 운명을 시대의 중심적인 갈등과 바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승 5가와 경쟁에서 밀려나 연행에서 탈락되었다는 견해¹¹¹⁾가 지배적이다.

판소리라는 장르의 정체성이 적층문학, 성장의 문학, 유동문학의 특징을 지니면서도 그 근원은 이야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문학사에 있어 소설의 시대라 일컬을 수 있는 조선후기에 판소리계 소설이 등장하게 된다. 조선시대 식자층은

110) 김동욱, 「판소리사 연구의 제문제」, 『판소리의 이해』, 1988, 83쪽, 고연화, 앞의 논문, 2007, 20쪽 재인용.
111) 김중철, 「<배비장타령> 외 기타 실전판소리」, 판소리학회, 『판소리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327-329쪽.

한학자들이었고 이들은 주로 한문을 통한 문자생활을 하였으므로 판소리 사설은 초기에는 한문으로 줄거리만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후대로 올수록 국문기록을 병행하면서 판소리 창을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었고 따라서 사설의 원형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양과 질에 있어서도 한문기록을 능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음악성은 늘어나고 사설이 더욱 생동감 있게 전개되어 청중의 호응을 얻게 되면서 창이 변용을 거쳐 소설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와 병행하면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전승되는데 이들 작품 중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 모두 청중과 독자에게 인기를 얻은 것은 <춘향전>과 <심청전>이었다. 한편 소설이 우세하게 발전한 것은 <토끼전>과 <적벽가>다. <홍부전>은 소설보다는 판소리로 주로 불렸다.¹¹²⁾ 판소리로는 불리지 않지만 현재 소설로만 존재하는 것은 <배비장전>과 <옹고집전> 그리고 <장끼전>이다. 이들 세 작품 모두 19세기 신재효(申在孝, 1812-1884)의 『판소리사설집』에서 누락되었는데, 그것이 실전요인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만 <옹고집전>과 <장끼전>은 그 필사본이 계속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소설로서 많은 인기와 관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배비장타령>은 18세기의 기록인 유진한의 『만화집』에 <춘향전>과 함께 언급한 것으로 비추어 오랜 세월동안 관심을 받아왔지만 이본이 적다.

실전 판소리들의 창을 잃은 기존논의를 보면 대체적으로 향유 중심층의 이동과 작품의 질적 저하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9세기는 명창들의 계보가 확립되면서 판소리가 매우 세련된 창악으로 발전하고 양반층의 후원으로 질적 변화를 이룩한 시기로 판소리의 전성기이다. 평민층에서 양반층으로 옮겨감에 따라 판소리 창자들도 향유층의 중심이 양반층을 의식하게 되고 창을 잃은 7가는 양반층의 미의식이나 이념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설의 내용이나 구조가 단순하고 현실의식에도 깊이가 없다는 것, 미학적 측면에서도 시대와 부적응하고, 더구나 충·효·열 등의 관념적 주제로 건인될 만한 가능성을 거의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다. 19세기는 상하층의 대립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시기였으며, 중세적 질서가 총체적

112) 임동철, 앞의 책, 58-61쪽.

으로 문제되는 시기로서 실전 판소리들은 당대가 요구한 근대적 전환의 가능성을 내포한 민중적 전형의 창출에 실패한 것으로 보았다.¹¹³⁾

19세기 전반기에는 본격적인 명창시대가 펼쳐졌고 임금 앞에 불려가거나, 세도 가나 흥선대원군도 판소리를 애호했다. 판소리 광대들은 명예직이나마 벼슬을 받고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이렇게 판소리가 양반과 왕족 사이에서 애호되면서 변모하기 시작한다. 양반들이 판소리의 감상자와 비평가의 역할을 하면서 직접 판소리 사설을 수정하거나 창작하게 되고, 결국 광대들은 양반을 위한 예술 활동에 종사하게 되었다. 원래 거칠고 건장한 민중 의식을 담고 있던 판소리가 양반들의 전아하고 고상하며 중세적인 질서를 고수하는 방향으로 개작되었던 것이다. 민중의 삶을 역동적으로 반영하면서 현실 세계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해주는 능동적인 예술로부터 점차 멀어지면서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이미 한문 투를 많이 사용하여 내용도 어려워졌고 음악성도 세련미를 갖추면서 고급예술이 되었던 것이다.

신재효는 아전인 중인신분으로 한문에 능했고 판소리 이론가이면서 개작 또는 창작자이며 후원가다. 그는 양반에 버금가는 거부로서 고창일대의 경제권을 장악한 지배층으로 시단활동을 통해 표층적으로는 양반사대부들의 삶의 근간인 오류의 도덕적 유교이념을 지향하는 보수주의자이다. 그의 이러한 보수적 시각에서는 <배비장전>의 통속적인 서사가 충·효·열을 염두에 둔 양반의 미의식이나 이념과는 괴리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제주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와 결탁한 중인층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같은 중인 신분으로서 지방관으로 발탁되어 어쩔 수 없이 제주에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시 여건으로 비추어 그런 제주도에 가서 <배비장타령>을 고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물론 <배비장타령>은 <매화타령>¹¹⁴⁾이나 <왈자타령>과 함께 등장인물이 대체로 중부 지방의 관인(官人)과 시정(市井)의 유흥가를 배회하는 건달들인

113) 고연화, 앞의 논문, 6-10쪽.

114) <매화타령>은 <강릉매화타령>이라고도 하며 서울에 부모와 처자를 두고 시험공부를 위해 강릉책방으로 내려온 골생원에게 사또가 기생 매화를 보내는데, 골생원은 매화와 사랑에 빠지면서 정작 과거시험에도 소홀하고 양반으로서의 권위의식이나 정체성도 갖지 못한 채 당대의 몰락해가는 양반상을 그린 작품이다. 최혜진, 『판소리계 소설의 미학』, 역락, 2000, 298-306쪽.

점에서 서울 중심의 중부지역을 전승기반¹¹⁵⁾으로 삼고 있다. <배비장전>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남성 궤절담을 다룬 소설 유형¹¹⁶⁾은 대체로 조선후기에 등장한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민란으로 인해 왕과 조정은 세도가들에 의해 좌우되는 총제적인 혼란기를 겪으면서 개인적인 욕망과 공동체 윤리가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사회는 더욱 모순과 세도 정권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향전>, <지봉전>, <종옥전>¹¹⁷⁾, <오유란전>, <이춘풍전>¹¹⁸⁾, <삼선기>¹¹⁹⁾ 등은 이 시기에 등장한 소설유형들로 당대 사회의 향락적인 유흥문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불균형은 물론 성적 욕망의 적극적 표출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현실인식을 보여주었다. 전통윤리의 붕괴와 가치관의 혼란을 빚으면서 통속적이고 대중적

115) 정병헌, 『관소리와 한국 문화』, 역락, 2002, 42쪽.

116) 김종철, 「배비장유형의 소설연구」, 『관악어문연구』 제10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117) <정향전>에서 아우 세종에게 색을 멀리할 것을 다짐하고 평양 유람을 떠난 양녕은 자기 앞에 모습을 보이는 여자는 무차별 살해할 것이라고 공문을 띄워 보낸다. 이에 무료한 여객 생활에서 누려야 할 풍류를 염려한 세종은 양녕을 유혹하는데 성공한 수령에게 포상할 것이라는 다른 공문을 띄우게 한다. 정향은 평양감사의 명령으로 양녕의 침소 옆에 사는 수절하던 청상과부로 위장하여 접근한다. 이렇게 <정향전>은 정치적 권능을 지닌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담론이라면, <지봉전>은 학덕을 소유한 정신의 영웅을 유혹하는 담론이다. 효종이 총애하는 내관 김복상이 사사로이 궁녀와 정을 통한 것이 발각되자 이수광은 이들을 죽일 것을 주장한다. 효종은 이들을 유배 보내고 다시 궁으로 부르기 위해 꾀를 낸다. 성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이수광을 색향인 평양으로 파견해 놓고 기녀로 하여금 유혹하게 만든다. 이수광은 끝내 기생 백옥에게 궤절되고 만다. <종옥전>은 부모의 혼사 제의를 거절하고 학문에만 전념하던 고지식한 조카 김종옥을 시험하고, 성의 의미를 깨우쳐주기 위해 숙부 김성진이 파견한 기녀 옥향관이 종옥을 유혹하는 이야기이다. 윤채근, 「조선 후기 남성궤절 서사에 나타나는 색슈얼리티의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제42집, 2008, 58-63쪽 참조.

118) <이춘풍전>은 구성방식이 관소리와 깊은 관련이 있으면서 상품경제의 발달과 자본의 발달 등 근대화 이행기에 놓인 당대 세태를 그린 점에서 <무속이타령>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골계담으로 평양을 배경으로 한 전통적인 우부현녀담(愚夫賢女譚)의 변형이다. 처가에서 마련해 준 재물을 탕진하면서 기생에게 패가망신당하는 주인공 남성의 호색성과 우매함을 풍자하고 있다. 하지만 현명한 아내의 지략으로 남편과 기생은 응징되고 남편은 교정된 인물로 가정에 복귀한다는 내용으로 조선시대 말기 상황에 배태된 문제점과 그 여성인식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보수적이고 전근대적인 이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함으로써 관소리적 세계관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혜진, 앞의 책, 307-315쪽 참조.

119) <배비장전>과 <오유란전>의 경우는 여색을 지나치게 경원하는 도덕군자형 선비를 기생이 궤절하고 그 가식과 위선을 풍자하고 있고, <지봉전>은 여성 주도의 애정 긍정의 사고를 표방하여 중세의 애정금압에 대결함으로써 미미하나마 근대 지향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삼선기>의 기녀들은 봉건 신분사회의 잔재인 기녀제도에서 비롯한 양반과 기녀의 풍류 행태를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상업성 추구의 의도를 은폐하고 신흥교방의 세력이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기존의 기녀 수청 풍속을 정화한다는 미명하에 교방을 둘러싼 모가비와 기녀 세력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 것으로 이것은 조선후기의 신흥교방에 대한 시정의 부정적 시각의 단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삼선기>는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봉건사회의 신분적 노예에서 돈의 노예인 성상품화(性商品化)라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던 것이다. 조광국, 앞의 책, 142-143쪽 참조.

인 경향은 세속화된 인물을 통해 중세적 윤리에 기초한 이상적 관념을 중시하던 소설들이 대부분 중국과 같은 허구적 가상공간을 설정하는 것과 달리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였다¹²⁰⁾는 점에서 세태소설로 분류된다. 이들은 서사공간과 인물이 각기 다르면서도 비슷한 구조 속에서 세태풍속을 다룬 소설이라는 면에서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배비장전>은 서사적 공간 배경이 제주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제주에서 형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작품의 리얼리티를 위해 현실가능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배비장타령> 형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제주 판소리가 뿌리내리지 못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판소리의 기원을 전라도 지방의 서사무가에서 찾을 경우 서사무가의 발달이 활발한 지역으로 제주를 빼놓을 수는 없다. 전라도와 제주도는 뱃길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거리상으로 매우 가깝다. 제주의 서사무가가 전라도 판소리의 형성에 끼친 영향을 감안할 때 판소리 형성기인 매우 이른 시기에 존재했던 <배비장타령>이 제주와 어떻게든 연관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여기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판소리의 서사적 공간 배경이 제주지역이라고 해서 <배비장전>이 반드시 제주에서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구비문학으로서 판소리계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소설의 형성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구비 전승되던 <배비장타령>은 판소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소설화과정을 겪으면서 <배비장전>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신재효의 판소리에 관한 이론 정립은 판소리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의 소설에서는 판소리가 본디 지니고 있던 육담이나 육설 등의 거친 표현이 사라지고 한문 투의 고상한 표현으로 대폭 바뀌어 나타난다. 이는 중인신분이던 신재효의 상층 지향적 의식의 발로로 민중문학인 판소리의 발랄성이 상실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판소리는 원래 현장성과 즉흥성이 강한 장르이다. 강한영은 신재효가 사설을 정리하면서 통일성과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김홍규나 인권환은 발랄성과 현장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고, 서중문은 화석화되었다고 평가¹²¹⁾하

120) 이지하, 「고전소설에 나타난 19세기 서울의 향락상과 그 의미」, 『서울학연구』 제36호, 2009, 184쪽.

121) 김대형, 『우리 시대의 판소리문화』, 재관, 역락, 2001, 179-180쪽.

였다. 이것은 신재효가 판소리 연구사에서 큰 업적을 남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면서도 대상의 실상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퇴행적 개작으로 규정하고, 시장의 원리를 역행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신재효는 단가인 <오섬가(烏蟾歌)>를 통해 <배비장타령>의 건재함을 알리고 있다.

단가는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목을 푸는 소리로 허두가(虛頭歌)라고 불린다. 광대가 판소리를 부르기 전 준비 단계에서 단가를 불러 미리 목을 풀고 고르며 판의 정황과 청중의 수준을 파악하는 동시에 청중들의 시선을 집중시켜 소리판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최근에는 단가를 판소리의 하위 갈래로 보기보다는 영산(靈山), 타령(打令)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판소리보다 앞선 갈래 또는 대등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¹²²⁾

동일한 주제를 가지는 삽화를 진술자의 시각으로 병렬 시키는 전개 방식은 판소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옴니버스(omnibus) 형태로서 영화나 연극의 한 형식처럼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개의 독립된 짧은 이야기를 늘어놓아 한편의 작품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오섬가>는 까마귀와 두꺼비의 대화를 통하여 사랑과 슬픔의 진수를 여러 사건들과 구체적인 인물의 행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여러 사적을 앞에 제시하고, 한국의 것은 뒤에 한꺼번에 제시하였다. <오섬가>에서 제시한 사건은 순임금과 이비의 이별, 초패왕과 우미인의 이별, 한태조와 척부인의 이별, 한무제와 이부인의 이별, 왕소군의 슬픔, 양귀비의 죽음,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과 이별, 애랑과 정비장의 이별, 매화의 골생원 기롱 등이다. 춘향과 이도령의 성애이야기는 이별의 아픔을 강조하기 위한 전주곡이다. 골계적인 육체적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다룬 비장함이 확대된다. 애랑의 이야기는 애랑이 정비장과 이별하면서 정비장의 가면을 하나하나 벗겨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이러한 사건은 충격과 당혹감을 드러내고, 매화가 골생원을 기롱하는 장면에서 더욱 확대되어 신체적인 과다한 노출, 성적 유희, 외설담 등으로 나타난다.¹²³⁾ 이처럼 남녀 간의 만남과 이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

122) 김진영·이기형 교주, 『단가집성(短歌集成)』, 월인, 2002, 359-360쪽.

123) 위의 책, 166-169쪽.

면서 비장과 골계의 병치를 통해 판소리에서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주제에 맞게 장면을 극대화하여 보여준다. 따라서 신재효는 판소리의 관습적 미학에 충실하면 서도 실험적인 자세로 <오섬가>를 창작했던 것이다.

또 우술 일 잇는 거시 제주기성(濟州妓生) 익랑(愛娘)이가
정비중(鄭裨將)을 후리라고 강두(江頭)에 이별할 세
거죽 스랑 거죽 울음 두 발을 쭉버치고 두 주먹 불근 쥐고
가슴 쿵쿵 두다리며 엎퍼지락 잡바지락
흐도 통곡 우는 말이
나아리 써나신 후 천슈만흔 첩의 설움 엇지 할고 엇지 할고.
.....중략.....

이도저도 못할 테면 정이나 두고가오.
싱이스별 이 즈리에 정표도 아니호오
입으신 저 후리미 날 주고가오.
나아리 가신 후에 원앙침도 썰 더 업고 비취금도 썰 더 업니
후리미 흙속 덥고 이리 구을 저리 구을
나아리 품의 든든 그 안니 조리얏쇼.
정비중 허허 웃고 글하여라 버셔 주니
익랑이 밧다눓고 쯔쯔로 벗기기로
거죽울으 다시 울며 씨고가는 돈피휘장
넙고가는 양피빅즈 다 버셔 주고가오.
상스일엽(相思一念) 병이 되야 두통(頭痛) 나거들양
휘양을 물음씨고 비즈를 품의 안꼬
바들아운 양피로 젓가슴 몬질몬질
나아리 살결인지 그 아니 죠키얏쇼.
정비중 어이 업서 알뜰흔 정(情)이로다.
.....중략.....

후리매(두루마기), 돈피휘장(방한모), 철병장도(보검), 상투에 있는 밀화동곳, 압니 하나빼
어주오, 주장군,.....
이 소설 지은 거시 비유한 말이로다. 가마귀라 하는 이난 태양지저 해님이요. 두터비라

하는 이는 태음지정 달임이라, 칠정 중에 이 두 가지 특별히 기록하사 허실을 분각하고
포럼이 분명하니 남녀간 무론하고 이 소설 들은 후에 각기 알아 하옵시오¹²⁴⁾

위와 같이 <오섬가>에 나타난 애랑과 정비장의 이별 장면은 현전하는 <배비장전>의 전반부 내용과 동일하다. 한문야담에서는 간단한 줄거리 소개만 하고 배비장을 받치 모티프와 연결시켰던 것을 <오섬가>에서는 판소리계 소설에서처럼 정비장과 연결시키고 있다. 게다가 후리매나 돈피회장, 칠병장도 등 빼앗는 물건들도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배비장타령>은 19세기 중엽까지도 계속 불렸던 것으로 추정되며 신재효에 의해 단가인 <오섬가>로 개작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판소리가 갖고 있던 서민적인 발랄한 현실인식이 다소 약화되어 노래로 부르기보다는 읽는 독서물인 소설에 더 가깝게 변모되어 <배비장전>으로 정착하였다.

2. 종합예술로서의 배비장전

판소리는 ‘판’과 ‘소리’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여기서 ‘판’은 장면이나 무대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을 의미한다. 유흥을 위하여 마련된 공간은 놀이판이 된다. 나례, 중국 사신 영접 행사, 관야 행사, 과거 급제자의 축하잔치인 문회연, 마을 굿 등은 하나의 놀이판을 형성하였다. 이때 여러 종류의 연희가 벌어졌는데, 판소리, 땅재주, 검무, 줄타기 등이 그것이다. 판소리는 이러한 판놀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으로 후에 따로 떨어져 나와 독자적으로 공연하게 되었다. 판소리는 잡가, 타령(打令), 본사가(本事歌), 광대소리, 남도소리, 창극조, 가극(歌劇), 창악(唱樂), 창조(唱調), 극가(劇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지만 현재는 ‘판소리’라는 명칭이 일반적이다.¹²⁵⁾

이렇듯 판소리는 종합예술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판소리의 소리판을 구성하는 주체는 창자(唱者), 반주자(伴奏者), 청자(聽者)이다. 창자는 노래로 하는 창과 말로 하는 아니리를 번갈아 ‘소리’를 한다. 여기에 고수(鼓手)는 북으로 장단을 맞추

124) 김진영·이기형 교주, 앞의 책, 249-254쪽.

125) 전경옥, 『한국의 전통연희』, 학고재, 2004, 454-456쪽.

면서 추임새를 넣는다. 청자는 구경꾼이면서 추임새를 넣음으로써 비평자로서 제 몫을 담당하면서 공감하고 격려한다. 따라서 판소리는 여럿이 함께 동참하며 공유함으로써 판이 판다워지는데 이러한 어우러짐 속에서 놀이로서의 성격과 축제적 성격이 강한 종합예술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판소리가 언어문화이면서 음악 문화이고 또한 공연문화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종합예술로서의 성격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첫째, 판소리는 언어문화로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말하기방식을 통해 우리 말이 율문 작시법과 산문 표현법의 전형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노래로 하는 창 부분의 가사와 말로 하는 아니리 부분의 말을 두루 가리켜 ‘사설’이라고 한다. 창(唱)은 한 장면의 정지된 상태를 묘사하는 부분으로서 비극미를 연출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심리 고백적 대화 형태의 율문을 주로 사용하고, 아니리는 일상적 언어의 형태로서 사건의 연속을 서술하기 위해 골계미를 연출한다. 사건의 변화, 시간의 경과, 주인공의 심리 묘사, 작중 인물의 대화 등을 전달하면서 장면화(場面化)하려는 특징을 지니고 극적인 전개가 필요할 때에는 설명을 통해 연결한다. 숭고(崇高)한 것을 비속(卑俗)한 것으로 뒤집고, 슬픈 것을 웃음으로 뒤집는 전개가 흔한데, 부분의 독자성에 의한 갈등 및 설명과 장면 사이의 갈등으로 이러한 전개가 용이하고 풍부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양반적인 요소인 점잖고 교훈적인 문학이면서도 이를 뒤집는 풍자와 해학이라는 서민적인 요소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이것을 문체적인 면에서 보면 양반문학에서 빌려온 한시구(漢詩句)나 고사(故事) 등을 동원해서 규범적인 문장으로 장식하고, 반복, 과장, 언어유희, 욕설 등의 일상적 구어체로 특수한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¹²⁶⁾

각항(各項) 소설(小說)을 한 짐 가람이나 갖다가 노흐니

비비장 한 권식(卷式) 쏘아 들고 옛날 춘향(春香)의 랑군(郎君) 리도령(李道令)이 춘향(春香) 칭각하며 글 읽듯 흐것다 삼국지(三國志) 수호지(水湖志) 구운몽(九雲夢) 서유기(西遊記) 책 제목만 잠간식 보고 숙향전(淑香傳) 반(半)중등 짝 저치고 「숙향(淑香)아 불상흐다 그 모친이 리별홀 써 아가 아가 잘 잊거라 비곱흔 데 이 밥 먹고 목마른 데 이

126)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3, 157쪽.

물 먹고」 슈포동 룩립간에 목욕하든 그 녀즈 가는 허리 얼서 안고 마음디로 노라볼가
방즈눔 엽헤 잇다 하든 말이 나든 그 칙이 숙향전(淑香傳)으로 아랏더니 상푸등 슈포동
전(水布洞傳)이로구려 (58-59쪽)

위의 대목에서 보면 배비장은 방자가 가지고 온 소설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사건 전개와 합리정보보다는 이야기의 박진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감한 생략과 비약을 보여주면서 구어 중심의 이야기 어법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배비장전>에서 목사 일행이 제주로 떠나는 배 치장에 대한 물건들의 나열이나 정비장의 배짐물목 나열 또는 호방의 기생점고 대목 등 비슷한 사항들이 줄줄이 늘어놓는 병렬(並列)이 사설의 장형화에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둘째, 판소리는 음악문화로서 구성음과 선율의 형태 및 분위기에 따라 평조(平調), 우조(羽調), 계면조(界面調), 가곡성(歌曲聲), 평우조(平羽調) 등 다채롭게 세분화하기도 한다. 또한 창자의 목소리의 높이나 음의 질에 따라 그 특색이 다르고 창법에 따라서도, 심진강의 동서에 따라 또는 19세기 명창들의 창법에 따라 동편제와 서편제, 중고제로 나눈다. 재능 있고 개성적인 창자에 의해 새로운 음악이 생겨나기도 하고 색다른 사설로 변모되기도 한다. 또한 특정인의 장기에 해당되는 소리인 ‘더늠’이나 ‘바디’와 함께 음악의 전승 계보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렇듯 판소리는 고정불변이 아닌 꾸준히 살아 생동하는 특징적인 음악적 변화와 전승 계보를 나타내며 지속적인 발전¹²⁷⁾을 하였다. 반주자인 고수는 창자가 소리할 때 북으로 장단을 맞추어 주는데 빠르기에 따라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진모리, 휘모리, 엇모리 등이 있다. 이러한 고수의 고법도 창자의 창법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며 추임새를 넣는 등 즉흥적인 말로 분위기를 유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고수와 창자가 하나가 되어 판을 이루면서 매번 반주 때마다 한 편의 새로운 판소리 고법을 창작하는 고수의 역할을 강조하여 ‘一鼓手二名唱’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셋째, 판소리는 공연문화로서 연행(演行)은 매번 새로이 창조되기 때문에 일회적(一回的)이며 현장성이 강하다. 판소리 광대는 때나 장소에 관계없이 청자의 요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연행되었다. 농어촌으로 철따라 이동하면서 때로는

127) 김대행, 『우리 시대의 판소리문화』, 채판, 역락, 2001, 33-34쪽.

호의를 가진 부호나 양반들의 사랑을 찾기도 하고 과거 급제 축하연이나 회갑연 또는 관가의 연회 등 대중이 모이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적 구조를 기반으로 발전해 온 흥행적 성격이 짙은 대중문화였다. 양반의 상층 문화적 표현인 진지한 한문 투 명문·명시의 구절이 다수 등장하거나 정절의 표상을 그리는가하면 외설적인 장면이나 욕설, 비어, 속어 등 서민이나 천민의 하층 문화적 요소도 많았다. 이러한 흥행적 이중성은 다양한 계층의 기호에 영합하기 위해서 인간 삶의 양면성을 동시에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양면성은 단순한 기교 차원을 넘어 본질적인 인식의 반영으로 인간 개개인이 지닌 본연의 이중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경직된 영웅이나 일방적 바보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이웃 같은 인물을 통해 인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형상화하게 된다.

따라서 종합예술로서의 판소리문화는 연극과 음악과 서사문학의 중간에 놓여있다. 이는 연창자의 음악적 소양과 배우로서의 연기력을 통해 무대에서 그가 구성하는 허구의 세계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창자는 행위를 담당하는 배우, 사건의 서술자, 소리판을 이끌어 가는 연출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소리판의 사활을 좌우한다. 이에 신재효는 연창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인물치레, 사설치레, 득음, 너름새를 제시하였다. 인물치레는 천부적인 여건으로 청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존재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사설치레는 사설을 내용에 맞게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아니리를 실감나게 전달하는 능력을 말한다. 득음은 음악적 역량으로서 선천적인 목소리의 결함을 꾸준한 노력으로 극복한 명창을 높이 평가하였다. 너름새는 발림이라고 하여 사설의 내용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말한다. 창극으로의 전환기에 그 극적 성격 때문에 연기 능력은 더욱 강조¹²⁸⁾되었다.

(사) 누구셔 제주스비 타기가 어렵다 흐든고 지금 니가 실디(實地) 시험(試驗)을 흐여 보니 유쾌(愉快)흐기 혼량(限量)업다 (6쪽)

128) 정병헌, 앞의 책, 20-22쪽.

북당(北堂)에 학발량친(鶴髮兩親) 규중(閨中)에 홍안처즈(紅顏妻子) 천리도중(千里島中)
날 보니고 이제 올라 저제 올라 부귀환향(富貴還鄉)홀 줄 알고 날구일 기다릴 제 (8쪽)

<배비장전>에서 제주 목사로 부임하는 김경 목사 일행이 해남에서 제주로 가는 화려한 배 치장에 들뜬 마음으로 배를 타서 하는 말이 누가 제주배 타기가 어렵다고 허더냐 지금 내가 실지 타 보니 오히려 유쾌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배는 곧 거센 파도를 만나 고생하던 비장들은 신세한탄을 쏟아놓으면서 마치 <적벽가>에 나오는 군사들의 자탄사설을 방불케 한다. 또한 배비장이 목사의 권유에도 자신은 기악(妓樂)을 즐기지 않는다고 거절하자 이튿날 목사는 읍에 있는 기생을 다 불러 모은다. “호방(戶房)이 안책(案冊)을 드려 노코 글귀로 기생을 부르는디 대단 재미있는 모양이였다 만리화풍류엽(萬里花風流葉)이 소갑련쥬설향(小甲連畦雪香)이 오릉춘식도화(五陵春色徒花).....(35쪽)” 이와 같이 호방이 책에 적힌 기생 목록을 일일이 부르는 대목은 <춘향전>의 기생점고와 비교된다. 이처럼 <배비장전>은 판소리로 불리어진 다른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삼입가요도 발견된다. 이것은 판소리 사설의 문체적 특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소리는 하나의 공연예술로서 공연의 긴장성을 구축해 나아감으로써 예술로서 완성된다. 긴장과 이완의 반복적인 원리를 통해 광대와 고수와 청중이 서로 경계를 허물고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완성된다. 연극의 구조인 ‘도입-상승-절정-하강-결말’의 일회적 인과구조가 아닌 ‘긴장-이완’의 상승적 반복구조 속에서 공연이 이루어진다. 판소리 공연에서 완창(完唱)보다는 부분창의 전통적 관습은 판소리의 공연학적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소리는 공연자와 청중이 하나의 ‘장(場)’에 공존한다는 일체감을 형성하는 ‘흐름’생성의 원리로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진 구조화된 예술이 아니라 과정적 ‘생성’의 예술이다.¹²⁹⁾

이와 같이 판소리는 ‘판’이라는 일반적인 무대와는 다른 양상을 띤 연행의 장으로서 굿판에서 보이는 의례적 과도공간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성원들 사이의 교감과 어우러짐이 이루어지는 역동적 공간의 한국적 연행 양식의 한 특징으로

129) 김익두, 『판소리, 그 지고의 신체 전략』, 평민사, 2003, 178-181쪽.

소리판은 정형적인 구획이나 실감을 낳는 배경 장치, 소품 따위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연행자인 창자가 혼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관객들이 다 아는 뻔한 이야기를 연행을 통해 모종의 미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관객이나 고수의 반응인 ‘추임새’에 따라 적잖은 변수가 작용하면서 여러 요소가 역학관계를 통해 공간 구도가 형성되는 반구조의 연행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과도 공간의 역동적 자질이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판소리의 연행 공간에서와 비견될만하게 드러나는 것일까. 판소리 사설을 고스란히 옮긴 것 같은 서술이 주를 이루고, 상황에 따라 극적인 연행이 전제된 서술상황이 펼쳐지며, 그만큼 이야기의 순차적 흐름에 기대기보다는 극적 상황이 펼쳐지는 데 대응된 공간적 연출이 서술의 주제로 부각된다.¹³⁰⁾

목스(牧使) 허락하고 잇흔날 평명(平明)에 산유거행(山遊舉行) 츠리시니 위(威)의가 찬란(爛)하다

룡두(龍頭) 식인 규홍남여(朱紅藍輿) 호피(虎皮) 도듬 놓히 타고 전월 부월 습영 집스(執事) 순시령기(巡視令旗) 버려 세고 도로상(大路上) 나아갈 제 록의홍상(綠衣紅裳) 미식(美色)들은 백슈혼습(白袖丹衫) 놓히 들어 풍악(風樂)소리 화답하야 지야즈 지야즈 만슈화림(萬樹花林) 깃흔 곳에 꽃도 갖고 식도 갖다 한느산 중(中)턱에 올라스니 벽희(碧海)는 양양(洋洋)하고 대야(大野)는 망망(茫茫)이라 왕발(王勃)이 잇섯드면 각우쥬지무궁귀(覺宇宙之無窮句)를 등왕각(藤王閣)에 아니 쓰고 공부즈(孔夫子) 아섯든들 등티산이소턴(登泰山而小天下)를 이곳에 읊헛스리 다시 점점 올라가니 이도명춘(以鳥鳴春)으로 원갓 시 우름운다 뵈꼬리 고기고기 썩국시 썩국썩국 할미시 가불갑죽 접동시 으흥으흥 여긔셔도 꼬악 저긔셔도 프드득 백화산제백도(百花山啼百鳥)가 이 산에 모다 뵈엿다 (37쪽)

위의 대목은 목사가 배비장을 훼손시키기 위해 제주기생 애랑과 공모하여 한라산으로 꽃놀이를 가는 풍경이다. 나들이 나서는 목사의 화려한 행차의 과장된 면모가 두드러지며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서 새롭게 구성된 공간이다. 이러한 판소리 연창의 운율감이 배인 서술 양상을 통해 이야기의 역동성이 배가된다. 이는

130) 장일구, 『경계와 이행의 서사공간』,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100-106쪽.

문장체 소설의 문체와 다른 국면에서 소통의 서사공간을 조성한 결과이다. 소리 판에서 창우와 관객이 교감하여 어우러짐으로써 판소리 특유의 연행적 소통 공간이 구성된다. 글을 통해 기술된 서사체이지만, 저본(底本)이 판소리 창이라는 전제하에 소통의 서사 공간이 역동적인 모습으로 구성된다는 점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판소리계 소설 특유의 문체는 기술 텍스트를 통해서이지만 관객에 상응하는 독자로 하여금 소설로 펼쳐진 판에 어우러지도록 하는 서사 공간의 역학적 구성에 기여한다.¹³¹⁾

판소리 사설의 작자는 개인이 아니다. 판소리를 연창하는 개인은 창의적으로 사설을 구조화하면서 다양한 청중과의 대면을 통하여 그것을 수정하고 개편한다. 연창자는 청중과 직접 대면하면서 청중의 요구를 그 작품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아 소설로 정착된 작품이다. 따라서 판소리계 소설은 그 형성 과정에서부터 판소리 사설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판소리계 소설은 향유층과 작가 의식,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여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판소리의 구비문학적 성격이 판소리계 소설의 기록문학적 성격으로 변모되면서 부분보다는 전체의 논리적 결구가 강화되고 문자로 정착되면서 대체로 비속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향유층에 맞는 형태로 변화되면서 세태를 반영하고 풍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판소리의 포용성이나 개방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¹³²⁾

131) 위의 책, 108쪽.

132) 정병헌, 앞의 책, 24-29쪽.

V. 배비장전의 ‘문학/문화’의 스토리텔링

1. 음여도에 얹힌 제주풍속

이증은 1679년 겨울에 제주에 입도하여 5개월간 체류하다가 임무를 마치고 이듬해 4월에 떠났다. 그런데 그가 남긴 『남사일록』에 제주의 풍속과 관련하여 음여도(淫女島)¹³³⁾를 소개하고 있다. 추자 남쪽에 한 개의 돌 여[嶼]가 우뚝 솟아 있는데 그 이름을 음여도라고 하였다. 이 섬에 얹힌 이야기는 <배비장전>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정비장과 애랑의 관계를 연상케 한다. 음여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에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수가 곱이나 된다. 따라서 남편이 없는 자가 매우 많아 입을 것, 먹을 것이 극히 어려웠다. 매년 8, 9월이면 북쪽 땅 장사치들이 제주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제주의 유녀(遊女)들이 빗질하고 세수하여 얼굴을 다듬어서 포구에 모여서 바라보곤 한다. 맑은 날이면 멀리서 이 섬을 바라보면 돛을 편 큰 배 같기 때문에 여자들이 장사배인줄 잘못 알고 서로 돌아보며 기뻐하므로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그렇게 섬 이름을 붙였다. 또한 제주에는 관속(官屬)이 매우 적으나 두 관아를 받드는 외에 허다한 군관(軍官)들이 있다. 주직(廚籍)에도 분류할 수 없어 성 안에서 남편이 없는 자를 음녀(淫女)라고 불러 방비(房婢)로 정하여 나누어 준다. 지금은 그들 친근한 기녀(妓女)들을 방비로 삼고, 물을 길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맡으려 않고 다만 율기려고 서로 알려 음부(淫簿)에 끌려감이 날로 더하여졌다. 관원이 된 자는 다만 아무 생각 없이 그 더러운 풍속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따라 즐기면서 사환(使喚)으로 삼을 생각을 한다고 하니 참으로 해괴하다. 이는 제주의 남자들이 배가 가라앉아 돌아오지 못하는 자가 일 년이면 백여 명이나 되었다. 그 땅에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다. 시골의 여자는 짝 있는 자가 드물어 매해 3월이면 군을 지원하러 방수(防戍)하러 들어오는데, 여자들이 화장을 질게 하고 술을 가지고 와서 별도포(別刀浦)¹³⁴⁾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배가 포구에 들

133) ‘淫女島’와 ‘淫女’에 대한 한글표기는 역자의 표기에 따라 각각 ‘음여도’와 ‘음녀’로 표기하였다.

134) 별도포(別刀浦)는 화북포(禾北浦)의 별칭으로 ‘별스뒤((別刀) > 벚뒤 > 벼뒤(禾北)’로 표기된 것이다. 여기서 ‘별’은 ‘厓, 涯, 崖’로 물가의 언덕이나 벼랑을 의미한다. 제주의 지명에는 ‘伐, 畵, 星’으로 표기

어오면 서로 친근하게 술을 권하며 자기 집으로 맞아들인다. 8월에 방수를 마치고 가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쫓아와 보내게 된다.¹³⁵⁾

조선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산업의 발달로 빈번한 왕래가 이루어지면서 장시가 발전하고, 각종 물산이 모이면서 포구나 역참 가까이에선 객줏집이 들어섰다. 이들 객줏집에서는 술과 음식을 파는 주막이 본업이었지만 더러는 갈보라고 해서 매춘부 겸 작부를 두기도 하였다.¹³⁶⁾ 섬이라는 제주의 자연환경은 대체적으로 육지에 비해 척박할 수밖에 없었다. 섬사람들은 사나운 바다의 일기와 사투를 벌여야 했다. 제주 남성들은 표류하거나 침몰하는 등의 일로 일찍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에서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은 이미 거친 운명을 예고하는 일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수보다는 여자가 수가 훨씬 많았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부 여성들은 창기로서 육지에서 온 남자, 특히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을 유혹하여 자신의 생활방편으로 삼았다는 『남사일록』의 기록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다.

제주의 포구를 중심으로 육지에서 온 중앙관리와 제주의 창기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포구에서의 만남과 이별의 정을 나누었다. 포구에서의 창기들의 풍속과 관련하여 이증은 임제의 시를 소개하였다.

영랑곡(迎郎曲)

삼월 삼일 복숭아꽃 필적에	三月三日桃花開
구름 속 돛단배 조각조각 바다 건너오면	雲帆片片過海來
곱게 단장하고 별도포에 부드러운 웃음 흘리며	妍粧調送別刀浦
언덕 위엔 석양빛 소매를 나란히 하고 돌아가네.	岸上斜陽連袂歸

송랑곡(送郎曲)

된다. 별도봉 북쪽에 벼랑이 있는데, 화북은 ‘벼랑 뒤에 있는 마을’을 뜻한다. 『제주읍지』에 ‘주의 동쪽 10리에 위치하는 마을’을 ‘별도리(別刀里)’라 하는가 하면, 「탐라지도」, 「제주삼읍도총지도」 등 고지도에는 ‘別刀村’으로 표기하고 있다.

135) 이증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204-205쪽.

136) 안길정, 『관아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생활사』, 앞의 책, 130-132쪽.

조천관속 눈물 흘리며 수심에 눈 붉히는데	朝天館裡泣愁紅
벃사공 갈 길 재촉하여 자그만 배 정리하면	黃帽催行里短篷
동풍은 선녀의 원망을 아랑곳 않고	東風不道娘娘怨
푸른 하늘로 나는 듯 배를 불어 보내네.	吹送飛舟度碧空 ¹³⁷⁾

여기에서 별도포는 화북포의 다른 이름이고 조천관 역시 조천포구와 관련이 있다. 포구의 창기들에 대한 풍속은 이러한 한시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배비장의 휘절담과 연관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이별담이 화북진의 망월루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별도(別刀)’라는 명칭에서 사랑하는 청춘남녀의 이별에서 오는 단장(斷腸)의 슬픔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별도포는 별도오름의 북쪽에 벼랑이 있어 생겨난 이름으로 그곳의 포구를 가리킨다. 따라서 별도포라는 명칭은 사랑하는 청춘 남녀의 이별의 장소로서 지역의 환경적 요소가 특징적으로 드러난 어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주 풍속에 관한 이야기가 설화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소설로 정착되면서 어떠한 변화과정을 겪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음여도 이야기와 관련하여 II장에서 언급한 근원설화와 <배비장전>의 구조를 비교분석해 보겠다. 우선 제주 풍속과 관련하여 음여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제주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
- ② 남편이 없는 자는 생활이 어렵다.
- ③ 포구에는 장사치들이 드나든다.
- ④ 유녀들이 얼굴을 다듬고 음여도를 바라본다.
- ⑤ 남편이 없는 자를 음녀라 한다.
- ⑥ 군관들에게 음녀를 방비로 나누어 준다.

137) 이증은 자신도 임백호(林白湖)의 영송랑곡을 본떠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瀛洲三月好花開(영주의 3월 꽃 피어 좋은데)/ 兒女凝粧候客來(여자들 짙은 화장 손님 오기 기다리네)/ 盃酒情親笑語欸(술잔에 정을 주고 친하며 웃고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黃昏携手與同歸(황혼에 손잡고 함께 돌아가네)// 妾顏安保似花紅(첩의 얼굴 꽃같이 붉게 편안히 지내다가)/ 每向津亭泣去篷(매번 나루 정자로 가서 떠나는 배에 눈물짓네)/ 三月逢君八月別(3월에 님을 만나 8월에 이별하니)/ 自君之別霜闌空(그대와 헤어지고 나면 여자의 빈 방 차갑기만....). 이증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205-206쪽.

- ⑦ 기녀들은 어려운 일을 하려 하지 않고 다만 옮기려고 한다.
- ⑧ 관원은 더러운 풍속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 ⑨ 제주 남자들이 배가 가라앉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⑩ 짝 없는 여자들이 3월에 방수하러 온 남자를 유혹한다.
- ⑪ 8월에 방수를 마친 군관들과 이별한다.

여기에서 ①②⑨는 섬이라는 제주의 자연 환경에서 오는 특수한 상황을 말한다. 거친 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제주 남자들이 배가 가라앉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육지에 비해 생활이 척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생계를 책임져야 할 남자들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③⑩⑪을 통해서 포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즉, 포구는 타지에서 드나드는 남자인 장사치나 군관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이다. 여기에 ④⑤⑥⑦에서처럼 남편 없는 여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데 힘든 일보다는 쉬운 일을 선택하게 되면서 결국 몸을 파는 방비가 되는 것이다. ⑧에서는 관원들이 더러운 풍속을 고치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④⑦에서와 같이 어려운 일을 하려 하지 않는 여자들이 포구에서 음역도를 바라보며 장사치들을 신고 오는 큰 배로 착각하고 기뻐하는 모습과도 상통한다. 따라서 ⑥⑦⑧은 창기와 연관된 전형적인 모티프이고, ⑩⑪을 통해 제주의 포구에서는 남녀 간의 일시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모티프란 반복되어 나타나는 동일한 낱말이나 문구 또는 내용 요소를 말한다. 이는 특정 작품뿐만 아니라 특정 작가·시대·장르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작품의 주제를 구축하고 통일감을 주는 중요 단위라고 볼 수 있다.¹³⁸⁾ 가장 단순한 이야기(sequence)¹³⁹⁾ 단위로 베디어(Bédier)는 일정한 것과 변하는 것 사이의

138)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개정판, 민음사, 2001, 90쪽.

139) 하나의 서사 텍스트를 이루는 이야기 단위 중에서 장면(scene)이 있고 장면보다 조금 큰 단위로 에피소드(episode)가 있다. 에피소드보다 조금 큰 것은 시퀀스이다. 츠베탕 토도로프에 따르면 스토리라고 하는 서사물은 서사명제, 시퀀스, 텍스트라는 세 가지 층위의 서사 단위들로 이루어지는데, 시퀀스는 플롯의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시퀀스는 최소한 ‘안정-위반-불안-반작용-안정’이라는 5개의 서사명제가 있어야 한다. 이때 모티프는 처음의 안정에서 위반으로의 변화를 말한다. 즉, 이야기에서 위반을 일으켜 안정의 평형상태를 파괴하는 것이 모티프이다. 이인화, 앞의 책, 83-85쪽 참조.

관계에서 일정한 것을 요소(element)라고 했고, 베셀로프스키는 주제를 모티프의 복합체로 설명하면서 더 이상 세분할 수 없는 설화단위를 화소(motif)라고 했다. 프로프 역시 민담의 주인공들은 가지각색이지만 등장인물의 행동과 기능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주어진 기능(function)이 갖는 의미는 행위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¹⁴⁰⁾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는 가장 작은 이야기의 단위로서 기능요소와 모티프로 설명하겠다.

위의 음여도에 관한 내용을 핵심부분만 요약하면 남편이 없는 여자들이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포구에 드나드는 남자들을 유혹하여 정을 통하다가 때가 되면 이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요 기능요소를 추리면 ‘부재/결핍’, ‘미모/유혹’, ‘이별’로 나타낼 수 있다.

민담 기능요소	음여도
부재/결핍	① 제주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 ② 남편이 없는 자는 생활이 어렵다. ⑤ 남편이 없는 자를 음녀라 한다. ⑨ 제주 남자들이 배가 가라앉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모/유혹	③ 포구에는 장사치들이 드나든다. ④ 유녀들이 얼굴을 다듬고 음여도를 바라본다. ⑥ 군관들에게 음녀를 방비로 나누어 준다. ⑦ 기녀들은 어려운 일을 하려 하지 않고 다만 옮기려고 한다. ⑧ 관원은 더러운 풍속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⑩ 짝 없는 여자들이 3월에 방수하러 온 남자를 유혹한다.
이별	⑪ 8월에 방수를 마친 군관들과 이별한다.

<표 1> 음여도의 구조분석

140) V. Propp, 유영대 옮김, 『민담형태론』, 재편집, 새문사, 2013, 25-34쪽.

그렇다면 II장에서 언급한 근원설화들의 경우에는 어떤가. 우선, 발치설화로 언급한 『태평한화골계전』의 골계담과 『명엽지해』의 <명노추치>는 공간적 배경이 각기 계림과 함흥일 뿐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핵심부분만 요약하여 발치설화의 기능요소를 추리면 ‘미모/유혹’, ‘발치(신표로서 이를 뽑아서 줌)’, ‘이별’, ‘배신’, ‘반환 요구’로 나타낼 수 있다.

설화 기능요소	『태평한화골계전』의 골계담	명노추치
미모/유혹	계림에 사는 미모의 창녀가 소년을 유혹하였다.	최생이 함흥기녀에게 미혹되었다.
발치	소년은 앞니를 분질러 그 여자에게 주었다.	정표로 이빨 하나를 뽑아 기녀에게 주었다.
이별	창녀와 이별했다.	최생은 기녀와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렸다.
배신	창녀는 이별하자마자 다른 사람에게로 갔다.	기녀는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반환요구	종에게 앞니를 찾아오도록 했다.	종더러 이빨을 찾아오도록 했다.

<표 2> 발치설화의 구조분석

미귀설화는 『명엽지해』의 <기룡장백>, 『천예록』의 <제독라정출귀중>, 『동야회집』의 <차관출귀수라단>이다. 이들 역시 공간적 배경은 강원도와 경주이지만, 인물의 역할이나 내용면에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핵심부분만 요약하여 미귀설화의 기능요소를 추리면 ‘모의/변장’, ‘미모/유혹’, ‘훼손(毀節)’, ‘가짜남편 등장’, ‘입귀(入櫃; 알몸으로 몸을 껍데기에 몸을 숨김)’, ‘공안(公案)’, ‘망신’, 이별’로 나타낼 수 있다.

설화 기능요소	기룡장백	제독라정출케중	차관출케수라단
모의/변장	성종이 색을 멀리하는 벼슬아치를 관동방백으로 임명하고 원성목사에게 시험하도록 명하였다. 원성목사의 주도하에 기녀가 과부로 위장하여 일을 꾸민다.	경주 제독관으로 부임한 문관을 미워하던 부윤과 기생들이 모의하여 어린 기녀가 촌 아낙네로 변장한다.	기생을 멀리하는 경차관을 끌려주는 자에게 중상을 내리라고 하자 한 기생이 자원해서 촌부로 가장한다.
미모/유혹	기녀는 배로 방백을 유혹한다.	여자의 집에서 몰래 만난다.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한다.
훼손	기녀의 집에서 옷을 벗고 누웠다.	두 사람이 옷을 벗고 주웠다.	여인의 집에서 함께 눕는다.
가짜 남편	문밖에서 어떤 놈이 큰 소리로 꾸짖는다.	기녀의 남편으로 가장한 첩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남편으로 가장한 첩호의 목소리가 들린다.
입케	기녀는 사또를 장롱안으로 피하라고 한다.	기녀가 방안의 빈 케짝에 제독을 숨긴다.	여인이 이끄는 대로 벌거벗은 채 케속에 숨는다.
공안	장롱 속에 있는 옷을 빼앗기 위해 송사하러 장롱을 짚어지고 관아로 간다.	케짝소유권으로 다투다가 관아로 가지고 간다.	살림을 양분하면서 다투다가 케를 매고 관아로 간다.
망신	장롱을 열자 벌거벗은 남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엎드려 있었다.	케짝에 톱질하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벌거벗은 제독이 뛰쳐나와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민망해 했다.	케를 열어보니 하체를 가린 차관이 기가 죽어 있었다.
이별	안 나타남.	장옷을 걸친 채 그날로 제독은 달아나 버렸다.	여인장의를 입은 채 관소로 달려갔고, 그날로 달아나 버렸다.

<표 3> 미케설화의 구조분석

실사를 바탕으로 한 야담으로는 『어우야담』의 속이기 궤절담, 『천예록』의 <어사건궤등연상>, 『실사총담』의 <풍류진중일어사>는 모두 전주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 핵심부분을 요약하여 미궤설화의 기능요소를 추리면 ‘모의/변장’, ‘미모/유혹’, ‘궤절’, ‘잔치/망신’, 이별’로 나타낼 수 있다.

야담 기능요소	『어우야담』의 속이기 궤절담	어사건궤등연상	풍류진중일어사
모의/변장	여색을 멀리하는 포쇄별감을 부윤과 관관이 기녀와 공모해서 기녀를 소복한 여종으로 꾸민다.	기녀를 들이지 않는 어사를 감사와 부윤이 모의하여 기녀를 소복한 촌 아낙네로 분장시키고 어사의 눈에 띄게 한다.	순안어사를 유혹하기 위해 감사부윤이 기녀와 공모하여 기녀가 소복한 촌 아낙네로 분장한다.
미모/유혹	여인에게 반한 체세영은 몰래 여인을 불러 객사에서 밤을 샌다.	재색이 뛰어난 기녀가 어사를 관아 밖의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	어사가 기녀에게 매혹된다.
궤절	밤낮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기녀에게 빠져 매일 관아에 끌어들여 운우지정을 나눈다.	어사가 기녀의 거처에서 옷을 벗고 함께 잠자리에 들려고 한다.
잔치/망신	잔치에서 거문고를 켜는 기녀가 그녀임을 알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사는 연회에서 여장한 채 대숲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망신당한다.	어사는 잡회에서 노부의 변복하여 대숲에 몸을 숨겼다가 발각되어 망신당한 다.
이별	일을 마치고 우정에서 서로 작별하는데 눈물이 쏟아졌다.	다음날 어사는 떠나고 벼슬길이 막힌다.	다음날 어사는 길을 떠난다.

<표 4> 실사를 바탕으로 한 야담의 구조분석

이러한 제주 창기들의 풍속은 창기들이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외지에서 온 남자를 유혹해서 재물을 탈취하는 발치설화와 훼손담인 미케설화를 포함한 야담들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다만 발치설화는 ‘발치’라는 모티프가 핵심이 되어 ‘배신’과 ‘반환요구’가 뒤따르면서 해학적인 스토리가 되었다. 미케설화는 위선적인 벼슬아치의 훼손을 위해 모의를 통한 변장과 가짜남편, 입궐, 공안 등의 모티프가 삽입하면서 풍자적인 스토리로 발전하였다. 실사를 바탕으로 한 야담들에서는 대부분 훼손을 위한 ‘모의/변장’ 등의 모티프가 삽입하면서도 치아를 뽑는다거나 알몸으로 궐 속에 숨는다는 극단적인 방법 대신에 여자 옷으로 변복을 해서 대숲에 숨었다가 발각되는 정도로 그쳤다. 이는 현실에서 충분히 가능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제주 창기들의 풍속을 알려주는 음여도에 관한 민담은 줄거리가 거의 없고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만 전달할 뿐이다.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생계와 편안함을 위한 방편으로 육지에 서 온 남자를 유혹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떠나보낼 뿐 더 이상의 사건은 없다.

그렇다면 이번 논문에서는 <배비장전>의 핵심모티프를 추출하여서 제주의 음녀 내지는 창기들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애랑과 연관된 <배비장전>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김경 목사와 배비장이 제주에 간다.
- ② 포구에서 정비장이 물건들을 애랑에게 준다.
- ③ 정비장이 알비장이 된다.
- ④ 배비장은 구대정남으로 자처한다.
- ⑤ 방자가 내기를 건다.
- ⑥ 김경 목사와 애랑이 공모한다.
- ⑦ 애랑의 유혹에 배비장이 넘어간다.
- ⑧ 배비장이 망신을 당한다.
- ⑨ 배비장이 떠난다.
- ⑩ 배비장이 애랑과 결합한다.

⑪ 배현감이 된다.

①~③까지는 발치설화가 주가 되는 전반부이며, ④~⑨까지는 미륵설화가 주가 되는 후반부이다. 그리고 망신을 당한 후일담으로 ⑩과 ⑪이 덧붙여졌다. <배배장전>에서 애랑을 음여도에서 나타난 방비(창기) 곧, 음녀로 치부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음녀는 단순히 생계와 편안한 삶을 위한 방편으로서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포구에 드나드는 남자들을 ‘유혹’하였고, 때가 되면 ‘이별’을 했다. 하지만, <배비장전>에서는 정비장과 이별하는 애랑의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 즉, 포구의 여느 창기들과 비슷한 모습이다. 하지만 곧 정남을 자처하는 배비장을 ‘유혹’한다. ②③에서 정분을 쌓았던 정비장이 자신의 뱃짐을 풀어서 물건들을 주자 애랑은 한술 더 떠서 이별의 ‘신표(信標)’를 요구한다. 신표로 요구한 것들을 보면 우선 입고 있는 갓옷 두루마기, 돈피 위양, 금병도, 숙주창의와 분주바지, 고의적삼까지 몸에 걸친 모든 것들이다. 이것들을 차례로 주고 나니 정비장은 알비장이 되었다. 하지만 애랑은 그것도 모자라 신체의 일부인 상투, 앞니, 김삼불본에서는 주장군까지도 요구한다. 이는 애랑과 정비장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다. 애랑의 간특한 성격은 소활한 정비장을 철저하게 알비장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구경꾼들에게 해학적인 웃음을 유발하고 신분사회에 대해 날카롭게 풍자했던 것이다. ④⑤⑥은 구대정남을 자처하는 위선적인 배비장을 훼손시키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층민인 방자와 애랑은 그들보다 훨씬 높은 신분의 목사와 공모하여 배비장을 골탕 먹인다.

여기서 비장(裨將)은 양반 사대부계층의 바로 아래인 중인신분으로 사또를 돕는 관원이다. 조선 후기에는 지방수령들이 비장을 거느리는 것을 관례화하였다. 감사나 절도사 등은 수령에 대하여 연명(延命)¹⁴¹⁾의 예(禮)를 비장에게 대신시키거나 민정에 대해서도 염탐을 하게 했다. 이들은 사또와 결탁하여 민중들을 수탈하기도 하면서 신분상의 이중성을 지녔다. 위로는 집권층의 심복으로 비호를 받고 상관에게 충실하면서 고상한 유교윤리를 내세웠다. 아래로는 일반 백성들과

141) 조선시대에 감사나 수령 등이 임지로 떠날 때 闕牌 앞에서 왕명을 傳布하던 의식을 말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얹힌 신분으로 입신출세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온갖 비속한 행위를 일삼았다. 봉건해체기에 이러한 말단관리직이 늘어나면서 관인 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민중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면서 심각한 사회모순을 일으켰다. 따라서 지배계층과 민중들 모두에게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¹⁴²⁾

배비장은 정비장이 알비장으로 되는 과정을 보고 흥을 보다가 방자와의 내기에 걸려들었다. 김정 목사 역시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다. 때문에 자신과 함께 입도한 배비장이 구대정남을 자처하며 신참례에 대한 강한 거부를 보이자 위계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대개 관리들은 높은 자리일수록 수모를 두려워하고 이를 회피하려고 아랫사람들을 다루게 된다. 더구나 정비장의 행태로 보아 배비장도 언젠가는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 제주 백성들에 대한 수탈은 물론 기생에게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목사는 배비장의 위선을 꼬집기 위해 관기를 동원했다. 마침 정비장을 골탕 먹였던 전적이 있는 애랑이기에 스스로 정남이라는 배비장을 훼손시키는 일에 자원했다.

이와 같이 배비장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일이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다. 말하자면 ‘변장’, ‘입궐’, ‘공안’ 모티프가 개입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모티프들이 결합하면서 전체적으로 단순한 웃음을 주기 위한 해학을 뛰어넘어 비판과 비웃음이 섞인 풍자로 변형되었다. 즉, 애랑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일회성 노리개가 되었던 것이 아니다.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음여도의 설화에다 발치 모티프를 집어넣으면서 살을 붙이고, 해학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비장·양반·남성에 대해 조롱하고 풍자했던 것이다. 이는 관료·신분·성에 대한 차별을 의식한 엄연한 비판정신이자 도전의식의 표출이다. 후반부의 미케설화에서는 방자와 목사와 애랑 등 많은 사람들의 공모를 통해 배비장의 훼손과 망신이 치밀하고도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배비장전>과 더불어 지금까지 언급한 관련 설화들의 기능요소 양상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2) 고연화, 앞의 논문, 37-39쪽.

설화 기능요소	음여도	발치설화	미궤설화	야담	배비장전
부재/결핍	○				
미모/유혹	○	○	○	○	○
이별	○	○	○	○	○
발치		○			○
배신		○			○
반환요구		○			
모의/변장			○	○	○
훔칠			○	○	○
가짜남편			○		○
입궤			○		○
공안/잔치			○	○	○
망신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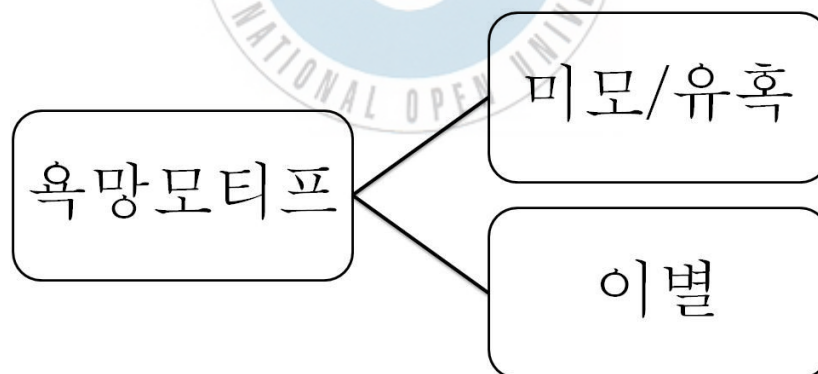
<표 5> 배비장전 관련 설화의 기능요소양상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음여도는 창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모티프들이 모두 들어 있다. 음녀는 남편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결핍)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하다. 하지만 자신의 미모를 통해 포구에 드나드는 남자들을 유혹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때가 되면 이별을 한다. 발치설화에서는 이미 기녀로서 자신의 미모를 통해 남자를 유혹하고 이별의 신표로 발치를 하지만 결국 반환요구에 있어서는 창기라는 신분적 특성이 배신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미궤설화에서는 색을 멀리하려는 관리를 끌려주기 위해 지방관들과 기녀가 모의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 없는 아낙으로 변장한다. 이는 음녀에서의 결핍과 부재의 기능이 미궤설화에서는 변장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기녀의 속임수에 유혹당한 관리는 기녀의 집을 찾아가 사통하면서 훔칠된다. 그때 갑자기 가짜 남편이 등장하면서 기녀는 별거뱌은 관리를 궤에 숨긴다. 이제 두 사람은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궤를 매고 관아로 찾아간다. 이렇게 공안모티프가 개입되면서 대중 앞에서 크게 망신을 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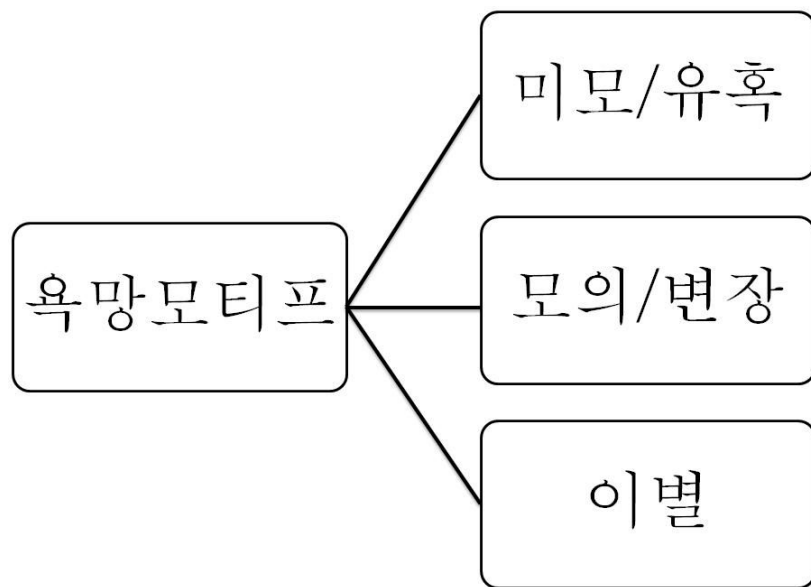
실사를 바탕으로 한 야담에서 모의를 통해 기녀가 변장하는 모습은 미궤설화와 비슷하지만 관리가 알몸으로 궤에 들어가는 대신 변복을 한다. 이것은 잔치에 가

기 위해 이미 기녀가 옷을 숨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녀가 원하는 대로 여장을 하고, 관아로 가서 대숲에 숨었다가 들키면서 망신을 당했던 것이다. 따라서 미궤설화에서의 공안모티프와도 상통한다. 잔치는 송사와 같이 대중이 모이는 행사이다. 결국 대중 앞에서 크게 망신을 당했음을 나타내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음녀를 포함한 제주창기들의 풍속담은 ‘부재/결핍’, ‘미모/유혹’, ‘이별’ 모티프가 결합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형성하였다. 여기서 ‘부재/결핍’은 음녀라는 명칭과 직접 상통하는 기능요소로서 미궤설화나 실사에 바탕을 둔 야담에서는 모의를 통해 과부나 소복한 여인으로 변장한 것과도 관련지을 수 있다. 남편이 없는 여인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부재’와 그에 따른 ‘결핍’은 조선시대 벼슬아치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연민의 정을 끌기에 좋은 기능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욕망모티프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생계를 위한 욕망 모티프로서 ‘미모/유혹’과 ‘이별’만이 남는다. 음녀와는 달리 자신만큼은 색을 밝히지 않는다는 허위의식과 위선을 비판하고 꼬집기 위해 ‘모의/변장’이라는 모티프를 삽입함으로써 풍자를 위한 욕망모티프가 형성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생계형



<그림 5> 풍자형

<배비장전>은 전형적인 풍자형 욕망 모티프를 지닌다. 지금까지 언급한 설화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기능요소들이 들어갔고 그만큼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음녀라는 명칭과 연관된 ‘부재/결핍’의 요소와 발치설화와 연관된 ‘반환요구’라는 기능은 사라졌지만 미모를 통한 여인의 유혹에 정남으로 자처하는 벼슬아치가 훼손되었고 그것은 애랑과 더불어 김경목사와 방자 등 관인들의 합동작전에 의한 모의였고, 애랑은 기녀가 아닌 규중의 아녀자로 변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반부의 발치설화는 정비장에 대한 애랑 개인 능력에 의한 웃음거리였다면, 후반부의 미귀설화는 배비장에 대한 다양한 신분의 여러 사람에게 의한 웃음거리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배비장으로서의 더 이상 제주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제주도민들의 비판의식과 냉소가 겹들여지면서 해학과 풍자적인 면이 더욱 강조되었던 것이다. 위에 소개된 설화가 모두 ‘미모/유혹’과 ‘이별’의 모티프를 지닌데 반해 <배비장전>은 그러한 보편적인 모티프에다가 좀 더 복잡한 기능인 발치, 알몸, 입궐, 내기, 공모, 변장, 가짜남편, 공안 등을 통해 풍자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속임수를 이용한 ‘재회’가 이루어졌다. 망신을 당한 배비장이 길을 떠나지만 결국 애랑과 만났고 목사의 배려로 신분상승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후일담을 통해 고소설의 전형적인 해피엔딩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현실이라면 공모하는 주체나 대상이 모두 상처를 입거나 떠나는 등 부정적인 결말로 끝을 맺었겠지만 고소설에서는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시키면서 공모의 주체나 대상 모두를 화해시켰다. 결국 해학적이며 풍자적인 면을 모두 드러내면서 고소설의 골계미를 최대한 끌어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제주도의 특수성과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사건과 인물과 배경이라는 구성 요소를 지니며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는 사건의 시간적 연쇄로 기술된다.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진술이 지배적이다. 발터 벤야민은 이러한 스토리의 특성에 대해 정보와 비교하여 정리하였다.¹⁴³⁾

첫째, 스토리는 먼 곳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비일상적인 일을 자신의 일처럼 느낀다. 따라서 자신이 접하는 스토리로부터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길 원한다.

둘째, 스토리는 듣는 이의 기억을 유도한다. 어떤 감정의 경험을 기억해서 회상하도록 한다. 때문에 지식을 기억하는 정보나 학문과는 달리 열광적이고 감정을 개입시켜야 하는 가능성과 가치의 세계와 연관된다.

셋째, 스토리는 생명력이 길며 유용하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이지만 거짓과는 다르다. 따라서 실제에 대한 보다 진실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스토리는 사건, 사물과 함께 그것을 체험한 사람의 흔적을 전달한다. 화자(話者)는 이야기를 성립시키는 변형의 주체로서 초점화자와 목소리를 나타내는데, 이는 사건을 보는 자와 사건을 이야기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모든 스토리는 선행하는 사건 혹은 텍스트를 모방하고 변형하면서 생성된다.

그렇다면 <배비장전>에서는 제주의 특수성이 어떻게 스토리텔링 되었을까. 오

143) 이인화, 『스토리텔링진화론』, 해냄, 2014, 15-28쪽 참조.

랜 세월동안 제주라는 지역이 쌓아온 특수성은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으로 표출되었는지 인문학적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는 제주가 지닌 특수성이 텍스트 속에 어떻게 반영되었고 변형되었는지 살피는 작업이다.

제주는 섬 지방이다. 섬이란 자연환경은 폐쇄성을 지닌다. 제주는 폐쇄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과의 소통이 느리다. 그런 면에서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다. 제주는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신화가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신화의 고장이다. 신화는 현실에서 좌절된 염원을 상상의 세계에서나마 희망으로 바꾸어 꿈을 꾸게 한다. 설문대할망 신화에서 육지와의 다리는 제주도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상징적 화소이다. 자연환경이 경제적 자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에 제주도민은 오래 전부터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가야 했다. 육지와의 연결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풍요로 나아갈 수 있었던 길을 모색했던 것이다. 결국 그 꿈은 좌절되었다. 이는 현실적 한계 상황의 반영으로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빈번히 나타났다. 독립국 탐라(耽羅)가 중앙의 고려 정부에 복속되면서부터 생긴 좌절, 지방관들의 탐학에 대항하여 일으킨 민란들은 이를 대변하는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신화는 삶의 고통을 보듬어 주던 제주도민의 집단 의식이다.

탐라국의 건국신화는 삼성신화(三姓神話)로 고양부(高梁夫) 삼성의 성씨시조신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원초적 종교인 무속의 산물인 삼성신화는 본래는 무당들이 빌고 굿을 하던 광양당신(廣壤堂神)이었다. 1526년(중종 21) 제주목사 이수동(李壽童)에 의해 모흥혈 옆에 단을 쌓고 삼을나의 자손으로 하여금 매년 제향을 올리게 하였다. 1786년(정조 108) 제주목사 이명준(李命俊)이 임금에게 올린 장계에 의하면 삼성의 시조가 광양당에서 무속제의로 모셔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고려와는 달리 강력한 유교 이념을 중앙 집권체제로 삼던 조선은 각 지방의 무속을 정비하면서 유교적 통치로 지방을 장악해나갔다. 무속을 탄압하기에 앞서 토호세력을 유교적 가치체제로 끌어들이면서 중앙의 양반과 유사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지원¹⁴⁴⁾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 토착세력의 독자성은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144) 이영권, 『새로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49쪽.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 「산수(山水)」 편에 “한라산 북쪽은 제주읍이다. 옛 탐라국으로 신라 때 복속되었다. 원나라에서 방성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하여 목장을 만들었고, 지금도 좋은 말이 생산된다. 제주읍 동쪽과 서쪽에 정의(旌義)·대정(大靜) 두 고을은 풍속이 제주와 대략 비슷하다. 목사와 두 고을 수령이 예부터 본토에서 왕래하였으나 풍파에 표류하거나 빠져죽은 일이 없고, 또 조정에 벼슬하던 사람이 여기에 많이 귀양 왔으나 역시 풍파에 떠밀리거나 빠진 일이 없었다. 이것은 왕의 덕화가 멀리 미쳐서 온갖 신이 받들어 순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⁴⁵⁾ 이중환은 풍파에 표류하거나 빠져죽은 일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조선시대의 표류기를 보면 먼저 성종 1년(1470) 8월 김배회 등 7명이 제주에서 공물을 싣고 서울에 도착하여 일을 마치고, 귀향하다가 큰바람을 만나 13일을 표류하다가 중국 절강성에 도착하였는데, 조선 사람임을 밝히자 북경으로 압송했다가 이듬해 중국 황제의 생일 축하차 온 성절사를 통해 돌려보내주었다. 성종 8년(1477) 2월에는 감귤을 진상하러 가던 배가 추자도에 이르러 14일째 표류하다가 일행들이 죽고 김비의 등 3명만 살아남아 윤이섬에 도착하여 살아났고, 다른 몇 개의 섬들을 경유하며 세월을 보내다가 유구국에 이르러 마침내 2년 만에 울산염포를 통해 조선에 돌아올 수 있었다. 성종 18년(1487) 제주추쇄경차관으로 부임했다가 이듬해 부친상을 당해 돌아가던 중 중국에 표류한 내용을 적은 최부의 <표해록>, 중종 34년(1539) 강연공 등 19명이 진상감귤을 수송하기 위해 출항하였다가 일본으로 표류하여 이듬해 조천포로 입항한 사실을 기록한 <일본 표류기>, 숙종 13년(1687) 김대황 등 20여명이 진상마를 싣고 출항했다가 추자도 앞에서 표류하기 시작하여 안남국까지 가게 되었고 이듬해 12월에 서귀포에 귀환한 <표해일록>, 영조 47년(1771)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로 가다가 유구국에 표류한 기사를 적은 제주사람 장한철의 <표해록> 등이 있다.¹⁴⁶⁾ 이렇게 제주를 오가는 배들은 항로를 이탈하여 중국, 일본, 유구국(오키나와), 안남(베트남)에까지 표류하기도 하였다.

145) 신정일,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다음생각, 2012, 30쪽.

146) 김봉옥·김지홍, 『옛 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연합 제주도지회, 2001 참조.

표류에 관한 제주지역의 이러한 열악한 환경적 요소는 표류에 관한 신화와 설화로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탐라의 개국 신화에 등장하는 벽랑국의 세 공주는 목함을 타고 표류해 들어와 제주에 문명을 전한 것으로 『고려사』에 기록되었다. 고대 사회의 개국시조에 대한 설화로서 삼성신화는 제주도의 개벽설화로 오랜 시간 동안 자연적, 인문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 면면히 구전되어 왔고, 각종 문헌에 기록으로 남았다. 금백조 여신은 제주도 당신앙의 총본산으로 북제주 구좌읍 송당마을의 본향당신이다. 문명세계인 강남 천자국에서 태어났으나 제주로 표류해 와 사냥으로 살아가는 원주민 남편을 만나 정착하면서 농경시대를 열고 마을을 일군 강인한 개척자 정신을 가진 여성 신이다. 이외에도 어부들에게 풍요와 구원의 신으로 신앙되는 영등할망 등 제주의 무속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이 표류를 통하여 제주를 오가고 그를 통하여 오랜 세월동안 구전되어 각 마을마다 신당과 그 신들의 내력이라 할 수 있는 당본풀이로도 전해 내려왔다. 제주도에 널리 퍼져 있는 뱀신앙, 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칠성본풀이, 토산당본풀이, 차귀당본풀이 등 모두 제주도에 표착적인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에서 왔다. 민요와 더불어 제주인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이어도에 대한 전설 등 제주도에 다른 지방보다도 풍부한 신화와 전설이 남아 있다.¹⁴⁷⁾

그렇다면 ‘탐라’라는 명칭은 언제 생긴 것일까. 탐라가 제주로 이름이 바뀐 것은 고려 고종 10년(1223)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석익의 『탐라기년』에 우리나라 방언에 도(島)를 섬이라 하고 국(國)을 나라(羅羅)라 했다. ‘탐’은 ‘섬’과 비슷한 소리가 나므로 탐라는 ‘섬나라’이다. 주(州)는 ‘큰 고을’로서 제(濟)를 붙여서 제주(濟州)는 중앙이나 육지 관점에서 본 이름으로 ‘큰물을 건너는 큰 고을’로 한반도로부터 바다 건너에 있는 중요한 행정구역을 의미¹⁴⁸⁾한다. 독립국으로서의 전통을 담은 이름인 탐라는 결국 국가 권력뿐 아니라 명칭마저도 독자성을 상실해서 한나라의 주요 행정구역으로서 그 위상이 격하되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결국 ‘제주’로 확정되었던 것이다.

고려시대 고종 18년(1231) 몽고 침입이 시작된 이래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147) 국립제주박물관 편, 『항해와 표류의 역사』, 솔, 2003, 26쪽,

148) 이영권, 앞의 책, 72쪽.

무인정권은 강화도에서 붕괴되어 개경으로 환도 했지만 삼별초(三別抄)는 몽고에 의 복속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일어나면서 강화도에서 진도를 거쳐 제주까지 배후기지를 확보하였다. 제주에 항과두성과 해안을 따라 환해장성(環海長城)을 구축하면서 여몽군의 제주 상륙에 방어태세를 갖추었지만 결국 붕괴되었다. 이후 원은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한반도와는 달리 직접 관리하였다. 충렬왕 20년(1294)에 다시 고려에 반환되었지만 토착화한 몽고세력을 중심으로 목호(牧胡)의 난이 야기¹⁴⁹⁾되었다.

<배비장전>서두에 제주의 위치와 제주의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있다. 옛 사람들이 제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호남좌도(湖南左道) 제주군(濟州郡)은 동(東)으로 일본해협(日本海峽)으로 서(西)으로 조선해협(朝鮮海峽) 연화부슈(蓮花浮水) 형국(形局)으로 남해(南海) 중(中)에 돌출(突出)하니 그(其) 중(中)에 한라산(漢拏山)은 도내(島內) 제일(第一) 명산(名山)이요 탐라(耽羅) 고국(古國) 주봉(主峰)이라(중략).....

(비) 소조(小子)가 팔도강산(八道江山) 명구승지(名區勝地)를 낫낫히 보았스되 제주(濟州)는 도중(島中)이라 시하(侍下)에 이측(離側)키 어려워서 지우금(至于今) 못 갖더니(중략).....

(디) 제주라 하는 곳이 육로천리(陸路千里) 수로천리(水路千里) 이천리(二千里) 원정(遠程)에 날 바리고 네 갖다가 불행(不幸)이 내 죽으면 종신(終身)도 못하리니 부디 단념(斷念) 가지 마라 (1-2쪽)

호남(湖南)은 조선시대 주로 쓴 전라도의 별칭으로 금강이남 지역을 말한다. 고려 초 성종 14년(995)에 지금의 전라북도 지역을 강남도(江南道), 전라남도 지역을 해양도(海洋島)라 하였다가 두 지역을 합하여 대표 고을인 전주와 나주의 이

149) 목호(牧胡)의 난은 ‘오랑캐(胡)로서 말을 키우던(牧) 이들이 일으킨 난’이라는 의미이다. 공민왕의 반원정책에 대항하면서 명나라의 개입과 말(馬) 문제까지 겹치면서 결국 1374년 최영 장군이 이끄는 대규모 정예병에게 진압 당했다. 제주 고유의 풍습 중에는 몽고에서 비롯된 것이 흔하게 남아 있다. 100년이란 긴 세월동안 몽고의 지배하에 있던 제주도에는 원나라와 관련된 성씨는 물론 조랑말의 다양한 명칭과 방목기술뿐만 아니라 생활풍습인 애기구덕이나 허벅 같은 것도 몽고의 유산으로 남아 있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 국립제주박물관, 2005, 50-52쪽, 이영권, 앞의 책, 90-98쪽 참조.

름을 따 전라도(全羅道)라 칭하게 된 것은 1018년의 일이다.¹⁵⁰⁾ 제주는 동쪽으로는 일본과 서쪽으로는 조선 해협을 사이에 두고 물위에 뜬 연꽃처럼 남해에 돌출한 섬으로 한라산은 옛 탐라의 명산이라고 하였다. 배비장이 자신의 가족한테 명승지인 제주도에 가고 싶어도 섬이라 가지 못하다가 이번에 다행히 친한 양반이 제주목사로 부임되어 가는 길에 비장으로 다녀오게 되었다고 통보한다. 하지만 가족은 거리가 멀어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 가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제주는 풍광이 뛰어나긴 하지만,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가기가 쉽지 않은 곳임을 알 수 있다. 배비장은 팔도강산 명승지라는 곳은 낱낱이 보았지만 섬인 제주를 가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라도 친한 양반과 함께 비장신분으로 가게 되었으니 다녀오겠다고 가족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제주에 대한 인식을 문헌에서 찾아보면 관광차원에서는 다소 긍정적일지라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이 강하다. 제주의 대표적인 유배인 추사 김정희는 유배 시절 그의 벗인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곳의 풍토와 인물은 아직 혼돈 상태가 깨쳐지지 않았으니, 그 우둔하고 무지함이”라고 하면서 일본 북해도의 야만인과 같다고 폄훼하였다. 또한 16세기 제주에 유배했던 충암 김정은 『제주풍토록』에서 “글을 아는 자가 매우 적고, 인심이 거칠다”, “염치와 정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라고 해서 제주에 대한 비하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것은 중앙 지식인 입장에서 유교 이념에 부합되지 못한 변방의 미개한 지역에 불과했던 제주도민에 대한 상대적인 우월의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중앙으로부터 멀고 먼 유배의 땅이기에 피하고 싶은 곳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려 의종 7년(1153) 제주에 지방관이 처음 파견된 이래 중앙의 양반들은 어쩔 수 없이 제주에 들락거렸다. 이들 중에는 제주도의 빈약한 경제력이나 낙후된 문화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좌천으로 받아들이거나 권력투쟁의 장에서 반대파를 밀어내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고,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육로와 해로를 이용하는 일이 자칫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더더욱 회피했던 것이다. 따라서 병을 핑계로 일부러 부임하지 않거나 부임했다가도 곧바로 사직하여 제주를

150) 『전남향토문화백과사전』, 전라남도·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2002, 1146쪽.

벗어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¹⁵¹⁾

(실) 제주(濟州)는 도중(島中)이나 물식(物色)이 변화(繁華)하야 자리(自來)로 식향(色鄕)이라 만일 그곳 가섯다가 주식(酒色)에 몸이 잠겨 회정(回程)치 못하오면 부모(父母)에게 불효(不孝)되고 처자(妻子)에게 못홀 닐 두루 가(可)치 안스오니 심량조처(深諒措處) 하옵소서 (3쪽)

그(其) 중(中)에도 김경(金卿)이라 하는 량반(兩班) 문무(文武)가 겸전(兼全)하야 십오(十五) 세(歲)에 생원(生員) 진스(進士) 이십(二十) 전(前)에 장원급제(壯元及第) 초임스(初入仕)에 한림주서(翰林注書) 순차(順次)로 리조옥당(吏曹玉堂) 승지당상(丞旨堂上) 방백(方伯)으로 제주목사(濟州牧使) 도입(到任)길을 써나라고 육방소임(六房所任) 선택(選擇)할 제 서강(西江) 스는 백선달(裴先達)을 장목(將幕)으로 급(急)히 불너 례방소임(禮房所任) 맞기시니 (1-2쪽)

위의 대목에서 배비장의 아내는 제주가 오래전부터 색향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남편이 홀로 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주변에 관기들이 있으니 외로운 처지의 남편이 여색에 쉽게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김경 목사는 문무를 다 갖춘 능력 있는 양반이다. 15세에 생원 진사에서 장원급제하고 초임벼슬에 한림주서(翰林注書) 다음으로 이조옥당(吏曹玉堂) 승지당상(丞旨堂上) 방백(方伯)으로 제주목사¹⁵²⁾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수령이 파견된 지방행정의 중심지에는 읍성(邑城)이 있었는데 읍성 안에는 민가보다 크고 화려한 행정관청이 있다. 수령이 큰

151) 이영권, 앞의 책, 158-160쪽.

152) 조선은 건국 초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정책을 펴면서 전국을 8도로 나누어 각 도마다 관찰사(감사)를 두고 그 밑에 부(府)·목(牧)·군(郡)·현(縣)을 두어 각각 부사·목사·군사·현감을 파견하였다. 제주는 당시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제주목사, 정의현감, 대정현감을 지방관으로 두었다. 목사는 본래 정3품 중에서도 당하관인 통훈대부(문관)나 어모장군(무관)이 파견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제주는 당상관 통정대부(문관)와 절충장군(무관)이 파견되었다.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기 때문에 전라도 관찰사가 제주를 관할하기가 어려운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제주목사에게 그만큼 높은 품계의 당상관을 파견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왜구가 지나가는 길목이라 문관목사를 파견하게 되면 반드시 부관 격인 판관(중5품)에 무관을 임명하는 등 문무를 겸비했다. 이들을 ‘사또’ 혹은 고을 ‘수령’이라 하는데 이들의 임기는 본래 60개월(5년)로 가족이 동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제주와 북쪽 변방 등은 거리가 멀어 가족을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30개월(2년 6개월)로 조정되었다. 조선의 제주목사는 모두 286명인데 평균 재임기간은 대략 1년 10개월에 불과했다. 이영권, 위의 책, 164-167쪽.

무하던 정청인 동헌, 국왕의 위패를 모시고 공무의 여행자를 맞이하던 객사(客舍) 등이 있었다. 객사는 국왕의 친정(親政)을 상징하는 건물이고 부임한 지방관은 제일 먼저 이곳에 찾아와 예를 올렸다. 제주목사가 근무하는 관청에는 ‘서울을 향해 바라보는 누각’이란 이름의 망경루(望京樓)가 있고, 조천포구에는 ‘북쪽을 사모하는 정자’인 연북정(戀北亭)이 있다. 이는 서울인 북쪽에 있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로 돌아갈 궁리만 하던 중앙 양반들의 생각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명종 10년 정월, 실록에는 제주의 백성들이 제주목사의 탐욕보다 차라리 왜노(倭奴)에게 죽겠다고 하는 원망이 들어있고, 인조 12년 9월의 기사에서도 탐라 지역은 무부(武夫)의 이권 챙기기 소굴이 된지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그만큼 조선후기 민란 중에서도 제주의 민란은 강력하고 빈번¹⁵³⁾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세기 조선의 민란은 제주에서도 치열했다. 흥경래의 난(1811년)이 진압된 후 불과 2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순조 13년(1813)에 양제해(梁濟海)의 모변사건을 맞게 되었다. 1862년 임술민란은 진주뿐 아니라 북부지방에서부터 제주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체에서 일어났다. 1898년 방성칠 난은 남학당이라는 종교집단이 핵심 역할을 하면서 일어난 민란이다. 이외에도 1901년 이재수의 난도 있다. 이는 천주교의 교세확장과 그에 따른 폐단 및 조세수탈의 원인이 되어 일어난 20세기 초 민란이다. 이렇게 19세기 제주 지역의 민란은 본토의 민란과 유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특이한 성격을 지녔다.¹⁵⁴⁾ 변방의 섬 지방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과거의

153) 위의 책, 162-163쪽.

154) 양제해(梁濟海)의 모변사건은 제주목사와 관관, 현감 등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을 모두 제거하고 제주만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계획했지만 내부 밀고자에 의해 모두 검거되었던 사건이다. ‘풍헌’이란 직책을 맡고 있던 양제해 등은 하급관리로서 부패한 지방관들에 의해 언제라도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는 향리직을 놓고 인사부조리와 관련된 지방권력 간의 갈등양상을 띠면서도 과거 독립국이었던 탐라국을 재현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임술년 제주의 3월 민란은 제주도민의 생계와 직결된 갓 양태 산업과 연관된 사건으로 관가에서 양태의 원료인 대나무를 마구 베어내자 제주 민중이 이에 항의했다. 가을에 일어난 민란도 모두 화전세(火田稅)의 과다 징수가 발단이 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본래 제주는 토지가 척박하여 곡물이 잘 자랄 수 없었기 때문에 토지세가 없고, 대신 말이나 미역 등의 특산물을 진상하도록 하였었다. 중산간 지대는 고려시대 몽고의 지배 이후 목마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제주의 백성들은 부족한 농토를 점차 넓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후 조총의 등장은 기마전술을 무력화시켰고 그에 따라 말의 가치도 폭락하면서 제주 목장지대의 가치도 하락하게 되었다. 목장 지대 안으로 경작지가 확장되면서 불법으로 개간한 화전들에 대해서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세금을 걷고자 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불법을 묵인한 대가로 엄청난 액수의 장전세(場田稅)·화전세를 징수하게 되면서 민란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방성칠 난은 유·불·선과 민간 신앙을 포괄하면서 후천세계와 개벽을 기치로 내세운 면에서 동학농민전쟁과 비슷

탐라국 재현이라는 기치아래 봉건 지배질서에 대한 모순과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사회 및 경제적 조건에 대한 저항의식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배비장전>은 민중의 저항의식을 대변하는 풍자소설이자 당대 관인사회의 향락문화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세태소설이며, 민중의 답답함을 기지와 웃음으로 풀어주고 달래주는 해학소설이다. 그리고 중세적 질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새로운 현실 인식을 통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통속적이고 자극적인 향락문화를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따라서 대중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대로 제주라는 공간은 최적의 장소였을 것이다. 관광을 최우선 목적으로 했던 배비장이 제주에 첫발을 디디면서 목격한 정비장과 애랑의 이별 장면은 또 하나의 향락문화로서 볼거리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삼사년의 채류기간에 정분을 쌓았던 두 사람이 더 이상 만남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만한 곳이 없다. 그만큼 오가는 여정이 힘들기 때문에 헤어짐도 뼈아픈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 애랑이 거짓울음을 울지만 정비장은 그런 애랑의 겉모습에 진심을 다해 대응해주었던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보면 분명 애랑의 행동이 부도덕하지만 정비장이 애랑에게 주는 뱃짐물품들은 사실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약탈한 것이나 다름없이 공납(貢納)으로 바쳐지는 물건들이다. 자신의 애인을 위해 그것들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는 것은 정비장이 이미 비도덕적인 인물임을 역설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한라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애랑은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정비장에게 빼앗겼던 제주의 물건들을 도로 찾는 과정 속에서 정비장의 신체까지 요구하였던 것은 결국 중앙관리에 대한 단죄의식의 한 상징이면서 민중의 저항의식의 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면에 민중들은 두 사람의 이별 장면에서 제주도박이 애랑의 지혜와 간교에 박장대소를 하며 통쾌했을 것이다.

북당(北堂)에 학발량친(鶴髮兩親) 규중(閨中)에 홍안처조(紅顏妻子) 천리도중(千里島中)
날 보내고 이제 올라 저세 올라 부귀환향(富貴還鄉)홀 줄 알고 날구일 기다릴 제(중략)

한 성격을 지녔지만 역시 탄압을 받았다. 제주 목사로부터 환곡의 폐단을 없애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으면서도 공염불일 뿐 오히려 주도자인 방성철을 잡아들이려고 군졸들을 풀었다. 민란은 더욱 거세졌고 조세거부에서 벗어나 독립국가의 건설이라는 정치 변혁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유배정객을 끌어 들이면서 봉건 지배층의 교란술책에 빠져 쉽게 진압되었다. 위의 책, 262-272쪽 참조.

나는 형세(形勢) 가난(艱難)하야 밥거리나 옷자 하고 처주(妻子) 권면(勸勉) 듯지 안코
천리원정(千里遠程) 썩나더니(중략)

나는 집이 다동(茶洞)이라 형세는 유여(裕餘)컨만 년근오십(年近五十) 반백자(頒白者)로
환로(宦路)에 천(薦)을 못 더 초스(初任)하나 옷드라고 위험(危險)함을 무릅쓰고 천리타
향(千里他鄉) 썩나더니 (8-9쪽)

나는 형세가 가난하여 제주가 양태 소산이라 양태동이나 얻어다가 가용에도 쓸 것이요.
우리 마누라 속것이 없어 한 벌 얻어 입힐가 하고 나왔더니 (김삼불본, 20쪽)

위의 대목에는 도입하는 목사일행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 겪는
고초 속에서 각각의 비장들의 신세한탄과 그들의 제주도에 가는 목적이 나타나
있다. 어떤 비장은 부귀 환향을 위해, 어떤 비장은 너무 가난하여 밥거리나 얻자
고, 어떤 비장은 오십 다되도록 벼슬하지 못해 벼슬이나 한자리 얻어 볼까 해서
동행했던 것이다. 김삼불본에서는 ‘제주가 양태 소산이라’는 대목에서 제주의 특
산물인 양태를 통해 가게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험한 뱃길을 마다하
고 출발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비장은 임시직으로 목사나 절도사 등 집권층이 특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세도정치가 낳은 권력 집중화 현상 속에서 뇌물로 관직을 사고파는 일이 흔
했는데, 이들은 그 보상을 위해 힘없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갖은 횡포와 수
탈을 일삼았던 것이다. 배선달은 아는 양반을 통해 비장이 된 것이다. ‘선달(先
達)’이란 무과에 급제한 사람으로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이
다. 그렇다면 한량(閑良)이던 배선달이 직업을 얻고 명승지인 제주까지 관광한다
는 것은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다행이(다행히)’라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이 친(親)흔 량반(兩班) 제주목스(濟州牧使) 제슈(除授)되야 도입(到任)길 썩나면서
비장(裨將)으로 가즈하니 한번 다녀오올이다 (2쪽)

신관 스도 신연 절충 맞친 후에 각방 소임 현신 맞고 다담상 털상하니 희는 발서 서산
(西山)에 썩러지고 달은 다시 동령(東嶺)에서 돛아 올라 청풍명월(淸風明月) 선화당(宣化

堂)에 티평괴상(太平氣像) 완연(宛然)하다 모든 비장 숙소(宿所) 각각(各各) 정(定)한 후에 명기명창(名妓名唱) 서로 골나 청가묘곡(淸歌妙曲) 질기는데 (33-34쪽)

(목) 너의 여러 기싱 중에 비비장을 훌훌게 해야 웃게 하는 존 있게 되면 중상(重賞)을 줄 거시니 주가 능(能)히 거행(舉行)하겠느냐 (36쪽)

이러한 사정으로 제주도에 도착한 이들은 화려한 그들의 행차가 제주도민에게 끼친 영향을 어땠을까. 온종일 이어진 신관사또 신연 절차가 끝나자마자 첫날밤부터 기생들을 끼고 앉아 즐기는 향락문화가 하나의 관례로서 행해졌던 것이다. 목사의 첫 업무역시 친한 비장이 동료 비장들을 속이면서까지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자 기생들에게 배비장을 훼손시키면 중상을 내리겠다고 했던 것이다. 스토리 전반에 걸쳐 비록 배비장이 실제로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여러 비장들의 행태로 비추어 보면 그의 위선과 훼손로 인해 흠을 드러내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할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관료사회의 이러한 신참례를 겪으면서 결국 현감으로서의 신분상승은 물론 애랑과 더불어 부귀를 누리면서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고소설의 전형적인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표면적인 화해와는 달리 작품에 내재된 제주도민들의 분노가 제주도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풍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제주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신화로나마 상상의 세계에서 희망을 꿈꾸었다. 조선후기에 사회적 현실에 대한 민중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발생한 판소리가 제주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풍자와 해학을 통해 시원하게 풀어냈을 가능성이 있다. 섬나라인 독립국에서 육지에 복속된 일개 군으로서 중앙에서 온 지방관들의 탐학에 시달리면서도 대항하고 민란을 일으키는 등 개혁을 꿈꾸는 집단적 저항의식이 <배비장전>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다.

제주지역은 아직까지 판소리가 뿌리내리지 못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하층민에 대한 착취가 심했고, 탐관오리 등 아전계층의 부정부패가 심했던 지역이다. 판소리는 장시의 형성과 관련이 깊다. 도시문화가 형성되면서 상업이 발달

해가던 시기에 물산이 풍부한 지역에는 사람이 모여야 장시가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사람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판소리이다. 시장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계층은 관아의 아전, 통인 등 중인계층으로 관아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상가가 형성되었고 장시가 열렸다. 중인들은 허가를 빌미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배비장전>은 이러한 중인계층을 풍자한 작품으로 민중은 노래로 밖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제주의 관아 관덕정 주변은 지금도 동문시장, 서문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이다. 그만큼 판소리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 전라도 서사무가와 연관 있는 판소리가 섬이기에 제주지역만 빼고 유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라도와 제주도는 해로를 통해 얼마든지 왕래했고, 그 과정에서 영향관계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아직까지 판소리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서사무가와 민요는 풍부하게 남아 있다.

한편 <배비장전>이 제주지역에서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주에 대한 배경지식이 풍부한 작가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리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지금에 와서 <배비장전>이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세태소설이라는 측면에서 김정 목사나 비장들이 서울양반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서울에서 만들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다만 구비 전승되던 타령을 기반으로 판소리계 소설이 만들어졌음을 감안할 때 거리상으로 쉽게 오갈 수 없는 제주도에 대한 지적호기심과 명승지로 알려진 관광차원에서의 대리만족을 위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제주기녀 형과 애랑 캐릭터 창조

제주 여성은 강한 생활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생활 곳곳에 스며든 신화에도 반영되어 제주의 많은 신들은 대개 여신이다. 주인공이 본래는 남아였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 여아로 태어났다는 식의 유교적 이념에서 변형된 경우도 있지만 원

형적 신화는 여아가 훨씬 더 많다. 이원진의 『탐라지』(1653년)에는 “바닷길이 험하고 멀어 표류로 침몰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여자 낳기를 중히 여긴다.”고 하는 구절이 있다. 표해록에는 제주에는 남자의 분묘는 아주 적으며 여염(閭閻)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세 곱이나 많다고 했다. 부모는 딸을 낳으면 효도할 것으로 믿지만 아들을 낳으면 고래와 자라의 먹이가 되는 걸 걱정할 정도였다. 김상헌의 『남사록』에는 성(城) 안의 남정(男丁)은 5백이고, 여정(女丁)은 8백이라고 했다. 여기서 여정은 제주에만 있는 말로 남정이 귀해서 성을 지키려면 건장한 부녀자를 골라 여정으로 삼았다.¹⁵⁵⁾

<배비장전>에서는 옛 탐라국인 한라산의 정기를 받아 애랑이가 태어났다고 했다. 김삼불본에서는 비록 애랑이가 천한 기생으로 태어났지만 영웅으로서 갖춰야 할 미모와 지혜가 뛰어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스토리의 영웅적 기질을 갖춘 여주인공임을 암시하고 있다.

산정신수(山精神水) 정기(精氣)로 애랑(愛娘)이가 생겨났다 (1쪽)

할라산(漢拏山)은 옛적 탐라국(耽羅國) 주산이요 남방도중(南方島中) 제일명산(第一名山)이라 험건하고 수려한 정기(精氣)가 어리어서 기생 애랑(妓生愛娘)이가 생겨났다 보더라.

애랑이가 비록 천기(賤妓)로 낳일망정 색태(色態)는 월서시(越西施) 양태진(楊太眞)을 압구하고 지혜는 남자로 말하면 진유자(陳留子)에 나리지 아니하고 간교(奸巧)는 구미호(九尾狐)가 환생하였던지 호색남자(好色男子)가 열켜 들면 상토 끝까지 빠져 허덕허덕하는 터일러라. (김삼불본, 13-14쪽)

본래 기생(妓生)은 전통사회에서 잔치나 술자리의 흥을 돋우기 위해 제도적으로 존재했던 특수직업 여성으로 관청에 소속된 관기(官妓)와 창가(娼家)에 소속된 사기(私妓)로 분류된다. 이들은 제도적으로 관청에 소속되었고 신분상으로는 천민이다. 기녀((妓女)는 의약(醫藥), 침구(鍼灸), 재봉(裁縫), 가무(歌舞) 등을 배워 익

155) 이증 저·김익수 역, 앞의 책, 50쪽.

하던 조선시대 관비(官婢)를 충칭하던 말이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기생이 양수척(揚水尺)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양수척은 유기장(柳器匠)으로서, 고려가 후백제를 칠 때 가장 다스리기 힘들었던 집단으로, 소속도 없고 부역도 없었다.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버드나무로 물건을 만들어 팔고 다녔는데, 남녀노비로 읍적(邑籍)에 오르게 되면서 용모가 고운 여자를 골라 춤과 노래를 가르쳐 기생을 만들었다. 기(妓)와 비(婢)는 원래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녀의 발생을 무녀(巫女)의 타락에서 찾는 견해도 했다. 고대 제정일치사회에서 사제로서 군림하던 무녀가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기생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이다.¹⁵⁶⁾

이처럼 기생에 대한 유래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기생은 한번 기적(妓籍)에 오르면 천민이라는 신분적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나라에서 별도로 받는 녹(祿)도 없었다. 조선사회에서 양민도 못되는 이른바 팔천(八賤)의 하나였던 이들에게 위안은 양반의 부녀자들과 같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었고, 직업적 특성상 사대부들과 자유연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사적으로 양반의 사연(私宴)에 불려나가거나 암묵적으로 개인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다행히 고관대작의 첩으로 들어가면 친정을 살릴 수 있었지만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이별과 배신을 되풀이해야 했다.

이러한 기녀제도로 인하여 풍속이 깨뜨려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자 조선시대 내내 기녀혁명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관리는 가솔을 데리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기녀가 동원되었고 때문에 지방에 나가서 기녀를 가까이 하였던 일이 밝혀져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다.¹⁵⁷⁾ 본고에서는 실사에 바탕을 둔 『어우야담』의 속이기 훼손

156) 일제 강점기에 이능화는 『조선해어화사』(1927)에서 기생의 기원이 신라 중엽이라고 하였다. 『삼국사기』의 신라 진흥왕대에 '원화(源花)를 바치다'라는 기록을 통해 원화를 기생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원화는 화랑(花郎)을 가리키는 말로 화랑은 신라 귀족 계급의 자제들로 구성된 청년들이다. 따라서 이능화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 川村濤, 유재순 역, 『말하는 꽃 기생』, 소담출판사, 2002, 33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464쪽.

157) 1519년(중종 14) 지방의 기녀 풍속을 정화하기 위하여 특별단속이 내려졌던 때의 일이다. 포사관(曝史官) 채세영이 성주에 내려가 사고(史庫)를 점검하면서 숙소에 기생을 들이지 말라고 엄히 명령했지만 지방관인 목사 김우는 기녀 송두추(勝杜秋)로 하여금 천침을 들게 하였다. 이후 정이 깊어졌는데 조정에 돌아가려고 하는 날 송별연에서 채세영이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중앙의 기생 제도의

담을 소개한 바 있다.

제주관아의 기녀에 대한 문헌으로 이형상의 『남환박물』에 의하면 당시 제주목의 관비는 83명, 그 중에 기생이 66명이다. 또한 기생과 창녀들 사이에 조금 넉넉한 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는 등 조선 최고의 수준인 평양기생을 방불케 한다며 화려한 옷맵시와 더불어 풍류가 세련되고 화려하다고 하였다. 이원진의 『탐라지』에 교방(敎坊) 장춘원(藏春院)은 신과원(新果園) 서쪽에 있는데, 곧 기생이나 악공이 음악을 익히는 곳으로 기생은 관비 중에서 제주와 용모가 뛰어난 자를 올려서 정밀하게 골랐다고 적혀있다. 장춘원은 현재 관덕정 동북향으로 제주목 관아의 좌위랑(左衛廊) 자리이다. 교방에서 기녀들이 학습하였던 것은 기녀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예절, 기예 등이었다.¹⁵⁸⁾ 성읍에서 기녀들이 불렀던 창민요(唱民謠)에는 남녀상열지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가사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짙은 농도의 성문화의 중심에는 기녀들이 있었다. 연례행사 중 제주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은 봄맞이 행사인 정의현청의 ‘정소암 화전놀이’¹⁵⁹⁾이다. 묵사는 물론 현감 등 권력층 선비들이 봄이 오는 정소암 계곡으로 모여들었다. 평양기생 뺀치는 맵시와 기예로 풍류의 한마당을 펼쳤다. 평양기생은 풍류, 남도기생은 소리(唱)와 같이 주특기가 있었는데 『남명소승(南溟小乘)』에는 제주기녀들이 별방진의 백사장에서 뛰어난 승마술(乘馬術)을 선보였다고 하였다. 영조 때 제주에 유배인을 호송하여 왔던 의금부도사 신광수(申光洙) 역시 풍량이 심해 제주에 40여일 머물면서 읊은 시집인 『탐라록』에 명월진의 성 위를 달리는 기녀를 보며 지은 시가 있고, “제주 관기는 말을 능숙하게 조련할 줄 안다.[官妓能調馬]”고 하면서 감탄했다.¹⁶⁰⁾

혁파의지와 지방의 기녀풍속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방의 기녀풍속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조광국,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2000, 50쪽 참조.

158) 김순이, 「제주기녀, 또 하나의 제주여성」, 『제주여성사 I』, 앞의 책, 383-384쪽.

159) 정소암(鼎沼岩)은 조선말 성읍리 영주산 기슭의 천미천 계곡에 있던 가마술 형상의 못을 말한다.

160) 제주기녀에 관해서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21년(세종 3) 사헌부에 올라온 장계에서 정의현감 이첨(李첨)은 제주의 관기를 사랑하여, 관처의 물품을 도둑질하여 주었고, 또 사사로이 무역을 하기 위하여, 나주에서 상선을 보냈다가 풍량을 만나서 20여명을 물에 빠져 죽게 했다. 『남사록』에는 관기를 끼고 깡패나 무뢰배처럼 권력을 남용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제주목의 군관들에 대한 폐단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묵사는 일도(一島)를 전제하기 때문에 주인들은 ‘사또’라 칭하고 군관은 ‘영 비장’이라 칭하며 세력이 수령을 누르고, 권력이 별성과 대등한데, 변란 후로부터 대(帶)가 늘어 4~50

경직된 유교이념의 양반관료 사회에서 기녀들은 철저한 희생양에 불과했다. 이들은 대개는 성을 빼고 이름만 불렸다. 하지만 제주기녀들 중에는 민초(民草)와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애로사항을 항상 자신의 일처럼 염려하고 해결해 주었던 신격화된 인물도 있다. 기생 만덕도 이름만 부르다가 최근에 와서야 성을 붙여 ‘김만덕(金萬德, 1739-1812)’으로 불리고 있는데, 본래는 양갓집 딸이었다. 김해 김씨로 부친은 김응열(金應烈)이고 어머니는 고 씨이며 형제는 삼남매였다. 오빠 김만석(金萬碩)은 후손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온다. 만덕이 이름이 알려진 것은 제주의 흉년 때문이다. 1792년 이래 계속된 흉년과 태풍 피해로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죽었다. 이년 후 제주목사인 심낙수(沈樂洙)가 9월 17일과 10월 23일에 연달아 구휼미 2만 섬을 조정에 요청했고, 그 뒤 심낙수가 다시 어사로 제주에 파견되어 올린 보고서에 “올해의 심각한 흉년은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정도의 큰 재변”이라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795년 조정에서는 5천 섬의 구휼미를 또 내려 보냈는데 쌀을 실은 배 열두 척 가운데 다섯 척이 난파했다. 제주인 변경봉(邊景鵬)의 글에 1795년 제주도에 몰아친 폭풍과 폭우로 인해 당시 10만 명이었던 인구가 3만 명으로 줄어들 만큼 기근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때 만덕이 육지에서 쌀을 사들여 친척들을 구휼하고, 관가에도 보내어 굶주린 백성들은 구휼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만덕의 덕을 칭송하였던 것이다.¹⁶¹⁾ 당시 영의정이

명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들은 무뢰장패가 아니면 작은 도둑이거나, 간사한 소인의 무리가 많아서 각각 관기를 끼고 빈손으로 부를 도모하여 육방을 분장하여 다 주관하면서 공갈, 책망, 뇌물 등으로 군민의 원한을 사거나 괴롭힘이 심하였다. 성윤문(成允文)은 1599년(선조 32)에 제주목사로 임명되었는데 판관 이정생(李挺生)과 기생을 두고 다투어 도민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지탄을 받은 일이 발생하였다. 판관은 도입한지 1년 만에 파직되었고, 성윤문도 도입 3년 만에 파직되었다. 1694년(숙종 20) 이익태(李益泰) 목사는 『지영록(知瀛錄)』에서 제주에는 관노비의 수가 많은데 비(婢)인 경우, 모두 기안(妓案)에 입적되어 있다며 기녀에 관해 자세히 기록하였다. 출중한 기녀의 경우, 목사의 수청 외에 세 고을 수령과 교수, 아객(衙客), 군관, 삼학(三學)이 각기 기녀 한사람을 끼고 첩으로 삼아 동거하는 일이 있는데 역을 면하고 한가히 놀면서 총애를 받고 방자하여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고 정령(政令)에 폐를 끼치고 있으니, 제주목관아의 실상은 기녀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세상에서 제주 기녀의 권세가 막중하다고 하는데 빈 말은 아니라고 하였다. 위의 책, 395-406쪽 참조.

161) 이면승(李勉昇)의 『만덕전』에 “사해(四海)가 모두 내 형제다. 하물며 같은 섬사람 아닌가. 재물이란 외물(外物)이다. 모이고 흩어지는 때가 있다. 내가 어떻게 수전노가 되어 굶어 죽는 이들을 뺏아먹게 보지만 하고 구휼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 『일성록』의 기록을 보면 1796년 6월 6일에는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굶주린 백성을 진휼한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 제주목사 유사모(柳師模)의 보고서에 의하면 의연금을 낸 사람은 대체로 전직 관료들인데 그 가운데 노

었던 채제공(1720-1799)도 『만덕전』을 지었고, 이가환(李家煥)도 만덕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다. 이렇게 수많은 명사들에게 시와 문장을 선물 받은 만덕은 그것들을 모아 시문집을 만들면서 정약용에게 발문¹⁶²⁾을 부탁했다. 만덕은 1812년 10월 22일 74세에 사망했으며 “행수내의녀김만덕지묘(行首內醫女金萬德至妙)”라는 비석이 세워졌다.

이런 만덕의 행적에 대해서 정반대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심노숭(沈魯崇)은 1794년 제주목사로 재임 중이던 아버지(심낙수)를 뵙기 위해 제주에 가서 몇 달 동안 머무르면서 제주사람들로부터 만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글로 남겼다. “만덕이 기생 노릇을 할 때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하여 남자가 돈이 많으면 따랐다가 돈이 떨어지면 떠나되 옷가지마저 빼앗아서 그녀가 지닌 바지저고리가 수백 벌이었다. 그 바지를 늘어놓고 햇볕에 말리는 것을 보고 동료 기생마저 침을 뱉고 욕했다. 욕지에서 온 장사꾼들 가운데 만덕의 탓으로 패가망신하는 이도 많았다. 그렇게 벌어서 만덕은 제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음식을 구걸하는 형제도

기(老妓) 만덕이 자원하여 정조(正祖)300석을 납부했고 남들처럼 조정에 요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가볍게 여길 줄 알았으니 비천한 사람으로서는 더욱 하기 힘든 일을 했다고 적고 있다. 정조는 이에 이조원에게 지시를 내려 천민 신분을 면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노고에 보답할 다른 일을 하든지 소원대로 시행한 뒤에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7월 28일에는 노기 만덕이 육지로 나가고 싶다는 소원에 대한 제주목사 유사모의 보고에서 만덕은 늙고 아들이 없으므로 면천(免賤)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단지 육지에 나가보기를 소원한다고 했다. 이에 정조는 만덕이 재물을 흠여서 여러 차례 주린 백성을 살렸는데도 상을 받길 원치 않고 바다 건너 상경했다가 금강산을 보는 것 뿐이라고 했으니 비록 천한 자이나 의기가 옛날의 매서운 협객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하며 허락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정조 임금이 초계문신(抄啓文臣)의 친시(親試)와 갱시(更試)의 시권을 평가했는데 친사에서 『만덕전』을 지으라고 했다. 임금이 한 여자의 전기를 시험문제로 출제한 것은 파격이었다. 이 시험에서 서준보가 삼상(三上)의 평가를 받으며 수석을 차지했다. 신정일, 앞의 책, 177쪽, 안대회, 『조선을 사로잡은 끈들』, 한겨레출판, 2010, 122-125쪽 참조.

162) 발문에는 삼기사회(三奇四稀)라고 하여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에 대해서 적혀 있다. 기생이 과부로 남아 수절한 것, 기꺼이 많은 돈을 희사한 것, 섬에 살면서 산을 좋아한 것이 ‘삼기’이고, 여자로 겹눈동자를 가졌으며 천민의 신분으로 역말을 타고 왕의 부름을 받은 것, 기생으로 승려를 시켜 가마를 내게 했고, 외지 섬사람으로 내전(內殿)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것을 ‘사회’라고 하였다. 한양에는 만덕이 겹눈동자를 가졌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 이는 눈 하나에 눈동자가 두개 들어 있는 것으로 중국 고대의 성인인 순임금과 중국 대륙을 놓고 유방과 싸운 영웅 항우가 겹눈동자이다. 즉 성인이나 영웅의 상징으로 박제가와 조수삼은 그녀가 겹눈동자를 지녔다며 특이한 용무를 부각시켰다. 박제가는 전생에 부처의 마음과 신선의 용골이 있어 만덕이 그런 용모를 지녔다고 예찬하였다. 다만 정약용은 만덕을 불러 진위를 가리면서 「겹눈동자의 변증(중동변;中瞳辨)」이란 글까지 썼다. 만덕조차 스스로를 겹눈동자를 가졌다고 믿었지만 다른 사람의 눈동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돌보지 않았던 만덕은 제주에 기근이 들자 곡식을 바쳐서 한양에 이르고 금강산을 구경하고자 했다. 여러 학사들은 만덕의 호탕한 말에 넘어가 전기를 지어 그녀를 칭송했다.”¹⁶³⁾ 이 글은 지금까지 알려진 만덕의 행실을 완전히 뒤집었다. 기부과정을 문제 삼고 거부가 치부과정에서 자행한 불법과 추악한 행태는 예상 밖이다. 물론 이와 같이 소문과 실상이 완전히 어긋난 것은 전기를 지어 만덕을 칭송한 이들이 정조임금과 남인들이었고, 심노승은 노론시파로서 당론에 철두철미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로 그 의문이 사라질까.

제주사람들에게 출륙금지령은 1629년(인조 7) 8월에 내려졌다.¹⁶⁴⁾ 제주도는 예로부터 삼재도(三災島)라 할 정도로 수재(水災), 한재(旱災), 풍재(風災)를 많이 겪었다. 그것은 자연환경으로부터 오는 재해였다. 한라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어 홍수가 나고, 돌이 많고 토질이 척박하니 가뭄이 들고, 태풍이 잦았다.¹⁶⁵⁾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에는 제주의 땅은 척박하고 백성들은 가난하다고 하였다. 화산섬인 제주는 바닥이 현무암층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물이 고이지 않는다. 때문에 논농사를 지을 수 없다. 또 화산회토의 푸석함과 바람이 많아 파종이 쉽지 않아 밭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게다가 조선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모든 행정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제주에는 토착민을 대변하는 토관(土官)¹⁶⁶⁾이라는 제도를 두긴 했지만 이들은 중앙에서 온 수령들을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과 결탁하여 온갖 비리와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중앙관리와 토관세력의 이중적 지배구조 속에서 제주도민들의 고통은 더욱

163) 안대회, 앞의 책, 135쪽.

164) 제주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유리(疏離)하여 육지의 고을에 옮겨 사는 관계로 세 고을들의 군액이 감소되자 비변사가 도민의 출입을 엄금할 것을 청했다. [濟州居民流移陸邑, 三邑軍額減縮。備局請嚴禁島民之出入, 上從之。]

165) 김봉옥, 앞의 책, 15쪽.

166) 태종 4년(1404) 4월 21일의 기사를 보면 제주(濟州)의 토관(土官)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토관의 칭호를 고쳐, 동도 천호소(東道千戶所)를 동도 정해진(東道靜海鎭)으로 하고, 서도 천호소(西道千戶所)를 서도 정해진(西道靜海鎭)으로 하고, 도천호(都千戶)를 도사수(都司守)로 하고, 상천호(上千戶)를 상사수(上司守)로 하고, 부천호(副千戶)를 부사수(副司守)로 하고, 도지관(道之官)을 도주관(都州官)으로 하고, 성주(星主)로 도주관 좌도지관(都州官左都知管)을 삼고, 왕자(王子)로 도주관 우도지관(都州官右都知管)을 삼았다.”[辛卯/改濟州土官號: 以東道千戶所爲東道靜海鎭, 西道千戶所爲西道靜海鎭, 都千戶爲都司守, 上千戶爲上司守, 副千戶爲副司守, (道之官) [道知官] 爲都州官。以星主爲都州官左都知管, 王子爲都州官右都知管。]

클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제주는 지리적 위치가 왜구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구들은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 지역으로 제주를 선택해서 끊임없이 침입했다. 좁은 땅에 인구는 적고 방어시설의 강화에 따른 군포 징수에 대한 부담과 부역에 대한 고통은 심각했다.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산물과 공물을 진상하는 부역층을 마련하였는데, 이른바 6고역(苦役)이다. 목자역(牧子役), 과원직(果園直), 선격역(船格役), 답한역(番漢役), 포작역(鮑作役), 잠녀역(潛女役)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통을 피해 육지로 달아나버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조선중기에 이르러 군역을 저야할 제주사람들이 섬을 빠져나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자 국법으로 출륙을 금지해버린 것이다. 여기에 여성에 대한 통제는 더욱 엄격하여 다른 지방 사람과의 혼인까지도 막았던 것이다.¹⁶⁷⁾

명분을 중시하는 조선사회에서 만덕이 내뿜은 소원은 당시 관료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신분제사회에서 만덕은 면천의 길을 마다하고 국법으로 금지된 육지 나들이를 선택했다. 이는 신분사회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이며 제주여성으로서의 꿈을 대변한 것으로 기녀라는 신분적 한계와 변방이라는 지역적 차별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제주기생으로서 한양까지 이름을 날린 예는 만덕만이 아니다. 조선 최고의 의녀 장덕과 귀금, 제주목사의 부당한 월권을 신문고를 쳐서 알렸던 용감한 곤생, 수청을 거부하고 유배 간 동정춘, 외세에 대항했던 이재수란의 여장두 만성춘 모녀¹⁶⁸⁾ 등 그들은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천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

167) 장혜련, 「출륙금지와 제주여성」, 『제주여성사 I』, 앞의 책, 298-313쪽 참조.

168) 『성종실록』에는 물론 성현의 『용재총화』에도 장덕과 귀금으로 추정되는 제주 의녀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한, 숙종 대에 곤생은 제주관기로서 한양에 올라가서 이희태 목사의 죄를 폭로했다. 제주목사로 부임하면서 거느린 첩이 서울에서 조카[혹은 전부(前夫)의 아들이라고도 함]를 데리고 갔는데 그 일을 숨기려고 하였으나 곤생 모녀가 알고서 창설(倡設) 한 말이 있어, 이 때문에 이희태는 늘 그들을 미워하여 결국 죄를 뒤집어써워 심한 고문으로 곤생의 세 딸들을 죽게 하였다. 이러한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출륙금지령을 어기고 몰래 제주를 빠져나가 한양까지 가서 신문고를 울렸던 것이다. 하지만 대신들 중에는 사건의 진실보다도 출륙의 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곤생을 범법자로 몰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 결국 진상이 밝혀지면서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권력의 횡포가 폭로 되었다. 만성춘 모녀에 관한 문헌으로 윤양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은 고종 때 외무대신을 지냈는데 1896년 제주에 유배 와서 4년에 걸쳐 『속음청사(續陰晴史)』라는 기록을 남겼다. 여기에 제주여성에 관한 내용이 있다. 신축민란(1901년)때 관덕정 광장에 모인 제주여성들은 성문을 열라고 소리쳐대고 외국신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따지는 당돌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렇게 10여 일 동안 계속된 농성에 식량과 땀값이 모두 떨어져 성안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자 기녀들

는 처지였지만 지혜로운 기질을 간직하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고귀한 삶을 지향했던 것이다.

<배비장전>의 기녀 애랑은 이러한 제주기녀의 다양한 면모가 합성되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만덕의 행적에 대한 부정적 기록은 미모로 남자를 유혹해서 망신시키는 애랑의 면모와 닮았다. 또한 지배층의 부조리와 부패상을 폭로함으로써 정치권력에 대한 고발과 저항정신을 보여주었던 곤생과 만성춘 모녀의 면모가 애랑이 정비장과 배비장을 철저하게 알비장으로 만들면서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것과 연결된다. 이와 더불어 음여도에 얹힌 제주풍속에서 포구 주변 음녀들이 관료들에게 생활밑천을 뜯어내는 방식들과도 연관되면서 애랑 캐릭터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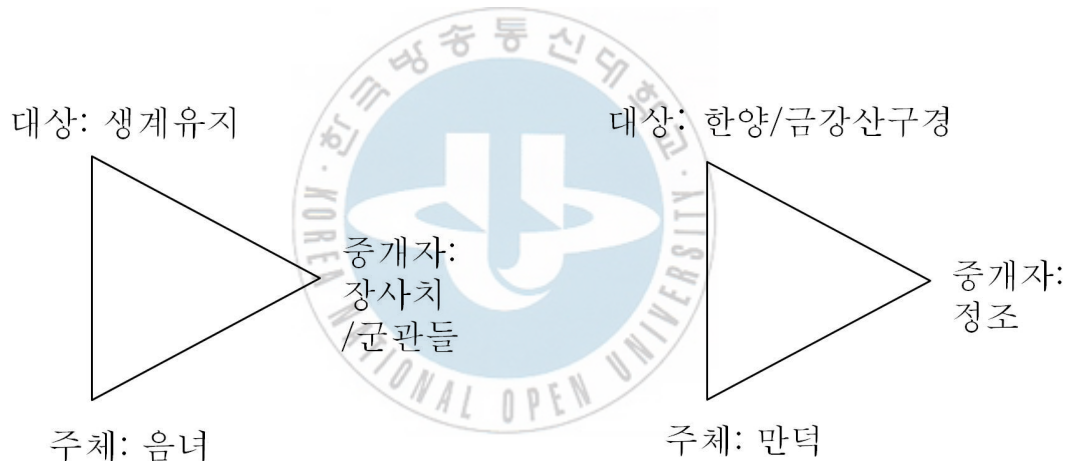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 이론을 통해 제주기녀형과 애랑 캐릭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라르의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 의하면 소설에서 주인공의 이상과 그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소설의 주인공은 그 단절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렇게 한 개인이 무엇을 욕망한다는 것은 지금의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이다. 초월한다는 것은 욕망하게 되는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가능하다. 거기에는 주체(sujet)와 대상(objet)이 있을 뿐이다. 주인공의 열정을 불러일으킨 대상의 본성이 욕망을 설명하기에는 열정에 사로잡힌 주체로 관심을 바꾸게 된다. 이러한 욕망은 자연발생적이며 주체와 대상을 간단하게 이어주는 직선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지라르는 이것을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분석하면서 적용했다.¹⁶⁹⁾

은 성문을 열어젖혔다. 이때 선봉에 선 여장두가 만성춘(滿城春)과 만성월(滿城月)이었다. 김순이, 「제주기녀, 또 하나의 제주여성」, 앞의 책, 406-422쪽 참조.

169) 주인공인 돈키호테는 이상적인 방랑의 기사를 꿈꾼다. 여기서 아마디스라는 전설의 기사를 모방함으로써 이상적인 기사도에 도달하고자 한다. 욕망의 주체자인 돈키호테는 아마디스라는 중개자에 의해 간접화되고 있으며 이는 욕망이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상승하여 중개자를 거쳐 대상에 이르게 된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산초는 작은 섬 하나를 소유하고 싶고, 딸에게 공작부인의 칭호를 갖게 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욕망은 돈키호테에게서 암시받은 욕망으로 돈키호테는 산초의 중개자이다. 중개자의 영향이 느껴지는 순간부터 현실감각은 사라지고 판단력은 마비된다. 삼각형의 욕망의 효과는 두 작중인물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종래의 이상주의자 돈키호테와 현실주의자 산초 사이에 있는 대립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대립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았다. 오히려

여기서 제주기녀 형으로 음녀, 만덕, 귀금, 곤생, 동정춘, 만성춘을 상정해서 각 인물의 욕망구조를 통해 <배비장전>의 기녀캐릭터인 애랑의 욕망구조와 비교분석해 보겠다.

우선, 음녀는 남편이 없는 여자로서 생계를 위해 포구로 찾아오는 장사치나 군관들을 유혹한다. 음녀의 중개자는 포구로 찾아오는 남자들이다. 음녀는 어려운 일을 맡으려 하지 않고, 포구에 와서 짙은 화장을 하고 술로 중개자들을 유혹한다. 심노승의 기록에 나타난 만덕의 경우에도 음녀와 비슷하다. 육지에서 온 장사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큰 부자가 되었고, 제주에 기근이 들었을 때 곡식을 바쳐서 한양에 이르고 금강산을 구경하고자 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만덕의 욕망은 한양에 가고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만덕의 이러한 욕망은 정조에 의해 이루어졌다. 왕조시대에 만덕이 이 같은 욕망을 이룬 것은 일종의 기적이다.



<그림 6> 음녀의 욕망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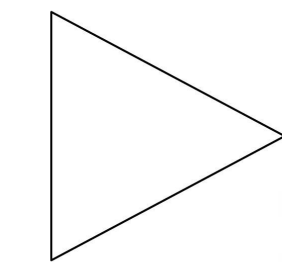
<그림 7> 만덕의 욕망구조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예는 곤생의 사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곤생은 숙종대의 제주 관기로 당시 삼엄했던 출륙금지령을 어기고 한양까지 올라가서 신문고를 울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조정에 알렸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제주

대립 때문에 두 인물들 사이의 유사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Girard, Rene, 김치수·송의경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1, 21-43쪽 참조.

목사로 부임했던 이희태의 횡포가 날날이 드러나면서 숙종은 그를 처벌하였다. 따라서 권력횡포에 대항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했던 곤생은 신문고를 쳐서 당시 최고 권력자인 임금에게 알렸던 것이다.¹⁷⁰⁾ 따라서 곤생은 해원(解冤)이라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중개자로 숙종임금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의녀 귀금은 스승을 중개자로 하여 당대 최고의 전문의로 장안에 화제를 몰고 다니던 최고의 의녀가 되었다. 장덕은 잇병과 피부병에 뛰어난 의술을 지녔는데, 이러한 의술을 사비(私婢) 귀금에게 전해주었다.¹⁷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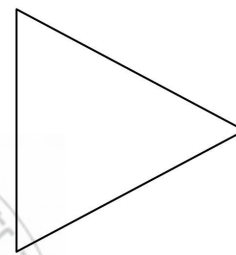
대상: 해원



주체: 곤생

중개자:
숙종

대상: 조선 최고의 의녀



주체: 귀금

중개자:
장덕

<그림 8> 곤생의 욕망구조

<그림 9> 귀금의 욕망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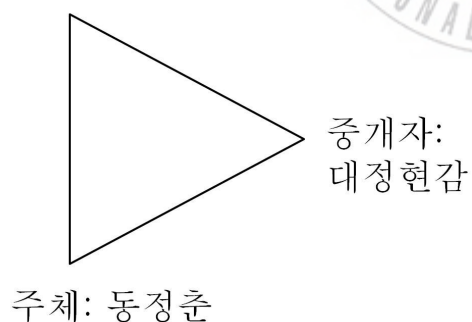
동정춘에 대한 기록은 대정현감이던 김인택(金仁澤)이 재임기간에 쓴 『대정현 아중일기』에 나와 있다. 1815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윤구동(尹久東)은 개인비서격인 책실(冊室)로 황서방이란 사람을 데리고 왔다. 황서방이 동정춘을 마음에 두고 수청 들기를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동정춘을 영비(營婢)에서 현비(縣婢)로 강편하고 대정현으로 귀양까지 보냈다. 하지만 귀양은 한 달 만에 풀리고 제주감영으로 복귀했다. 대정현감은 귀양이 풀려 돌아가면서 인사 온 동정춘에게 간지(簡紙) 두

170) 김순이, 「제주기녀, 또 하나의 제주여성」, 앞의 책, 410-416쪽.

171) 濟州醫女張德, 能去齒蟲, 如鼻眼凡病瘡處皆去之。將死, 傳其術於私婢貴今, 國家贖爲女醫, 欲廣傳其術, 使二女醫從行, 貴今秘不傳。..... 命召貴今, 問曰: “使女醫二人從行, 汝秘不傳, 必欲獨擅其利也。汝若固諱, 當拷掠鞫問, 其悉言之。” 貴今曰: “我自七歲始學此術, 至十六歲乃成, 今我非不盡心教, 彼不能習耳。성종 23년(1492) 6월 14일 『조선왕조실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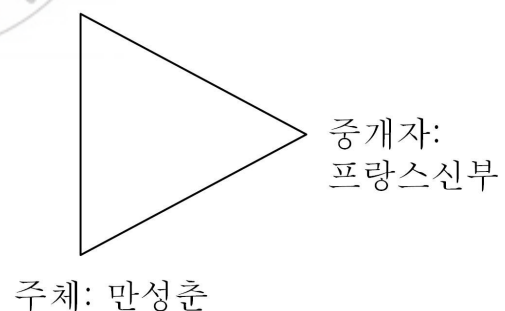
폭을 주었다고 기록했다.¹⁷²⁾ 이것으로 동정춘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기녀로서 남다른 재능과 품격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동정춘의 예기로서 존중받고 싶은 욕망이 대정현감 김인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여장두(女狀頭)로 활약한 만성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신축민란(1901년)은 봉세관의 과도한 세금징수와 천주교의 교세확장에 따른 폐단 등이 원인이 되어 관노였던 이재수가 주동이 되어 일으킨 난이다. 당시 프랑스신부는 왕이 직접 내린 ‘如我待[국왕처럼 대우하라]’라는 신표를 지니고 있었을 만큼 치외법권과 영사재판권¹⁷³⁾이 막강했다. 김윤식은 『속음청사』에서 여성들이 외국 신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따지는 당돌한 모습과 굳게 닫혔던 성문이 열리던 5월 28일의 급박했던 상황에서 활약했던 여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십여 일 동안 폐쇄된 성안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자 되기 만성춘 모녀가 성문을 여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여기에서 만성춘의 욕망은 성안의 사람들의 안전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 당시 막강한 권력자인 프랑스신부를 중개자로 하여 안전의 욕망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안전의 욕망은 요원해졌고, 따라서 중개자와의 내면적 간접화 현상인 경쟁관계가 되었으며 중개자에 대한 적대감이 오히려 대상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스스로가 성문을 여는데 앞장설 수 있었다.

대상: 예기로서 존중 받는 삶



<그림 10> 동정춘의 욕망구조

대상: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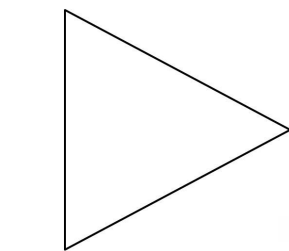
<그림 11> 만성춘의 욕망구조

172) 김순이, 「제주기녀, 또 하나의 제주여성」, 앞의 책, 416-419쪽.

173) 이영권, 『제주 역사 기행』, 앞의 책, 210쪽.

<배비장전>에서 애랑은 신표(信標)를 빌미로 정비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알비장으로 만들어버린다. 또한 정비장과 이별하자 곧 신임목사가 부임되며 행해진 기생점고를 통해 김경 목사를 상면한다. 마침 목사가 정남을 자처하는 배비장을 훼손시키는 기생에게 큰 상[重賞]을 주겠다고 하자 자처해서 배비장을 훼손시킨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배비장과 부부 연을 맺고 배비장이 배현감으로 신분이 상승되면서 애랑 또한 배현감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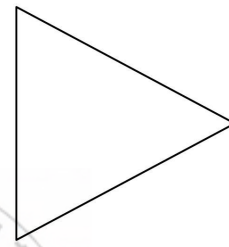
대상: 생계보장



주체: 애랑

<그림 12> 애랑의 욕망구조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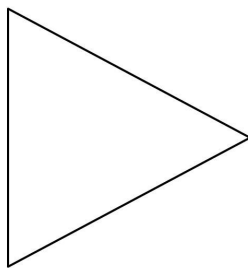
대상: 중상



주체: 애랑

<그림 13> 애랑의 욕망구조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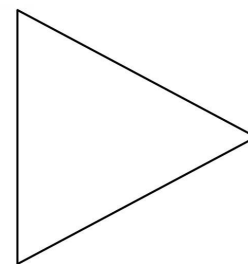
대상: 부귀영화



주체: 애랑

<그림 14> 애랑의 욕망구조 C

대상: 부귀영화



주체: 애랑

<그림 15> 애랑의 욕망구조 D

이상에서 보듯이 애랑의 욕망구조 A는 음녀의 욕망구조와 닮았다. 하방천기로 서 경화귀빈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은 무엇을 약속하였을까. 그것은 “상던이 벽히 되고 벽히가 상던토록 서로 리별을 마자드니 오날 날 이 마당에 나를 두고 어디 가오” (14쪽) 라고 하며 언약을 저버린 것에 대해 그의 모든 물건을 빼앗음으로써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풀이를 하고 있다. 여기서 물건을 빼앗는 행위는 생계유지를 위한 욕망으로 볼 수 있다. 애랑의 욕망구조 B는 신임목사인 김경이 배비장을 “흑흑게 햏야 웃게 햏는 즈 잇게 되면 중상(重賞)을 줄 거시니 누가 능(能)히 거햏(舉行)햏겟느냐” (36쪽)고 하여 애랑이 자원한 것이다. 애랑의 욕망구조 C는 후반부의 배비장이 애랑과 함께 살게 되면서 정의현감으로 제수되어 애랑과 함께 도임(到任)하였다. 따라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애랑은 배비장을 통해 그 욕망을 이룬다. 애랑의 욕망구조 A·B·C를 한데 모으면 애랑의 욕망구조 D로 나타낼 수 있다. 애랑은 기녀로서 한양에서 온 경래관인 정비장과 김경목사와 배비장을 통해 모든 기녀들의 꿈인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조의 중개로 한양과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었던 만덕과 신문고를 쳐서 조정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숙종을 통해 해원할 수 있었던 곤생, 장덕에게 의술을 배운 덕택에 조선 최고의 의녀로 이름을 날렸던 귀금, 대정현감에 의해 예기로서 존중 받는 삶을 살고자 했던 동정춘, 프랑스 신부를 중개자로 해서 성문이 닫힌 채 굶주림과 공포에 떨던 사람들에게 성문을 열어주었던 만성춘의 모습에서 애랑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제주기녀들은 처음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육지에서 오는 남자들을 유혹하며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지만 그녀들의 욕망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출륙금지령이라는 제주도민에게 내려졌던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도 제주여성들은 자신의 욕망을 펼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특히 만덕이 신분제사회에서 면천의 기회조차 마다하면서 국법으로 금지된 육지 나들이를 소원했던 것은 발목 잡힌 제주도민들의 꿈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곤생이나 만성춘 등이 조선의 신분제 사회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자 사투를 벌였던 것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이 낳은 제주여성의 강인한 정신력이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다. 허구가 아니라 현실을 통해 불가능했던 꿈을 이루었던 이들의 면모는 판소리계 소설의 등장인물 애랑 캐릭터를 통해 새롭게 변모되었던 것이다. 애랑은 기녀라는 특수한 신분의 여성으로서 쉽게 남성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더구나 중앙에서 온 관리들을 중개자로 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었다.

한양에서 온 관리들과 유배인들의 삶 속에 깊이 투영되어 존재하던 제주기녀들은 전설 속의 제주기녀로, 소설 속의 영웅적 기질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시대를 초월한 인간애로 민초의 고통을 어루만지면서 생애를 헌신했다. 따라서 이들의 삶 속에서 고혈을 빨아먹던 관료인 정비장과 정남임을 자처하는 위선적 인물인 배비장을 추락시키고 훼손시킴으로써 민초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감정을 시원하게 달래주었던 것이다. 판소리계 소설인 <배비장전>은 애랑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제주 기녀의 진면목을 드러냈으며 이를 통해 해학적이고 골계적인 모습으로 독자들을 사로잡으면서 풍자문학의 백미를 수놓았던 것이다.

4. 배비장전의 현대적 문화콘텐츠화

<배비장전>은 19세기 판소리 전성기에 이미 창을 잃었지만 다행히 사설은 소설로 남아 일제강점기에는 창극으로 공연되기도 하고 오늘날 뮤지컬이나 오페라로 만들어져서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전승되고 있다. 이렇게 <배비장전>이 문화콘텐츠로서 장르의 교섭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제주라는 지리적 특수공간이 어떻게 표현되고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0세기가 들어선 개화기에 서울이 상업도시로 급변하면서 시민들의 연희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져갔고, 그에 따라 우리의 공연예술도 서양문물을 접하면서 옥내극장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다. 동대문 옆에 전기회사 활동사진소를 1907년에 광무대(光武臺, 1907. 5-1930. 5)라고 해서 활동사진을 상영했다. 1908년 박승필(朴承弼)이 광무대를 인수하면서 민속무용과 판소리 등 전통예술도 함께 공연하면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연흥사, 단성사, 장안사 등의 군소 극장들도 생겨나 판소리와 각종 무용을 공연했다. 1902년 창설되어 황실의 지원

을 받았던 협률사(協律社, 1902. 8-1906. 4)는 개화기의 대표적인 관립극장으로 전국의 명창들을 모았다. 하지만 얼마가지 못하고 다시 1908년 원각사(圓覺社, 1908. 7-1914. 3)라는 이름으로 민간인들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급박한 국운으로 인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연극양식이 생겨나는 배경이 되었다. 당시 극장에서는 <춘향가> 등 판소리 다섯 마당을 주로 상연하면서 간혹 <배비장타령>이나 <장화홍련전> 등도 상연하였다. 한 명이 소리하던 것을 여러 명이 나누어 부르는 분창을 시도하고, 창과 역을 나누어 무대장치도 하고 분장도 하면서 창극으로 발전하였다.¹⁷⁴⁾

한국의 연극사에서 판소리는 음악연극으로서 신파조(新派調)에 맞서 창극조(唱劇調)라 한다. 이는 판소리가 문학적으로는 극가, 연희로서는 판소리, 연극으로는 창극이라는 개념에 의한 것이다. 창극이라는 용어는 신연극, 구극, 구파극, 신구파극, 가극 등으로 혼용되다가 1930년대에 이르러 일반화되었다. 극장이 설립되면서 공연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여기에 광대들은 일본의 조루리(淨瑠璃)에서 가부키(歌舞伎)나 중국의 창희(唱戲)에서 경극으로의 발전 양상을 접하게 되면서 판소리를 새롭게 개량해야 하는 당위성을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판소리가 외래극(外來劇)과 같은 고전적인 연극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당대의 관객들은 정서적으로 원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조선의 판소리는 뚜렷한 자기발전적인 대안이 없이 외래극의 모방에 의한 과도기적 양식을 성립시켰던 것이다.¹⁷⁵⁾

개화기 지식인들의 공리적인 연극관이 대중에까지 확산되어 판소리를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외설로 매도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판소리와 창극은 여전히 인기가 있었고 인기 명창은 극장 간의 스카웃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협

174) 유민영, 『한국연극운동사』, 태학사, 2001, 21-34 참조.

175) 창극조는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창극조는 우조(羽調)와 계면조(界面調)를 기본조로 한다. 판소리는 전승연희로서 음악연극이기보다는 연극음악이다. 창극조는 창극을 지향하는 시도 혹은 창극을 모방한 연극이다. 따라서 판소리의 창극화는 창극조로 지칭한다. 신파조는 일본신파극을 선행개념으로 하여 신파극을 지향하는 시도 혹은 신파극을 모방한 연극을 의미한다. 신파조는 애초에는 신파극식의 어조(語調)로 사용되다가 1930년대부터는 신파극이 대중극으로 전이되자 신파조는 대중극의 성격을 지시하는 개념이 되었다. 서연호, 『한국연극사』, 연극과인간, 2003, 83-84쪽, 124-126쪽 참조.

를사 극장 시절 전국의 명창들이 대거 집결하여 광대세력을 과시했던 명성을 그대로 계승한 순회극단 협률사는 명창의 집단을 상징한다. 창극운동은 이러한 판소리 명창들의 조직인 협률사에서부터 시작되어 1910년대 경성구파배우조합, 1920년대 조선악연구회와 조선음악협회, 1930년대 조선음률협회와 조선성악원을 거쳐 조선성악연구회 등이 주도하였다.¹⁷⁶⁾

전통예술의 여러 장르를 통합한 형태인 창극은 극장형 종합예술로서 극장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1934년 조선성악원이 조선성악연구회로 개칭하고 명창대회를 개최하거나 창극단을 조직하면서였다. 동양극장이 문을 열고 신파극이 토착화되어 대중극으로서 동양극장 무대를 장식하게 되자 조선성악연구회는 이에 맞설 만한 창극을 꿈꾸게 되었고 마침 동양극장의 전속연출가 박진(朴珍) 등의 지원으로 근대적 성격의 무대극으로 발전되었다. 판소리 다섯 마당을 넘어 1936년 2월 희창극인 <배비장전>을 공연하면서 ‘창극’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명맥이 끊어진 판소리를 발굴해서 창극화를 통해 현대화하는 동시에 각 시대의 면목을 보전하고자 했다. 이렇게 동양극장이 극장 연극술의 전수는 물론 흥행성이 부족했던 창극을 뒷받침함으로써 무대예술로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조선성악연구회는 관중의 인기를 모으면서 전국 순회공연을 하게 되었다.¹⁷⁷⁾

근대성을 표방한다는 의미로서 근대극은 1910년대의 창극과 신파극을 극복하고자 한 1920년대 학생극운동에서부터 찾는다면 극예술협회와 토월회(土月會)¹⁷⁸⁾ 등이 결성되던 시기부터 출발한다. 춘강 박승희(朴勝喜, 1901-1964)는 1928년 10월에 <배비장전>을 바탕으로 배경과 사건을 새롭게 꾸민 <이 대감 망할 대감>을 무대에 올렸다. 신파조를 극복하고 근대극을 지향하던 모습과는 달리 극본의 빈곤과 재정난을 겪으면서 대중적 취향으로 기울었던 토월회가 1926년 4월에 해

176) 서연호, 위의 책, 145쪽.

177) 유민영, 앞의 책, 69-68쪽.

178) 토월회는 1922년 5월 입교대학을 다니던 김기진의 동경하숙집에 박승희, 김복진, 박승목, 이서구 등 7명이 모여서 처음 결성되었고 이후 더 많은 동경유학생들이 가담하게 되었다. 이들은 ‘현실에 토착해 있으되 이상은 명월같이 높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토월’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여름방학에 귀국해서 경성의 조선극장에서 1회 공연을 가졌고 이어 2회 공연도 했지만 혹평을 받았고 대부분 회원이 이탈하고 3회 공연부터는 박승희가 단장을 맡으면서 대중 극단으로 변모하였다. 서연호·이상우, 『우리 연극 100년』, 현암사, 2000, 87-90쪽 참조.

산되었다. 박승희는 이러한 토월회를 재기하기 위해 고전을 통해 대중의 기호에 부응하려 했던 것이다. 신파극의 범람으로 감상적 대중주의에 빠져 있던 시기에 잊혀져가던 고전작품을 통해 풍자와 해학정신을 되살리면서 전통의 현대적 수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대감 망할 대감>의 소재원천은 주로 풍자와 해학이 뛰어난 판소리계 소설인 <배비장전>에서 찾을 수 있다.¹⁷⁹⁾ 배비장이 방자와 애랑의 꾀에 빠져 궤에 숨었다가 결국 동헌마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했던 장면을 토대로 박승희는 단막극으로 새롭게 재구성하였던 것이다.

<이 대감 망할 대감>은 조선시대 어느 대감댁 후원과 방안에서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으로 한정하였다. 등장인물도 대감을 중심으로 그의 첩과 하인 및 하녀, 식객 노릇하는 내수와 그의 처이다. 벼슬자리를 얻기 위해 고향의 논밭을 대감에게 상납한 내수가 아무런 대가를 얻어내지 못하자, 극중극을 꾸며서 대감을 혼내주고 목적을 달성하는 내용이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부도덕한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다. ‘궤’는 설화적 의미인 입사식 공간¹⁸⁰⁾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도피의 공간이며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는 장소이자 간계의 소도구일 뿐으로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극적 소재로 차용했던 것이다.¹⁸¹⁾ 하지만 <배비장전>의 주요 무대였던 제주도라는 공간은 아예 삭제해 버렸다. 어디에서도 제주와 관련된 화소는 없다. 이것은 박승희가 소설의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인 공간적 배경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모의와 유혹에 의한 풍자구조만을 차용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간적 배경은 소설의 성립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것을 간과해 버림으로서 풍자에 대한 구조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논의 결과로 보면 <배비장전>의 풍자성과 제주라는 지역성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임화는 『조선지광』

179) 박명숙은 <이 대감 망할 대감>의 소재원천을 <배비장전>이 아닌 <미케설화>에서 찾았다. 하지만 <미케설화> 역시 <배비장전>의 근원설화로 논의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소재원천을 <배비장전>으로 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김승옥, 「근대극 태동의 전통 수용 연구- 박승희의 <이 대감 망할 대감>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11, 한국극예술학회, 2000, 130쪽, 박명숙, 「<이 대감 망할 대감>의 설화 변용에 관한 일고찰」, 『배달말』 통권 제40호, 배달말학회, 2007 참조.

180) 여기서 ‘궤’를 입사식에 나타나는 격리된 공간이나 일종의 금기와 비슷한 의미로 입사식 중 겪어야 할 핵심적 과제이며 제의적 공간을 말한다.

181) 박명숙, 위의 논문, 256쪽.

에서 이 공연에 대해 현실이라는 역사적 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춘원 이광수의 말처럼 민중은 언제든지 돈과 계집을 좋아한다는 왜곡된 인식에서 만들어졌다고 혹평했다. 그럼에도 필자는 <이 대감 망할 대감>은 단막극으로서 모순된 사회상을 풍자적 수법들 통해 비판하고 해학적인 면을 드러내면서 고전소설을 현대화시킨 최초의 희곡이라는 김승옥의 평가에 동의할 수 있다. 그것은 근대극 태동기에 유행했던 신파극에 대한 반발로서 생겨난 풍자희극으로서 고소설을 현대화시키면서 성공한 작품¹⁸²⁾이기 때문이다.

1930년대의 신극운동을 주도한 극예술연구회는 20년대의 소인극과 학생극의 연장선상에서 사실극을 발전시킨 단체였다. 극예술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넓히고 신파극의 파행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근대극으로서의 주체적인 사실극을 추구하면서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우리 신극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1938년 일제가 연구단체의 활동을 금지시키자 유치진과 서항석의 주동이 되어 극연좌(劇研座)를 결성했다. ‘座’는 일본에서 직업전문극단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전문극단으로 전환한지 한 해 만에 단원들의 주도권 갈등과 재정난으로 인해 해산¹⁸³⁾ 되고 말았다. 이후 우리 연극은 긴 암흑기를 맞는다.

일제 강점기에 지은 부민관을 수리해서 국립극장을 개관한 것이 1950년 4월 29일이다. 하지만 6·25전쟁의 발발로 연극인들의 꿈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1957년이 되어서야 서울에서 재개할 수 있었다. 1962년에 국립극장 산하 국극단으로 출범한 창극단의 구성원은 조선성악연구회 이후의 중견과 소장 명창들이었다. 초대 단장인 명창 김연수에 의한 창립공연은 연극보다는 소리에 치중한 나머지 해방 전후의 창극에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과거 동양극장의 전속연출가 출신 박진이 창극연출을 맡으면서 <배비장전>을 시험적으로 무대에 올리면서 당시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민속예술의 복원운동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두었다. 하지만 복원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현대감각에 맞도록 쇄신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개화기에 판소리로서 파생된 창극이 1960년대 중반까지도 양식화는 말할 것도 없이 뚜렷한 연극형태로서 정립

182) 김승옥, 앞의 논문 137쪽.

183) 서연호, 앞의 책, 167-169쪽.

되지 못한 채 방황을 거듭했던 것이다.¹⁸⁴⁾ 국극단은 1973년 ‘국립 창극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립극장도 명동을 떠나 장충동 시대의 막을 열었다. 1975년 박동진 명창이 2대 단장을 맡으면서 제22회 정기공연으로 <배비장전>(이진순 연출)에 새로 작곡과 안무를 추가하고 30인조 악단의 생음악 연주로 공간감을 넓혔다. 유민영은 이 공연에 대해서 창극의 본격적 양식화를 이룬 시도라며 그 성과에 대해 몇 가지 평을 하였다. 우선 동양화적인 무대배경이 나름대로 연극미학을 보여주면서 시조나 잡가 등이 판소리의 사설에 포함되어 창극이 한국식 오페레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고전무용과 가면극의 리듬을 다양하게 배합하였고, 출연한 명창들의 연기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¹⁸⁵⁾

국립극장은 1991년 국립중앙극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5년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였고, 국립중앙극장 분관으로 정동극장을 개관하였다. 창극 <배비장전>은 1996년에 이어 2012년 12월, 2015년 현재¹⁸⁶⁾까지도 공연되고 있다. 2005년에 공연된 <놀당잡서>는 <배비장전>을 현대감각에 맞도록 창작한 무용극이다. 부인이 준 동곳을 징표삼아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비장이 약속을 어기면서 당하는 수모와 고통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불감증이 되어버린 약속과 신의에 대한 풍자와 해학을 그렸다.

오늘날 한국무대를 점유한 뮤지컬이 생겨난 것은 대체로 19세기로 보고 있다. 가무와 풍자희극이나 버라이어티 쇼 등의 요소들이 만나서 하나의 무대극으로 발전했다. 뮤지컬 코미디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귀족적인 인물들로부터 평범한 인물로 바뀌고 화려한 무대장치, 노래와 춤, 아름다운 코러스 결의 삽입으로 화려해져갔다.¹⁸⁷⁾ 예그린 악단은 1966년 음악과 무용 두 분야에 정통했던 박용구가 단장을 맡으면서 <배비장전>을 제재로 한 <살짜기 읊서예>(김영수 극본, 임

184) 유민영, 앞의 책, 94-97쪽.

185) 이재성, 「창극 공연양식의 현대화 연구: 국립창극단 활동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공연·영상애니메이션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73쪽.

186) 공연명: 조선한량유혹사기극 배비장전, 장르: 무용/전통예술, 기간: 2015년 4월 3일-12월 31일, 장소: 서울 정동극장, 이상의 공연물은 한국적인 악기와 소리와 몸짓으로 무대를 꾸미면서 한국의 정서를 맛보고 싶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소리꾼을 제외하면 공연 자체가 거의 무언극으로 되어있어 전통의상 등의 볼거리가 풍부하고 굳이 한국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187) 유민영, 앞의 책, 602-603쪽.

영웅 연출)를 시민회관 무대에 올렸다. 이로서 한국연극사상 최초의 창작뮤지컬이 탄생했고 처음 무대에 올린 날을 기념하여 10월 26일이 뮤지컬의 날로 제정되었다. 그만큼 크게 성공을 거두었던 것은 극본 자체가 단순하고 풍자성이 강한 희극이어서 뮤지컬에 적합했고 당대 최고의 창작진 인 최창권의 음악과 임성남의 안무, 당시 스타로 부상하던 패티 김이 주연을 맡았을 뿐 아니라 전속오케스트라, 무용단, 합창단 등 총 100여명의 출연진이 무대에 서면서 대중의 주목을 끌었던 것이다.¹⁸⁸⁾ 이후 앙코르 공연이 이어지다가 1996년 6대 공연을 마지막으로 외국 라이선스 뮤지컬의 급물살에 밀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가 2013년 2월 CJ토월극장에서 <배비장전>을 새롭게 각색하여 만든 뮤지컬이 무대에 올려졌다. 첨단 3D맵핑과 홀로그램기술 등 최첨단기술을 도입하면서 재탄생되었다. 무대배경으로 흐드러지게 핀 유채꽃 들판이 보이는데 하면 4m높이의 돌하르방이 눈알을 굴리거나 혀를 내밀고 눈을 깜박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고 원작에서와는 달리 배비장의 죽은 아내가 등장하기도 한다. 수포동 폭포의 역동적이며 웅장한 모습과 개가죽 두루마기를 입은 배비장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고, 해녀들이 물소중이를 입고 태왁, 망사리, 눈 안경 등의 소품을 지닌 채 등장하는 등 제주도의 토속적 이미지를 살리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초연 당시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원곡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기타, 드럼 등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14인조 오케스트라 연주로 편곡되어 현대적인 화음을 선보였다.

한편 오페라 <배비장전>(박창민 작곡, 김지철 연출)이 제1회 대한민국 창작오페라 페스티벌의 개막공연으로 선정되어 2015년 1월 17일에서 18일까지 이틀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되었다. 판소리 창극으로 다루어졌던 것을 종합예술인 오페라와 접목하면서 현대 사회에 맞추어 각색하고 구성한 작품이다. 여색을 멀리하랬다던 배비장의 위선이 제주기생 애랑과 방자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관객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주었다. 국내 최고의 성악가들과 헤럴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메트로페라합창단이 무대에 올랐다. 오페라 무대의 웅장함과 뮤지컬의 경쾌함과 세련미, 연극의 전달력을 조화시킨 한국형 창작 오페라로서 호

188) 위의 책, 606쪽.

평을 받았다. 입체 영상을 통한 한라산과 천지연 폭포를 특수효과로 무대 위에 재현하기도 하면서 관객을 사로잡는 소재와 재해석으로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콘텐츠를 오페라를 통해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VI. 결론

문화융성을 지향하는 요즘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배비장전>은 조선후기의 사회상을 반영한 풍자성이 뛰어난 문학작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고소설로서 <배비장전>을 지역문화콘텐츠로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직까지 제주도에는 판소리 발생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판소리의 기원을 알려주는 서사무가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제주도의 서사무가가 호남의 판소리와 얼마나 영향관계를 갖는 지에 대한 연구도 미비하다. 하지만 판소리의 존재를 알리는 현전하는 최초의 문헌에 제주지역과 연관된 <배비장타령>이 엄연히 존재한다.

물론 서사적 배경이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허구인 세계를 다룬 소설작품이 그 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선부른 판단일 수 있다. 하지만 <배비장전>은 제주지역을 주 무대로 삼은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제주지역의 특수성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제주도는 본토인 육지와 격리된 절해고도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조선시대에는 최적의 유배지였다. 또한, 변방으로서 본토를 위협하는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데 중요한 군사적요충지였다. 따라서 전라도 관찰사가 제주를 관할하기가 어려운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주목사에게 그만큼 높은 품계를 주어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러한 특수성은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환경과 문화를 형성하면서 제주의 풍속으로 자리 잡고 면면히 이어져 왔다.

판소리에는 봉건체제가 해체되어가던 조선후기의 역동적 사회현실을 반영하면서 현실의 본질과 모순을 파악해내는 민중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배비장전>은 판소리계 소설로서 조선후기의 시대상을 제주라는 서사 공간 속에서 그려

내고 있다. 당대 양반사회의 허위의식과 위선을 제주 관아의 관인들에 대한 일탈 행위로 나타냈고, 여기에 제주도민들에 의한 집단적 풍자로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양반 권위에 대한 집단적 풍자와 하층민의 냉소는 제주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당대 사회의 보편적인 신분질서에 의한 가치규범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 <배비장전>의 서사 공간인 제주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의 지리적·역사적 여건 즉, 인문학적 요소가 작품 안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이번 연구를 통해 몇 가지 <배비장전>에 대한 기존 연구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연구에서 <배비장전>의 근원설화로 제시된 발치설화와 미케설화, 그리고 실사를 바탕으로 한 야담에 대해서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체로 1960년대에 김동욱 교수가 제시한 근원설화를 다른 연구자들도 거의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발표된 연구가 늘어나긴 했지만 산만하고 그 영향관계가 모호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시대별로 정리하여 그 영향관계가 분명해졌다.

둘째, 공간 배경으로서 제주의 지역적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유배지와 변방으로서 육지부와는 다른 변별성을 지닌 제주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환경, 문헌 속에 나타난 제주도박이 인물들의 역할과 생활상, 관광지로서 제주의 특성이 소설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제주목사의 부임행차 동선은 『남사일록』에 나타난 이중의 입도동선과 거의 일치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목사행차가 제주에 입도하고 나서 제주목관아까지 당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주의 실제지명을 고지도인 『탐라순력도』 「한라장축」에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비장의 뱃짐물목에서 특산물에 대한 고찰로 제주의 진상품 실상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고소설과 판소리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판소리계 소설의 형성과정과 판소리 12마당이 생성된 배경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또한, 판소리 형성기에 이미 구비전승되던 <배비장타령>이 19세기 전성기를 지나면서 판소리 무대에서 사라질 수

밖에 없었던 요인이 제주지역의 특수성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판소리는 장시의 형성과 관련이 깊다. 제주의 관아 주변에는 일찍부터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그만큼 판소리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아직까지 제주에는 판소리가 뿌리내리지 못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주에 대한 배경지식이 풍부한 작가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종합예술로서의 <배비장전>의 성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넷째, 제주라는 지리적 특수 공간이 장르의 교섭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문학텍스트 속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주의 풍속을 알 수 있는 음여도에 얹힌 이야기와 근원설화, 그리고 <배비장전>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기능요소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주기녀 형과 애랑의 욕망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애랑은 제주기녀들의 다양한 면모가 결합되어 탄생한 캐릭터로서 생계유지나 부귀영화를 꿈꾸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선의 신분사회를 비판하려는 작가의 문제의식이 투영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연극사를 통해 현대적 문화콘텐츠로서 <배비장전>이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전승되는 실례를 찾아보았다. 오늘날 <배비장전>은 창극, 뮤지컬, 오페라 등으로 변용되어 무대에서 활발히 스토리텔링 되고 있으며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지역 특수성 연구를 통해 판소리계 소설의 공간적배경이 스토리 전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제주를 주요 배경으로 하는 가장 오래된 국문소설이라는 점에서 <배비장전>은 문헌자료로서 역사적 가치 또한 높다. 더불어 이번 연구를 통해 고소설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일반론으로서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강영봉 조사, 「제주시 옛 지명」, 『제주문화』 제7호, 제주문화원, 2001.

문무병 조사, 「고유지명(2)」, 『제주문화』 제8호, 제주문화원, 2002.

이귀영 외, 「제주의 생활문화」, 『제주문화』 제10호, 제주문화원, 2004.

제주문화원 편집부, 「지영록」, 『제주문화』 제16호, 제주문화원, 2010.

「한라장축」, 『탐라순력도』, 1702.

홍순만, 「제주도내 문화유적의 소멸과 복원」, 『제주문화』 제7호, 제주문화원, 2001.

2. 단행본

구사회 외, 『송만재의 관우회 연구』, 보고사, 201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문학사전』, 2013.

국립제주박물관, 『항해와 표류의 역사』, 솔, 2003.

국제어문학회, 『고전문학 담당층과 문학의식의 제문제』, 보고사, 2004.

권두환·서종문,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일조각, 1978.

권순궁, 『고전소설의 풍자와 미학』, 박이정, 2005.

김대행, 『우리 시대의 판소리문화』, 재관, 역락, 2001.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속』 19, 선명문화사, 1975.

김동윤,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

김만수, 『스토리텔링 시대의 플롯과 캐릭터』, 연극과 인간, 2012.

김봉옥, 『제주통사』, 재관, 제주발전연구원, 2013.

김원중 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김익두, 『판소리, 그 지고의 신체 전략』, 평민사, 2003.
 김진영·이기형 교주, 『단가집성(短歌集成)』, 월인, 2002.
 김창진, 『배비장전』,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2.
 박태상, 『문화콘텐츠와 이야기담론』, 한국문화사, 2012.
 박태상, 『조선조 애정소설연구』, 태학사, 1996.
 서거정 원저, 박경신 대교·역주, 『태평한화골계전』, 국학자료원, 1998.
 서연호·이상우, 『우리 연극 100년』, 현암사, 2000.
 서연호, 『한국연극사』, 연극과인간, 2003.
 서유석 외, 『웅고집전·배비장전의 작품세계』, 보고사, 2013.
 설성경·박태상,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6,
 신정일,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다음생각, 2012.
 안길정, 『관아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생활사』 상, 사계절, 2000.
 안길정, 『관아이야기』 둘째 권, 사계절, 2000.
 안대회, 『조선을 사로잡은 끈들』, 한겨레출판, 2010.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 지성사, 1999.
 유몽인 저, 신익철 외 옮김, 『어우야담』, 돌베개, 2006.
 유민영, 『한국연극운동사』, 태학사, 2001.
 유진한 저, 송하준 역, 『국역만화집』, 학자원, 2013.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7, 창비, 2012.
 유화수·이월영 편역, 『고금소총』, 전통문화연구회, 2014.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개정판, 민음사, 2001.
 이영권, 『새로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이영권,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이인화, 『스토리텔링진화론』, 해냄, 2014.
 이증 저, 김익수 역, 『남사일록』, 제주문화원, 2001.
 인권환 외, 『고전문학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 월인, 2003.

- 임동철,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 연구』, 민속원, 1997.
- 임징하 저, 김익수 역, 『서재집』,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2004.
-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 임형택, 『한문서사의 영토』 2, 태학사, 2012.
-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출판부, 1970.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3.
-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2009.
- 장일구, 『경계와 이행의 서사공간』,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 전경옥, 『한국의 전통연희』, 학고재, 2004.
- 『전남향토문화백과사전』, 전라남도·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2002.
- 정병헌, 『판소리와 한국 문화』, 역락, 2002.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여성사 I』,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009.
- 『제주여성문화』, 제주도, 2001.
- 『제주의 역사와 문화』, 국립제주박물관, 2005.
- 조광국,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2000.
- 조광국, 『한국 문화와 기녀』, 월인, 2004.
-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93.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제4판, 지식산업사, 2005.
- 진성기, 『무속학』, 제주민속연구소, 2005.
- 판소리학회, 『판소리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현행복, 『방선문』, 각, 2004.

3. 논문

- 고연화, 「창을 잃은 판소리계 소설 연구:<장끼전>, <웅고집전>, <배비장전>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 권두환, 「〈배비장전〉연구」, 『한국학보』 5권 4호, 일지사(한국일보), 1979.
- 권순궁, 「배비장전의 풍자와 제주도」, 『반교어문연구』 제14집, 반교어문학회, 2002.
- 김석배, 「〈춘향전〉의 형성배경과 남원」, 『국어교육연구』 제47집, 국어교육학회, 2010.
- 김승욱, 「근대극 태동의 전통 수용 연구- 박승희의 〈이大監 망할大監〉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11, 한국극예술학회, 2000.
- 김영주, 「〈배비장전〉의 풍자구조와 그 의미망」, 『관소리연구』 제25집, 2008.
- 김은희, 「〈배비장전〉의 풍자성과 교육방안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종철, 「배비장유형의 소설연구」, 『관악어문연구』 제10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 김태환,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 수용의 문제점-발신자/수신자 개념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화권연구』 10권,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2001.
- 김홍규, 「관소리연구사」, 『한국일보』 3권 2호, 일지사(한국일보), 1977.
- 박명숙, 「〈이大監 망할大監〉의 설화 변용에 관한 일고찰」, 『배달말』 통권 제40호, 배달말학회, 2007.
- 부산옥, 「배비장전의 해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오상태, 「〈배비장전〉연구-특히 諧謔性을 중심으로」, 『영남어문학』 제7집, 한민족어문학회, 1980.
- 유목화, 「서사문학을 활용한 곡성심청축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2008.
- 육재용, 「〈배비장전〉신고찰」, 『한민족어문학』 50권, 한민족어문학회, 2007.
- 윤보운, 「《天倪錄》과 고전소설의 대비적 고찰-〈어사건괘등연상〉, 〈제독라정출래중〉과 〈배비장전〉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34권 제2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 윤채근, 「조선 후기 남성醜絶 서사에 나타나는 섹슈얼리티의 양상」, 『한국한문

- 학연구』 제42집, 2008.
- 이명현, 「오유란전과 배비장전 대비 고찰-중심인물의 성격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29집, 2001.
- 이석래, 「<배비장전>의 풍자구조」, 『한민족어문학』 7권, 한민족어문학회, 1980.
- 이재성, 「창극 공연양식의 현대화 연구: 국립창극단 활동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공연·영상애니메이션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지하, 「고전소설에 나타난 19세기 서울의 향락상과 그 의미」, 『서울학연구』 제36호, 2009.
- 정출현,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여성형상과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7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1995.
- 조준호, 「배비장전에 나타난 골계성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최혜진, 「판소리 서사를 활용한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현황과 과제」, 『한국민속학』 58, 2013.
- 한효석, 「<배비장전>의 풍자성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홍진주, 「배비장전의 형성과 훼손 양상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4. 해외저서

- 川村 溱, 유재순 역, 『말하는 꽃 기생』, 소담출판사, 2002.
- Georg Lukacs, 김경식 역,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7.
- Girard, Rene, 김치수·송의경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1.
- V. Propp, 유영대 옮김, 『민담형태론』, 재편집, 새문사, 2013.

A B S T R A C T

A Study on Regional Uniqueness of Jeju Manifested in <BaeBiJangJeon>

by

KO DONG SIL

Department of Creative Writing & Literary Contents
Graduate Schoo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 Park. Tai Sang

<Baebijangjeon> is the pansori-affiliated novel, which portrays the phase of the times of the lat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in a narrative space of Jeju. This novel embodies the false consciousness and hypocrisy of gentry society of the day in deviant behaviour of Jeju government office officials, and exposes their real picture frankly through a collective satire led by jeju-do provincial residents. The collective satire and cynicism of people of lower classes against such gentry authority are realized in the midst of a special environment of Jeju. This reflected the value rule and ideology by the universal order of social status of the time.

Accordingly, this study considered how Jeju, as a key stage of

<Baebijangjeon>, was reflected in the work through the regional uniqueness.

This study did an in-depth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such as not only the history and culture of Jeju but also its climate and custom, etc. while putting weight on the point that <Baebijangjeon> is the only old novel with Jeju region as a spatial background through the bond, in which folk tale was connected to pansori, and pansori was linked to an old novel.

As a result, this study managed to arrange some turning points of the existing researches on <Baebijangjeon>. The contents are arranged as follows:

First, the source folk tales of <Baebijangjeon> that have been brought up in the hitherto researches is ambiguous in their influential relationship. However, this study made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clear through the arrangement of source folk tales by dividing them into tooth-removing folk tale, rice-chest folk tale and actual facts(non-fiction) around the original.

Second, Jeju-do Island has uniqueness distinct from the overland districts. This study looked into how the historical background, geographical environment, role and phase of life of native figure as a place of exile and border area, and characteristics of Jeju as a tourist attraction are reflected in works of fiction. In this process, this study

was able to grasp the moving line of Jeju Moksa's honored going for his new post.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place names of Jeju related to the text coincided with actual place names.

Third,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cause of unavoidable disappearance of <Baebijangtaryeong>, which was already handed down by word of mouth during the formation period of pansori, from the pansori stage as it passed its prime in the 19th century, might possibly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uniqueness of Jeju region. Pansori is deeply associated with market formation. Earlier on, there formed a market around the Jeju government office, and that much, Jeju was equipped with sufficient condition of pansori formation, but Jeju is still perceived as the region where pansori has failed to take root yet.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uniqueness of Jeju region, it's possible to presume that pansori might have been formed by an author who was rich in background knowledge of Jeju.

Fourth, this study considered how the geographical special space of Jeju is reflected in literary works in the process of genre interaction. This study grasped the narrative structure in depth by comparing a lewd woman narrative introduced in 『Namsailnok』 with Aerang narrative. In addition, this study di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sire structure of the Jeju gisaeng type & Aerang character in the process of looking into diverse features of Jeju gisaeng. Through this, this

study got to know that on the one hand, Aerang, as a character born in combination with diverse features of Jeju gisaeng, dreams of maintenance of livelihood, or wealth and honor, but on the other hand, she is the character, in whom a critical mind of the author, who tried to criticize the status(hierarchical) society of the Joseon Dynasty, is reflected.

Through the research on the uniqueness of Jeju region manifested in <Baebijangjeon> up to the present, this study was able to understand what an important role the spatial background of a pansori-affiliated novel plays in story development. Particularly, <Baebijangjeon> is held in high historical value as bibliographical data as well in that it is the oldest Korean novel with Jeju as its key background. In addition, through this research, this study hopes it might serve as a momentum to newly recognize the importance as generality of spatial background of an old novel.